

제 43 책
제 42 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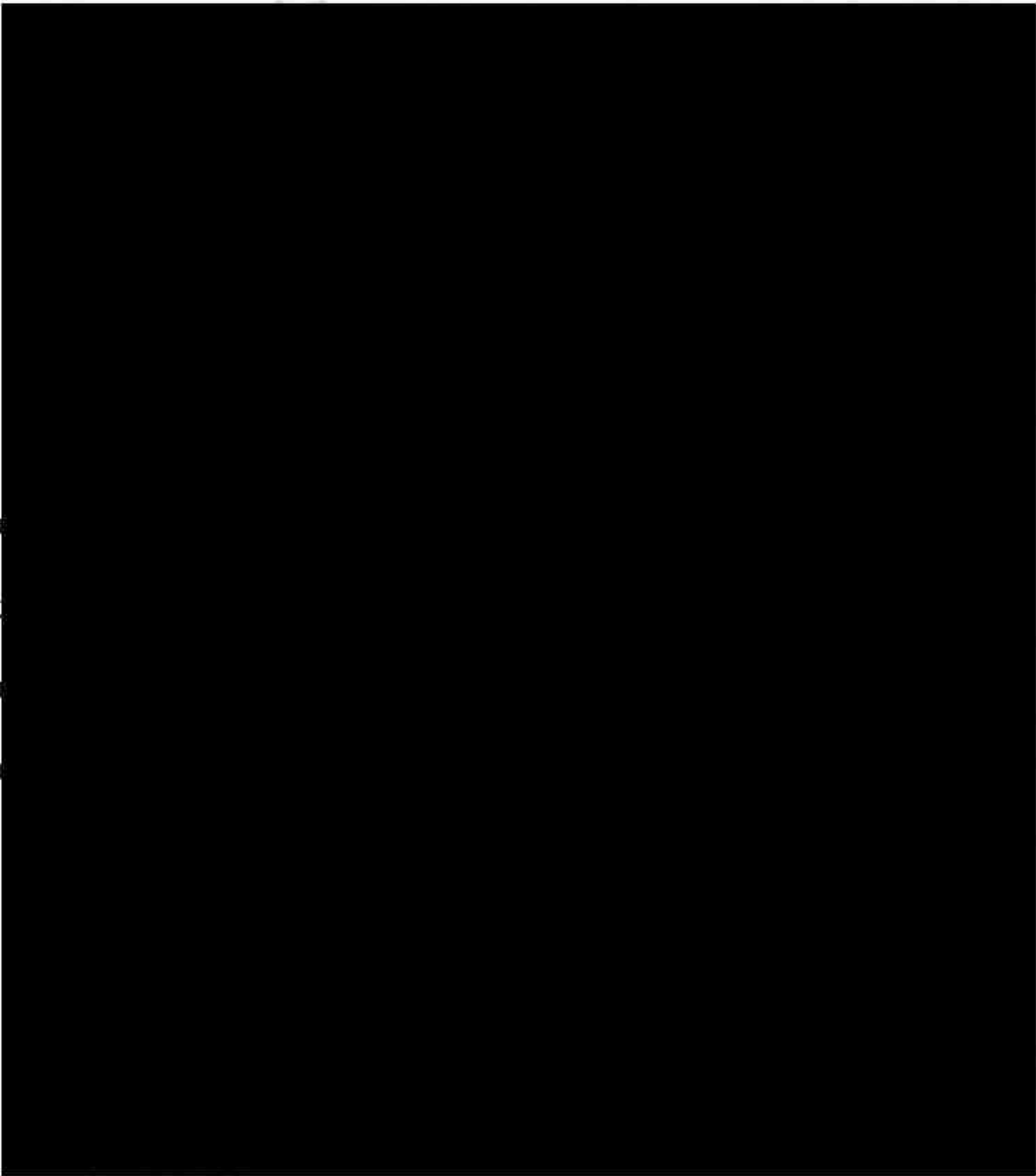
추징금

구공판

증거기록(변재)

검찰	사건번호	2021년 형제 47137호, 47060호, 48255호, 48313호, 50855호	법원	사건번호	고합, 단 호
	검사	김익수		판사	
피고인	구속 1. 가.나.마. 유동규 구속 2. 나.다.라.바.사. 김만배 구속 3. 나.다.사.아. 남욱 4. 나. 정영학				
죄명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마. 부정처사후수뢰 바. 뇌물공여약속 사. 뇌물공여 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제기일	2021. 10. 21. 2021. 11. 01. 2021. 11. 22.				
신병	1. 2021.10. 3. 구속 (2021.10. 1.체포) 2. 2021.11. 4. 구속 (2021.11.3. 구인) 3. 2021.11. 4. 구속 (2021.11.3. 구인) 4. 불구속	석방			
변호인	별첨참조				
증거물	있음				
비고	기소전 미결구금일수 : 1. 20일, 2. 19일, 3. 22일, 4. 없음				

[별첨첨부]

<p>변 호 인</p>	<p>유동규 : </p> <p>김만배 :</p> <p>남 욱 :</p> <p>정영학 :</p>
--------------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별책 3-2 권]

수 사 사 건 기 록

사건번호	2021 형제 47137호 등	주임검사	김익수
피고발인	김만배 외 17명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단 서	직고발		
접 수	2021. 9. 28.		
구 속	불구속		
석 방			
증 거 품	없음		
비 고			

수정완료

12.13.14.

표지

(녹취 12차, 13차, 14차 (수정))

+

요약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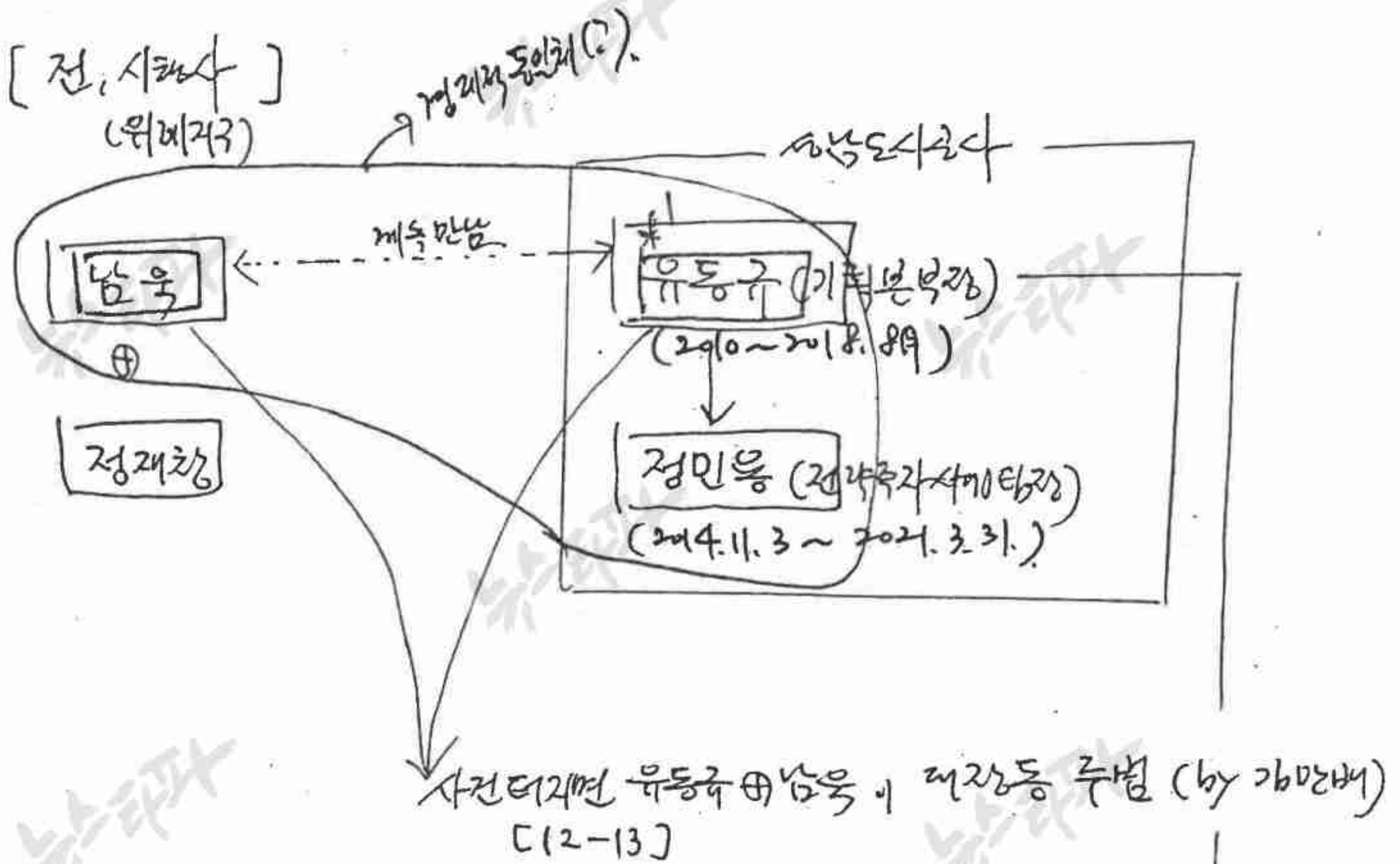
-12차 : 유동규(천화동인1호, 지분 약속, 대가수령방안 3가지 논의 등)

-13차: 유동규(천화동인1호, 실소유지분 약속, 요구 및 지분대가추정액 700억 수령방안 3가지, 위례지구 3억수령 등),

-14차 : 유동규(천화동인1호, 실소유지분 대가에 대한 답변으로, 지급, 수령방안 3가지 중 회사를 설립 후 2025년 투자 등으로 김만배가 지급약속),

12차 (문약) - 수정본

2020.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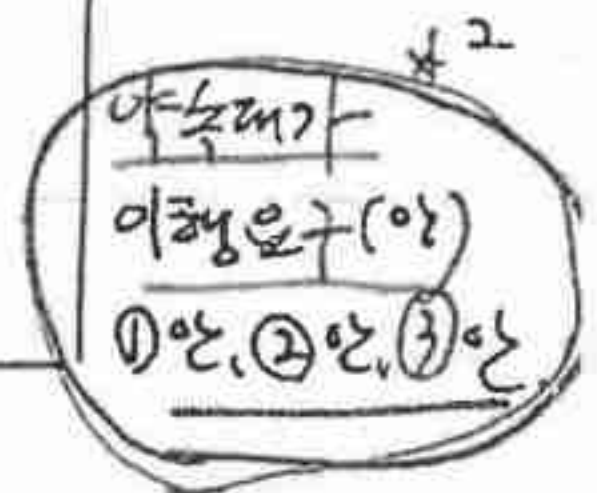


(3) 화천대우

대주주: 김만배 (100%)

(3) 천화동인회

주주: (3) 화천대우



[12-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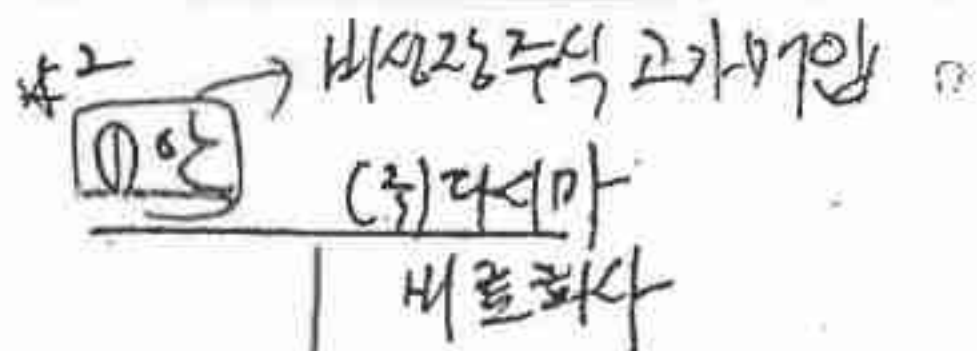
→ 선택시 명역신락

김만배 → 김만배 (100%) (12차)

[12차-10쪽]

* 유동규 범인 선립 [12차-11쪽]

- 유원홍 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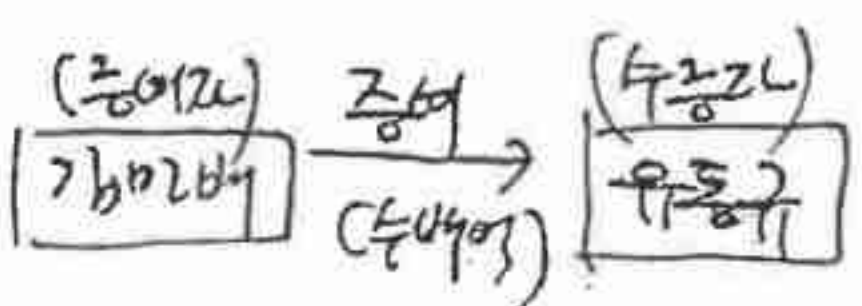


②안

③안 [Destan 가만배]

(3) 시리아비

선립: 유동규 → 김만배



투자금 XXX

가만배

선립: 유동규

주요 대화-내용

김민채 : 유동규는 사업(?) 을 하고 싶은 거지. (3쪽)

[의미: 김민채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고 싶다?]

김민채 : 유동규는 돈, 여자 좋아함.

사업하는 회사 만들면 흔사라서 큰 세액 (4쪽)

김민채 : 빚은 천하등이 호기 때에 손등을 쫓아 세액 일라고

유동규에게 말함.

그 이유는, "만채한테서 유동규에게 약속한 돈을 안주면

김민채가 흔사 먹게 된다." (4쪽)

김민채 : 유동규가 (약속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비행선) 은구하는
안은 ①, ②, ③인 까닭임. [11쪽 ~ 12쪽]

①안 : 다시아비트를 증권에서 수취하는 회사를 선택하면,
김민채는 그 회사 주식을 과가 (추방액)에 개입하여
지급.

②안 : 김민채 → 유동규에게 돈을 증여하는 방안.

③안 : 유동규가 사해하는 선택하면 특자금 해상으로
주는 방안 (12쪽)

김민씨 : 내가 아내를 권하여 부는 러비할 여기도, 돈 들어갈 여기도
(남쪽+서쪽)

안타깝아, 안면은 큰 만남 (2쪽)

김민씨 : (아름다움 관련)
김민씨가 지금 상황은 40명을 가리고 있음 (26쪽)

김민씨 : [책임이다 (?)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와야 ~]
38쪽

김민씨 : 대장등 관련 러비 등 문구 채적해 주실은 (39쪽)
[민관, 시초문체 등]

김민씨 : (대장등 사건 티리엔) 유동규 씨 남쪽이 주범인
(13쪽)

12차 (수정)

- 녹음일시 : 2020. 10. 26.
- 녹음장소 : 판교 요거프레소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 정 영 학 형님 오셨습니까. 예. 저도 지금 왔습니다.
- 김 만 배 아, 지금 왔어?
- 정 영 학 네, 네, 네.
- 김 만 배 서울에서 이리 오라고..
- 정 영 학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여기 왔다가, 오늘 일찍 연습을 하고 저녁에..
- 김 만 배 음.. 아유, 안녕하세요.
- 정 영 학 뭐 드실랍니까?
- 김 만 배 난 데리라떼. 여기 있네. 데리라떼.
- 정 영 학 예.
- 김 만 배 (...) 이거 먹어.
- 정 영 학 네, 네.
- 김 만 배 두 개. 결제하기.
- 기 계 음 주문을 선택하세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드와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정영학 요새는 좀 늦게 와서 연습하고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일찍 와서 연습하고
썩싸게 올라갔어요.

김만배 아, 그랬어?

정영학 부가세 납부가 있어가지고.

김만배 이거 새건데 버려야 돼. 땅에 떨어져서.

정영학 네.. 아니,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김만배 (..)

정영학 아니, 그 그..

김만배 (..)

정영학 (..)이요?

김만배 응.

정영학 그냥 뭐.. 그건 아닙니다.

김만배 내가 볼 때 천하에 정영학이를 이길 사람은 없을 것 같애.

정영학 아니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아닌데요. 실력은 유상무가
훨씬 좋던데요, 저보다.

김만배 에이, 그럴 리가..

정영학 그날, 그날 스코어는 제가 낮습니다. (..) 81개. 유성열 상무 83.
중간에 무너졌어요.

종업원 다 됐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정영학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완전히 정타로 가다가요, P5, 좀 짧은 P5가 있어요. 430미터짜리.
거기서 인제 입빠이 쳐가지고 잘 맞았어요. 드라이버가. 입빠이 쳐가지고
저는 투온을 했어요.

김만배 아~ 그래?

정영학 예. 230~240 정도 치고 (...) 치고 3번 우드로 쳤는데 조금 인제 그런 좀
넘어가 있었고. (...)

김만배 그런데 유사장이,

↳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전, 생생타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동규는 저쪽에서 탈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

↳ 김만배와 약속한 돈을 받기 위함

) 정영학 네.. 분위기도 좋은데, 좋죠.

) 김만배 아니 그런데 개는 만약에 저기 가서 쫓아갔다가 부정한 일이 나타나면 난
리나는 거 아냐. ↳ 유동규.

정영학 요즘 이 지사가 여론조사도..

↳ 이태명.

김만배 아니 아니,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 리가 이게 돼.
그런데 측근이 옆에 있다가, 개를 감시하는 눈들도 많을 거 아냐.

↳ 유동규

정영학 아, 인제는..

김 만 배 응.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지.

정 영 학 안 가는 게 나은 거네요.

김 만 배 그렇지. 개는 가는 순간에 난리나. 항상 이거 좋아하지, 여자 좋아하지.
나 유동규.

정 영 학 그러면 형님 입장에서 못 가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김 만 배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도 똥 묻었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업한대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할게. 그런데,

정 영 학 소문나면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소문나면요?

김 만 배 2020년도에,

정 영 학 돈을 어떻게 줘니까.

유동규가 회사 만들면 혼자하는
방식으로

김 만 배 아니 그거는 (...) 만들면 회사 출자로 해서.

정 영 학 팬참을까요?

나 (주)유원호텔스 [12화-11쪽]

김 만 배 아니, 본인은 (...) 하니까.

정 영 학 그쪽하구요?

김 만 배 응. 그래서 그랬대. 옥이가 천화동인 I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그래
서, '너 왜 그런 짓을 할라고 그러냐' 그랬대. 응?
그랬더니 '만배형이 (형) 안 주면 혼자 먹게는 안 되잖아요' 이러더라.

남북
(1973년생)

유동규 (1969년생)

응?

정영학 (...)

김만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응?
그래서 '그건 나하고 만배형의 일이지, 니 일이냐'

정영학 맞아요.

김만배 응. 그렇게 얘기를 했다.

정영학 괜히 관여해서 사이 별리는 거가 기술이니까. 애가.

김만배 그럴라고 한 거지. 사이 별리는 거지.

정영학 예.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놓으면 형님도 사람인데요.

김만배 그럼.

정영학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제일 걱정이 형님도 사람인데 옆에서 계속 뭐라 하면 생각은 나거든요.

김만배 그럼~

정영학 형님도 사람인데.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김만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영학 옆에서 계속 의심.. 옆에서 계속 이성문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면 형님도 사람인데, 이 새끼들이 그러냐? 형님도 그러잖아요. 하면 안 되지.

김만배 그래서 인제,

정영학 그런 이야기를 아예 안 들으셔야 됩니다.

김만배 거기서 인제 여러 가지 (...), 인제 내가 볼 때 (...) 이성문이하고 전 (...) 많이 해먹었는지 누가 뭐..

정영학 전혀.

김만배 아예 신경쓰지 마. 응? 회계장부 열람하자고. 여러 가지.

정영학 회계장부야 뭐 계속..

김만배 아니, 보라고.

정영학 보라고 해도 됩니다. 그건 다 오픈입니다. 정말 (...) 하나 없지 않습니까.

김만배 그럼.

정영학 그것도 (...)

김만배 그래서 성문이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물어봤더니 (...) 나는 화천대유를 본다고 그런 줄 알았지.

정영학 아, 보여달라 했답니까? 성남의뜰을?

김만배 성남의뜰을?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랬다고 그래. 공식.

정영학 아, 이성문 대표한테요? 보여달라, 장부를?

김만배 조현성이 통해서.

정영학 미친놈들이네요.

김만배 그래서 '왜 불라고 그러냐' 그랬대. 그러니까 '주주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 정영학 대상이 안 돼요. 왜냐면 지는 이 저기의 주주일 뿐이에요. 특금에.

김만배 특금. SK.

정영학 SK가 주주이고, 주주권 행사는 SK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안 돼요. 그걸 막아놓을라고 한 거잖아요. 아예 법도 모르는.. 지가 무슨..

김만배 변호사인 새끼가.

정영학 예. SK가..

김만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라고 그래.

정영학 대상도 안 됩니다, 형님. 그거는. 주주열람권도 없어요.

김만배 내가 볼 때 인제, B1이 좀 많을 거야.
그런데 그거를 욱이한테 표현을 해서는 안돼.

정영학 네,네,네. 여하튼 뭐 그건 형님..

김만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그러면은 뭐 필요하면 욱이한테 사실을 약간 바꿔서라도, 너한테 B1의 수익에 니 지분만큼 세어해줄 거

- 7 -

정영학

야.

정영학 아니, 형님.

김만배 아니 아니, 16%만 줄 테니까. 응? 16%지?

정영학 네.

김만배 15%야, 16%야?

정영학 16%.

김만배 그만큼 해줄게.

정영학 그럼 형님, 그냥 가서, 그때 가서 하면..

김만배 그래, 그때 가서. 왜냐면 이게 니가 내는 60억만큼 안 받을 거니까.

) 정영학 그럼요.

) 김만배 그지? 형이 남욱이한테 받을 거야. 60억을.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러니까 니가 도와줘야 돼.

정영학 나중에 이거 진짜 (...) 판교가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김만배 (...)

정영학 그런가요. 형님이.. 아.. 그런데 그거는 하아~

김 만 배 그거는 (...)

정 영 학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김 만 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너랑 나랑 그것 들어갔으면 (...)

정 영 학 아깝네요.

김 만 배 생각 없이 들어가니?

정 영 학 그러니까요.

) 김 만 배 내가 누군데. 아유~ 응?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 김 만 배 내년엔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너는 별도로 낼 수 없다고 얘기해. 응?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지분대로 하자. 지금 그게.

정 영 학 아예 만날 일이, 저는 아예 만날 생각도 안합니다.

김 만 배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이고. 직원들 인건비하고.

정 영 학 주주총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성남의뜰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주주총회 있는데요, 여기는 참석대상이 아니에요. 법적으로요.

김 만 배 그러면 그거를 떼겠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떼 받아야 돼?
주주들한테 받아야 돼?

정 영 학 받아야 되는데요, 솔직히 받은 거 내놔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요, 육이는 SK에서 모집한 SK가 주주이고, 이 사람들은 SK에서 받
아간 사람일 뿐이에요. 아예 법적으로 아무 사실..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참 (...)

정 영 학 형님이 뭐가 그래요.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새끼야, 내가 욕심낼 것 같았으면 내 동생 앞
에 돼 있는 걸 개네들한테 명의개서를 해주니? 이 새끼야'

정 영 학 그러니까요. 말을 하시죠; 그걸.

김 만 배 (...)

정 영 학 그러니까요.

김 만 배 그러니까,

정 영 학 형님을, 형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김 만 배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지가 영입했다고 그리고, 천화동인 I 참여했다고 한
대. 소문 다 났어. 그러니까 (...)
너는 안 낼 수도 있어. (...)

정 영 학 공통비
잘 알겠습니다.

→ 김만배

↳ 남우

↳ 김석배

↓ 남우

*13차 58
- 김석배명의로
실소유주 58
100%간
*14차 322

천화동인 4호 까지 천화동인 1호
(남우)

↳ 남우

* 신의씨 명의신탁	(주)최천우유 자산관리
	형식 실권
	주주: 김석배 김만배 (자한금 (이세영명))
	(실권서 김석배명의로)

김 만 배 안 낼 수도 있어.

정 영 학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

김 만 배 잘 되면 16%가 넘어갈 수도 있어. 안 넘어가면 차액만큼만 내고. 저 새끼한테는 다 받을 거야. 너는 (...) 형이 처음에 (...) 너하고 짜고 성문이한테 그럴 거야. 내년엔 배당금의 반은 배당하지 않는다. 응? 요구한다고 (...)

정 영 학 정리만 해놓고 요구를 하시죠.

김 만 배 그러면 되지. (...) 그지?

유동규 애는 다시마 비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를 차리겠다. 응?
그래서 그 회사를, '좋아. 오케이. 형이 돈 대줄게 해. 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 회사를 나보고 사례. 응? 거액에. 응? 몇백억에.
그래서 나는 안 산다. 응?

정 영 학 배임이잖아요.

*17차 1, 2 쪽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배임.

김 만 배 배임이지. 안 그래? 비상장 가지고 샀다가..

정 영 학 형님, 그거 큰일나요. 이번에 삼성 삼바가 다 그거잖아요.

김 만 배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정 영 학 예.. 아니, 삼성도 소문 많았었잖아요.

김 만 배 응. 너 증자, 증여로 너 한다' 그랬어 내가. 세금 내고.

↓
유동규

↓
김만배

유등유가
선립한
비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61111	
등록번호	131111-0611119	
상 호	주식회사 유원오카닉	
	주식회사 유원홀딩스	2021.01.20 변경 2021.01.20 등기
본 접	[Redacted]	
광고방법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20,000 주	변경연월일
	보통주식 20,000 주	등기연월일
		금 100,000,000 원

목 적

1. 컨테츠 관련 유통업
1. 브랜드 및 상표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1. 홍보 및 광고에 관련된 기획, 제작, 판매 및 판매대행업
1. 호스팅 서비스 및 웹사이트 구축업
1.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대행업
1. 전자상거래업, 인터넷쇼핑몰업 및 통신판매업
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불결 제조 및 판매업
1. 생활용품 및 공산품 제조 및 판매업
1.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및 부동산개발업
1. 국내외항공운송업
1. 항공기 취급업
1. 항공기 사용사업
1. 항공기 및 기기류 재생 사업
1. 기내식 제조판매 및 기내용품 판매업
1. 항공기내 면세물품 판매업
1. 임대업(항공기, 부동산, 운수장비, 운수부대장비 및 전사통신장비등
1. 항공관련 의료업
1. 운송대리점업 및 관광사업

[인터넷 발급] 문지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만행번호 11702090431010003261001220012111015640M1N1R1A1D301 1 발급확인번호 1116-AAVI-HHNU 발행일:2021/06/30

등기번호	06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판매업 1. 여행상품 판매업, 민세불품 및 도산품 판매업 1. 통신판매업 및 상품판매업 1. 리무진비즈니스업 및 복합 운송수산업 1. 문화사업 1. 항공기를 이용한 자원조사 및 각종기술 용역업 1. 항공에 관련되는 위탁업 및 대리업 1. 종합관광업 및 운동시설 운영업 1. 통관업 1. 관광편의시설업 및 각종 접객 서비스업 1.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1. 국내외 여행업 및 일반 여행업 및 유람선 운항사업 1. 물품 포장업 1. 공항식당 관련 시설 운영업 1. 이-비즈니스업 1. 벤치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1. 항공기 정비업 및 항공기 전문기술 제공 서비스업 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 인력공급업 1. 의류 및 화장품 수출입업 1. 영화 및 드라마 수입, 제작 및 배급판매업 1. 방송프로그램 수입, 제작 및 배급판매업 1. 음반 수입 제작 및 배급판매업 1. 영화에 관한 홍보물, 기획상품 수입 및 제작 판매업 1. 영화 및 드라마 협찬 대행업 1. 광고 및 영상 제작업 및 종합광고 대행업 1. 포럼, 회의, 전시, 공연, 상영등의 이벤트 기획, 연출 및 제작업 1. 이벤트 관련 행사 기획, 연출 및 대행업 1. 비료 수입판매업 1. 각호에 관련된 유통업 및 수출입업 <2021.01.20 말소 2021.01.20 등기> 1.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 용역, 기술지문업, 수출입, 도소매, 전자상거래업 <2021.01.20 말소 2021.01.20 등기>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1.01.20 말소 2021.01.20 등기> 1. 부동산개발, 공급, 매매, 임대업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부동산개발, 공급, 매매, 임대업관련 용역업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신규사업개발컨설팅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신규사업프로젝트 관리업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경영 컨설팅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부동산 개발 컨설팅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부동산 개발 업무대행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등기번호	061111			
1. 외국 부동산 개발 자본유치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부동산 분양대행업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부동산 관련교육 및 세미나 강연회 개최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부동산 개발 자료의 선산화 및 전산정보 판매	<2021.01.20	추가	2021.01.20	등기>
1. 각호에 관련된 유통업 및 수출입업	<2021.01.20	변경	2021.01.20	등기>
1.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 용역, 기술자문업, 수출입, 도소매, 전자상거래업	<2021.01.20	변경	2021.01.20	등기>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인체	<2021.01.20	변경	2021.01.20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정민용	2021년 01월 20일 주소기입 2021년 01월 20일 등기
사내이사 정민용	2021년 01월 20일 사인 2021년 01월 20일 등기
대표이사 정민용	2021년 01월 20일 상법 제383조 1항에 의한 퇴임 2021년 01월 20일 등기
감사 강윤	*****

회사성립연월일 2020년 11월 1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20년 11월 10일 등기

-- 이 하 역 배 --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민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2021년 06월 30일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들립없음을 증명합니다.
 [나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제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1년 06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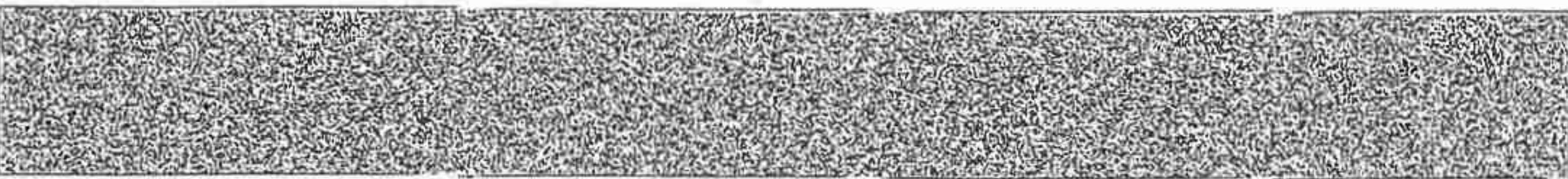
민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시함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쿼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디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세금 몇%냐? 형이 현찰로 내게 되면.

정영학 50%죠.

③안.

김만배 50%. '안 그러면 나중에 시행사를 차려. 그러면 그거는 투자해줄게'

정영학 증여로.. 증여가 아니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김만배 '시행사를 차려'

정영학 별면 뭐 하는 거고. 지원, 도와주십시오.

김만배 그럼. 그때 내가 그랬어.

정영학 주면 안 되죠. 주면 안 되고.

김만배 그게 최고 좋아. 시행사 차려서 망하든 뭐하든 투자해주는 게.

정영학 증자를 해주시거나 대여를 해주시거나. 아니 그런데,

김만배 동규는 (...)처럼 재 죽어.

유동규

그러면서 그러더라. 만배형이 영학이 형만 예뻐하고 자기는 무시하고. 응? 동규가 그랬대. '너도 정영학이 같이 합리적으로 해라. 그리고 이쁜 짓을 해' 그랬대.

그 새끼도 그렇게 몰려다니고. 서로 이해가 맞으니까 몰려다니지. 응?

↓
유동규 + 박숙

정영학 네. 형님이 (...)

김만배 응?

정영학 형님이 (...)

* 13차 - 50.51쪽

- 유동규 리본 약속대가 7000억
수령방안 논의.

김 만 배 옥이?

정 영 학 아니, 그 저 뭐라 해도 (...)

김 만 배 근데 알뎁잖아. 이 새끼 형을 죽일라고..

'사건 터지면 나 이제 남옥이 보호 안해. 응? 남옥이랑 너랑 주범이야, 이 새끼야'

남옥

정 영 학 사이를 벌려놓으면..

유동규

김 만 배 많이 벌린 거 같애. 개 특기가 그거잖아.

정 영 학 그걸 아예 무시를 해버려야 되는데. 아예.

김 만 배 나야 뭐 동규한테 애정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 그런데 유동규가 어린애 같잖아. 옛날에 너 욕을 하도 해놔서. 응? 옥이한테.

정 영 학 저도, 저도, 옥이가 저한테도 많이 합니다. 저는 되게 뭐라 합니다.

야, 너한테 그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객관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여태까지 남 헐뜯는 이야기 와서 하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다.

하지마. (...) 이게 원래 우리끼리 때문에 B1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뭐할라고 하냐. 저는 돌려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런 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아이, 진짜 하다 보니까 좀 뭐..

나랏님도 없을 때는 홍보잖아요. 그 정도야.. 이걸 아유..

김 만 배 오리역 했으면 너랑 나랑 떼돈 벌었어. 지구단위 바꿔줬어. 계약했어.

우리가 계약금 없이 저걸 하겠어? 그런데 다 운이야.

정 영 학 다 운입니다.

김 만 배 운이야. 운이야.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도.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지구단위 바꿨는데 안 될 수도 있어.

정 영 학 네. 이건 (..)

김 만 배 아니, 이걸 안하면 그 전에 그랬대. 그래서 물어봤대.
소송이라도 해서 만배형이 형 안 준다고 그래서..

정 영 학 필로 지가 소송을 해요?

김 만 배 (..) 안 줬다고. 그래서 소송해서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정 영 학 소송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소송을 어떻게 해요?

김 만 배 그래서 하라고 (..) 응?

정 영 학 (..)

김 만 배 성문이한테 얘기해서 아마 SK 관련해서 SK증권이 주주지, 남욱이가 주주는 아니다, 얘기를 해줘.

정 영 학 예. SK에서 투자자를 모아갖고 투자를 한 겁니다. 지네 수수료 조금만 먹고 나머지 다 주는 조건으로. SK가 주주이지, 애가 주주는 아닙니다. 장부 열람권 없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그 구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김 만 배 아참! 수원은,

정 영 학 예.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거요?

김 만 배 응, 응. 이렇게 블록이 이게 85m² (...) 나온 거야. 섞어서.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이쪽에는 공원이 있고, 이렇게 학교가 있고, 임대주택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85m² 이하가 나와.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 이거를 인제 해. 그러면은 니가 볼 때 구도를 어떻게 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법인을 두 개를 만들어놨어. 그러면 구도를 어떻게 짜? 투자자도 있어야 될 거고, 영학이도 들어오면 영학이도 줘야 될 거고.

정 영 학 예. 일단 뭐.. 솔직히요, 이거는 무한경쟁입니다. 무한경쟁이고.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그다음에,

김 만 배 형이 지금 애랑 얘기해서 이거 다 하고 있어. 그래서 기반시설도 미리 하라고 그런 거야. 우리가 먹든 안 먹든.

정 영 학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간에, 저희가 먹든 안 먹든 간에,

김 만 배 그렇게는 해야 될 거 아냐.

정 영 학 네, 네. 일단 먹든 안 먹든 간에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거, (...) 이유가요. 일단 저는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김 만 배 (...)

정영학 저희는 시공사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 예를 들어서 지금 H사 같은 경우가 공사비 370 정도에 잡으면, 호반이요 애네 시공단가는 310입니다. 지네 손해 안 보는.

김만배 그래.

정영학 그리고 현대건설 400 정도 잡으면 애네들 시공은 380 정도 나옵니다. 먹을라면 이 금액으로 공사비를 하고 노마진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쓸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김만배 360에 감정평가.

정영학 여기에다가 플러스 몇백억을 쓸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김만배 (..)

정영학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요, 이 갭은 공사비 평당 70만원 선은 분양평수로 하면 147.45배. 1.5배 정도니까, 평당 분양가 100만원 차이 갭은 저희가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구조상으로 일단 최선을 다 하시되, 많은 돈 투자는 하지 마시고.

김만배 응?

정영학 너무 많은 에너지 투자는..

김만배 여기는 지금 (..) 있어. 이거를 형이 먹든 못 먹든 (..)

정영학 그다음에 조건이 이 조건에다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

김 만 배 그런 건 없어.

정 영 학 (..) 사업자 전부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김 만 배 그럼 우리는 실적이 그러면 화천대유밖에..

정 영 학 화천밖에 없습니다.

김 만 배 그러면 이..

정 영 학 어떻게 공고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은 300세대 이상 실적이 나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면 이거를 전매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정 영 학 전매 가능하면, 지난번에 당선이 된 다음에 (..)에 대해서 전매를 해줄 것처럼 (..)

김 만 배 영학이 너는 좀 들어와야지. 그지?

정 영 학 저야 뭐..

김 만 배 이거 좀 재미 삼아서.

정 영 학 이거는 자본금 10%만 있으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솔직히 200억만 있으면..

김 만 배 현금 (..) 너도 한 10%나, 뭐 10%.

뉴스라파

뉴스라파

정영학 저야 뭐..

김만배 (...) 우리 회장도 넣어주고.

정영학 예.

↳ 더너후데이 휴먼군 허랑

김만배 그리고 그다음에 오리역 이걸 (...)

정영학 네. 그래서 (...) 노마진으로 들어가더라도 이게 마이너스 마진이거든요. 저희가 10원 하나 (...) 이 구조만큼은 (...)

김만배 30층을 35층으로 올리는 걸로. 5층만 올라가도..

정영학 일단 이거는 일단 집어넣는 거는 아마 30세대 실적이면 화천으로 집어넣어야 해요. 없으면 자본금 3억은 있어야 되니까요.

김만배 만들어놨어. 두 개 다.

정영학 두 개 회사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해야죠.

김만배 그래가지고 애네들이 계약금 넣고, 또 조만간에 당선되면 5% 넣고, 그다음에 15% 넣는 거더라고.

정영학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서 빼놓고 여기서부터는 아마 300억 공사..

김만배 (...)

정영학 중도금 반환 조건이기 때문에 반환 약속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 요즘 이런 수주가 없어서 은행도 서로 해주려고 할 겁니다. 3억짜리밖에 안 들어갑니까? (...)

김 만 배 하나는 김한정, 하나는 심 대표.

정 영 학 좋네요. 예.

김 만 배 영학이 너 돈 벌었으니까 천천히 형이랑 안 되는 거 하자.

정 영 학 저도 형님한테도 그냥 건물 하나 좀 사놓으시고 편안하게..
본격적으로 저는 그냥..

김 만 배 그런데 형은 이런 거야. 한번 지금부터는 취미생활을 할 거야. 돈 버는
취미. 너랑. 니네 같이 맨땅으로 응? 하지 말고 안전하게.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 최소한으로 (...) 했으니까. 그걸 하면서 (...)
사람이 살다보면 기분 안 나쁠 수가 없거든. 영학이도 형 때문에 (...)
그래서 기본적인,

정 영 학 크게는 없습니다.

김 만 배 신뢰는..

정 영 학 아이, 그럼요.
형님 재운 (...) 저는 재운은 거의 없습니다.

김 만 배 형이 향후 5년간 어마어마한 재운..

정 영 학 그렇죠.

김 만 배 지금 보면은 그거 다 (...)

정 영 학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버셨잖아요.

김만배 응?

정영학 주식도 많이 버셨잖아요.

김만배 뭘 별어. 형은 (..)

1) 정영학 그래도. 저는 (..) 있어요.

2) 김만배 그래서 나랑 쉬운 거나 하자. 전략적 (..) 내가 아는 연회장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멤버를 (..) 그래가지고 우리 들어갈 때 천화동인에서 들어가서 700억, 800억 (..) 파크하야트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그 사람 거거든. 파크하야트.

정영학 강남에요?

김만배 저기 어디에 있냐면,

정영학 삼성역?

3) 김만배 삼성역. 포스코 있는 데 거기.

4) 정영학 형님도 강남에 어디 하나 확실한 거 (..)

김만배 (..) 그리고 강남에 (..) 저기는 너랑 나랑 (..) 응?

정영학 네.

김만배 일단 거기가 지금 (..)

정영학 (..) 끝나지 않습니까. 그 좀 조직이..

김 만 배 남옥이?

정 영 학 예. (웃음) 형님도 서두르지는 마시고.
물론 제일 걱정이요, 운영비 카바하려고 사업을 서둘러서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김 만 배 그런 건 아니고. 이자로 애들 월급이 커버되는데 뭘. (...) 응?
아무 걱정 없어. 무기명회원권이나 사서 애들 골프나 치라고 하고 사업 (...) 그러다가 좋은 거 나오면 (...)

정 영 학 (...) 저는 버는 게 없으면 형님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김 만 배 아니, 그런 거 없어. 형은 이미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돈 없어도 돼.
돈에 욕심 없어. 왜냐면 지금까지 기자로서도 성실하게 이거지.
기자들의 마인드가 그거지. 특종. 특종이 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것도 할 만큼 해봤으니까.

정 영 학 예.. 진짜 조용히 잘 하지 않습니까.

김 만 배 그래. 그리고 내가 애네들한테 무슨 로비한 얘기도, 돈 들어간 얘기도 안 하잖아.

↓
남옥 + 제리랑

정 영 학 안하시죠.

김 만 배 그런데 아닌 거는..

정 영 학 형님 안하시잖아요. 했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김 만 배 왜? 응?

정 영 학 옥이한테 이야기했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김 만 배 그거 말고, (...) 얘기하면 여기 얘기를 마.

정 영 학 하지 마십시오.

김 만 배 응. 왜냐면 알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는데, 알면은.. 응?

정 영 학 네..

공통비

김 만 배 왜냐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 나눴지만, 아 그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얘기한다고. 응? 응? 남옥이를 뭐..

정 영 학 (...) 비밀이 없는 애라.

김 만 배 내가 볼 때.. 이걸 형 추측이야.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김용철이하고 (...) 저서 진 게 너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해서 형이 볼 때, 실질적으로는 팩트가 안돼. 그래서 남옥이가 (...) 재창이한테 공개했어. 그래서 어차피 자금은 그래봤자 10억 버는 거니까.

개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지금 재창이가 형한테 접근해서 덤비는 주인이 (...) 남옥

정 영 학 형님이 없는 거라고 볼까요?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전번에 보니까 양정 것 했지 않습니까. (...)

MM 시해다
↑

김 만 배 내가 호반에서 15% 받는다고 시장에 소문이 나 있어. 엠디엠을 공격한 게 호반에서 15%인가 20% 준다고 시장에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내가 유동규한테 그랬어. (...) 아니 왜 그런 큰판에 본인이 무슨

힘으로 들어가. 응?

정영학 이해가 안 되죠. 관련해서 조직이 있고..

김만배 근데 내버려두겠냐? 나 물 좀 먹고.

정영학 아니, 제가 가져올게요.

김만배 (..)

종업원 예~

김만배 예, 감사합니다.

(..) 그래?

정영학 저는 여기 똥똥 말아놓은 거 있습니다. 저는 여기 똥똥 말아놓습니다.

김만배 감사합니다. 먼저 가 있어.

정영학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약정이 만약에 (..)

김만배 아유. (..)

정영학 요즘, 요즘은 뭐 전혀 연락은 없는데요. 여하튼 뭐..

김만배 아니 왜냐면 이제 건물 지을라고 그래. 건물.

정영학 지난번에 하나은행 대출 안 됐다고 원망했다 해가지고..

김만배 니가 방해했다고 그러더라고.

정영학 제가 무슨 방해를..

김만배 그거 증거 있어? 그러니까, 증거는 없는데 정황이 있다고.

정영학 그만큼 챙겨줘도 참..

김만배 안 낸다면 어떻게 되나?

정영학 뭘 말입니까. 아, 거기서 안 낸다고 하면요?

김만배 60억을 안 내면. 개 것도 배당결의는 해야 되잖아.

정영학 배당결의 해놓고요, 합의가 되면 주시고, 합의 안 되면..

김만배 응?

정영학 합의가 되면 배당선급 하시고, 합의 안 되면 그냥 갖고 계시고.
그러면 소송 들어올 거예요.

김만배 응, 응.

정영학 그러면 그때 봐서.. 지가 어떻게 소송을 해요.

김만배 소송하라고 그랬어.

정영학 그 사이에 애는 법인세 때문에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계속 세금 내는 거.
소송해서 뭐 이길 수도 있잖아요. 애는 핑계 댈 수 있는 거고. 직원들 인
건비 뭐. 부담 안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주든지.
예를 들어 동의를 해주는 대로 그냥 뭐, 다른 사람은 그만큼 동의를 했고,
넌 안했고.

김만배 성문이한테 코치 좀 해줘.

정영학 예. 배당결의 (...) 선별적으로 주셔도 돼요. 뭐 상관있어요.

김만배 그래. 성문이한테 코치 좀 해줘. 알았어.

정영학 진짜 형님한테 고맙다고 절하고 살아야지.

김만배 형은 칼을 빼기 싫어서 (...) 그지? (...) 있는 거지.

정영학 유는 거기다 뭐할라고 붙어가지고..

김만배 응? 원래 거기는 생각 안해.

정영학 그렇죠? 그 노는 게.

김만배 응?

정영학 놀고 왁자지껄 하고 하는 게.. (...) 있으니까요.
정민용이 그쪽에서 있으니까.

김만배 내가 볼 때 재들은 (...) ^{음...} 만배형이 조금 더 주고 욕이는 (...)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니가 만약에 (...) 남욱이랑 그렇게 장난을 하고 그럴 수 있냐. (...) 이제까지. 응?

정영학 이번에 확실히 양정도 보니까 기각을 시켰더라고요, 잘.

김만배 엠디엠에서?

정영학 예.

김만배 거기가 뭐 진행되는.. 형이 거물 누구누군지 알려줄까?

정영학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

정영학 (...)

김만배 응?

정영학 (...)

김만배 이기남 장관. (...) 김학중이도 있고. 응? 한 40명이..
김만배 같은 사람 40명이 있다고 보면 돼.

정영학 아유, 대단하네요.

김만배 응?

정영학 대단해요.

김만배 남옥이가 (...)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는 유한기가 들어가서 손 쓰면 되는 거고.

재창이는 유한기 (...) 결론은 마지막에 재창이는 거기 붙었을 수 있어.

응?

정영학 저기.. 예.

김만배 시장이 그래서 (...) 개는 남양주시청 쪽에서 나왔던 얘기야.
형이 남양주.. 형이 남양주시청에 갔었다니까.

정영학 저는 형님이 손도 대지 말라 해서 그때부터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김만배 뭔가 하면, 우리가 다 단결해서 그거 가지고 (...)

정영학

아니 저는 이번에 (...) 아무리 잘해줘도.. 아유.

형님, 개도 원래 우리 컨소시엄에 몇 번에 걸쳐 (...) 갔다가 그만큼 챙겨줬으면 됐는데, 일단 욕심이죠.

김만배

똑같이 겪는 질문이니,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이런 질문이야.

이거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이야.

(...) 어떻게 알아, 그것을. 응? 어떤 내용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나? 그지? 너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경영진 어쨌든 자기 사무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

정영학

아니 뭐.. 세금 낼 것 (...)억이나 나가겠죠.

세금 낼 것 뜯겼으니까, 그게 한 40~50억 될 거예요.

김만배

그런데 저 새끼 얼마 받으면 돼?

↳ 2024년

정영학

세전 한 150개.

김만배

세금? 60억, 60억이 아니야?

정영학

60억이죠. 60억, 60억 했다가 결국에는 형님이 부담하시겠다 한 걸, 형님이 그때 한 스무 개 내가 부담할게 하셨는데,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한 거고.

김만배

너는 B1에서 형이 할게.

정영학

형님이 부담하신다 하면 형님의 욕심입니다. 차라리 저는 한번 악을 악을 쓸 테니까 저한테 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걱정이 되는 게 빨대 꽂았잖아요. 형님한테 스무 개를 꽂으면 답이 없어요. 차라리 자신 있게 제가 떠안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떠안은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요새 살살살살 하다가 또 정산 될까봐..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개를 더 달라 해갖고 10개를 더 줬습니다.

김 만 배 B1에서 많이 남으면 너는 감해도 되잖아.

정 영 학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세후로 달래요. 세후로 세금 메꿔줬다.

김 만 배 90억을?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게 언제?

정 영 학 배당으로 (...)

김 만 배 그래도 개는 또 세금 다 내잖아.

정 영 학 세금 다 내는 게 아니라 10%만 내죠. 세금 내는 건 14~15%만 내는 거예요. 그래도 형님한테 피해 안 갔으면 저는 그냥 좋겠습니다.

) 김 만 배 아니 나한테는 (...)
그런데 아무튼 B1에서 내가 볼 때는 많이 남을 거야. 응?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진짜 그나마..

김 만 배 시대가 좋아져서. 평균단가 보면은.

정 영 학 예. 형님이 천운은 타고 나신 거죠.

김 만 배 너랑 나랑 오리역 했으면 새끼야 (...) 벌었지.

정 영 학 아니 그래도요..

김 만 배 삼성이 저거 가져갈 수도 있었거든. 지구단위 일단 그러면은.

정영학 참, 정신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갖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

김만배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설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예.

김만배 형은 서초동에서 탈출할라고.. 그래서 못 믿고 싶으면 빠져나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무기명회원권 가지고,

정영학 그러시죠.

김만배 영학이는 골프나 치러 다니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태광 것도 사고.

정영학 이번에 이게 있더라고요. 법인 유보소득 한참 했지 않습니까. (...)에서.

김만배 응?

정영학 뜰에서 배당을 받으면요, (...) 1호.

김만배 응.

정영학 50% 이상을 배당을 하면 거기는 세금이 없어요.

50%만 빼고 50%. 그런데 지금 막 싸우고는 있는데요.

형님 입장에서는 이걸 받으면 이리 옮기셔도 돼요. 배당 50%면 (...) 받잖아요. 지금 현재 엇그제 법에서는, 지금 안 제시한 거는 요게 지금 보니까요, 개인이 이번에 49.5%로 올랐어요. 이 세율이 올랐고, 법인은 22%에다가, 이거 추가하면 이게 한 20% 됩니다. 42%.

아직도 법인이 유리하긴 합니다마는, 이 50% 배당을 하면 형님은 구조가 좋잖아요.

왜 괜찮으시냐면, 이걸 100% 그렇게.. 이 50%를 배당을 하면 형님은 화천이잖아요, 화천은 이게 세금 법인세가 없어요. 화천이 배당을 받아가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없습니다.

김 만 배 천화동인에 있는,

정 영 학 한번 냈기 때문에.

김 만 배 천화동인에서 화천이 배당 받으면 없다?

정 영 학 대신 주식 소유에 이게 바뀐 게 없으시잖아요. 100%.

김 만 배 응.

정 영 학 100%면, A법인이 B법인에 100% 주주이면, 여기서 법인세 한번 냈잖아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여기는 법인세가 없어요. 배당 갖고 오면.
여기서 50% 이상 배당을 했잖아요. 법인세 없이 가져와요.
여기서는 50% 중에 형님한테 25%만 받으세요.

김 만 배 왜?

정 영 학 남들보다 반밖에 부담이 안돼요.

김만배 아!

정영학 형님이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구조가.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50%가 이게 20%로 낮춰지면, 형님은 10%밖에 안되니까 이걸 부담 없고.
엣그제 건설업계에서 10% 조정해달라 하는 안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 뭐 뭐 뭐 뭐 하면, 제가 볼 때 형님이 저는 (..)

김만배 니가 잘 짜봐.

정영학 아니, 그거 제가..

김만배 그리고 저기, 너도 법인을 좀 만들어 봐.

정영학 예.

김만배 나중에 뭐를 할 거에 대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자동, 이목동 꺼를 (..) SPC. 하여튼간 우리 회장님 들어가고, 10% 너를 주고. 응? 이렇게 본다.

정영학 100% 구조가 돼서..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예. 회사 (..).
차라리 가서서 배당 받아가지고 편안히 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냥 용역으로 하시든지. 용역 보다는 그냥..

김만배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너랑 같이 해. SPC에..

정영학 SPC는 형님이 100% 가지시고,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 돌려주는 구조로 익명

조합이라고 해갖고요.. 하여튼 이걸 구조를 한번 짜 보시죠.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이게 낫죠. 주주들 들어오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형님이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않아요.
물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서는 스트레스예요.

김 만 배 응,응. 그래. 니가 한번 잘 짜봐. 형이랑 상의해봐.
형 화장실 갔다 올게.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아니, 나는 너를 믿는다고.

정 영 학 아니 하여튼..

김 만 배 개인 부담도 있고.

정 영 학 그거는..

(잠시후)

김 만 배 형이 그거는 (...)

정 영 학 아, 그렇습니까, 형님?

김 만 배 그럼. 그거는 수원은 제일 좋은 땅이 요 옆에 화서역에 SK, SK 땅이, 최태
원의 땅이 (...) 분양으로 (...)

정 영 학 아!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

정 영 학 그..

김 만 배 우리 아파트가 52평인데 8억대야. 계속 올라.

정 영 학 땅값이 그만큼 싸게 나오잖아요.

김 만 배 그렇지. 1,160만원에 지금 감정평가가 (..)

) 정 영 학 예.. (..) 잡으면 (..) 원가는 한 1,360. 진짜 거기는 얼마 안 하네요. 33평도 5억 정도밖에 안하나요? 5억 6억 사이? 6억?

김 만 배 한 6억. 요새 올라서 (..)

) 정 영 학 수원이니까.

김 만 배 수원 SK가 (..)

정 영 학 정자동 수원 SK로 나오니까?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형님. 다른 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평당 2,200 나옵니다.

김 만 배 음.. 여기가 싸거지.

정 영 학 예. 35평이 7억7천인데요.

김 만 배 응,응. 그것도 나가지도 않아. 얼마 전에 52평이 4억6천에 경매됐어.

정영학 주면 평균 낙찰이예요, 전부다. 거기가 제일 좋은데요.
다른 데는 1,700. 1,600. 1,700.

김만배 응,응. 현대도 되게 싸. 바로 위애가 현대힐스테이트야. (..)

정영학 예, 있습니다. 현대힐스테이트가 좀 싼데요. 1,750.

김만배 그래. 그것도 최고 비쌌던 건데. SK는 미분양이고,
형이 대장동에서 처음에 돈, 수원 것 갖다가 하다가 (..) 형이 (..) 못 가
저갔잖아. 응? 그거 기억해?

정영학 예.

김만배 응? 그 사장 죽고. 응? 씨팔놈이..

정영학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은행 관리를 잘못해서.

정영학 예..

김만배 (..) 이거거든. 이거. 이게 SK 거기고, 이게 상업용지고. 요기하고 요거.
여기 요거. 형이 여기다 찍어줄게. 잠깐만. 조금 줄여봐.
요거는 상업용지, 요거는 공원하고 학교. 요거는 원래 임대주택으로 나왔
는데. 아니야. 공동용지로. 이게 임대주택이고. 이걸 바꿨어.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여기는 (..) 요거는 공원용지, 여기는 (..) 이거 한 개. 한 개야. 이거 한 개. (..)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서 형이 볼 때는 85㎡는 1,600. 85㎡ 이상인 거는 한 1,500.

- 정영학 일단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시죠. 해보시고,
 김만배 안되면 할 수 없고.
 정영학 안드시더라도 뭐..
 김만배 스트레스 안 받아.
 정영학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김만배 그래.
 정영학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김만배 응.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 (...)
 우리는.. 남욱이랑은 여자 좋아하고 이래서, 그런 걸 좋아해.
 여기 배당도 떨어진 거.
-) 정영학 예..
 김만배 (...)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정영학 예..
 김만배 여기서 (...)
 제발 형님 참견 마시고 이재용이 핸드폰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고.
이재용이 핸드폰 알려달라고 그래서.
 정영학 아, (...)? 예, 예.
 이번에도 (...) 괜히 뭐 약간의 비판을 했다가 아주 몰매 맞는 것 같은데

요. 우리나라 정서가.

김 만 배 국민의 마음을 모른 거지.

정 영 학 우리나라 정서가. 그 운이 있고 그냥..

김 만 배 그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정 영 학 이건 완전히 그냥..

김 만 배 이재명이는 (...)하잖아. 그지?

정 영 학 예, 예. 이낙연 씨는 (...) 해가지고 뭐 (...) 어찌고 해서 완전히 댓글이..

김 만 배 그럴 필요가 없거든.

정 영 학 예. 굳이 그럴 필요 없.. 예.

김 만 배 너는 형이랑 돈이나 벌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골프 마음대로 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응?

정 영 학 예. 옛날처럼 막 절박하고 비굴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나는 형님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보니까..

김 만 배 아니 아니, 스트레스 안 받아, 형은. 형은 그런 건 스트레스 안 받아.
그리고 지분을 형은 조정을 시켜. 이럴 때 이렇게. 형은 그래.
영학아, 지분을 얼마든지..

정 영 학 저야 뭐.. 아니, 그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 김 만 배 스트레스 형은 안 받아.
- 정 영 학 백날, 백날 뭐라 해봐야 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회계자료 그거는 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요.
- 김 만 배 그래서,
- 정 영 학 예. 보고 싶으면 다 봐라.
- 김 만 배 아니 그리고 얘기해줄라 그래. 너는 주주가 아니야. 얘기해줄라고 그래.
- 정 영 학 예. SK가 주주지, 너는 주주가 아니다.
- 김 만 배 니가 왜 주주냐..
- 정 영 학 똥판지같은 소리다.
- 김 만 배 응?
- 정 영 학 뭘 똥판지같은 소리냐..
- 김 만 배 주주가 보자고 그러면 보여주는데, 니가 주주냐. 새끼야.
- 정 영 학 SK가 주주죠.
- 김 만 배 그렇지. SK가 주주지.
- 정 영 학 그게 SK가 돈을 모아서 (...),
- 김 만 배 그러니까 개개인의 구성원은..

정영학 주주권 행사는 전부 SK고. 주주권 행사는.
그런데 이거를 소유관계가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면 안 받습니다.
신탁관계에서 인제 정해져있는 SK 지 마음대로 하겠죠.
우리가 SK 갖다가 해달라 애들이 특금은 주주권 행사는 지 마음대로 합니
다. (...) 행사를 안하는데. 그러면 SK하고 둘이 싸움이죠.
SK가 절대로 그런 거 안해요. 신탁을 해지하면.

김만배 아니,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정영학 예. 상관없는 거예요.

김만배 그래. 하여튼간 성문이한테 얘기할게.
두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나는 어제 들었어. 동규한테.
성문이랑 너랑 들어서 (...) 나오고 벌릴라고 우리가 계속 욱이한테 (...)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영학 그거 되게 뭐라고 해버리세요.

김만배 내가 그래서,

정영학 그런 말을 한 사람한테 되게 혼내버리세요.

김만배 배임이다. 우리가 어떻게 엮였는지도 나온다 했더니, 인제 그게 뭐 누구
얘기 (...), '야, 개같은 소리하지 마. 이 씨팔놈아'

정영학 이날 평생 돌려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형님도 사람인지라 영향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김만배 그랬더니 인제, 며칠에 걸쳐서 있었던 일인데, 남욱이한테도 그러더라.
동규가 안다고. 뭐라고.
그런데 이 새끼들은 친한 놈들이라.. 내가 (...)
그리고 너랑 나랑 처음에..

정영학 거기는 일을,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뭐, 실무자 한명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뭐. 저희는..

김만배 약하잖아.

정영학 시키는 일은 잘 하지만, 전혀 (...) 걱정 안 할 수도 없고.

김만배 아유, 걱정 안해. 그냥.. 그 어떤, 염두에 두지도 않아.

정영학 형님이 갖고 계신 주식에 비하면 (...)

김만배 우리 화천대유 주주?

정영학 아니, 그 멤버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
형님이 진짜 머리 아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김만배 나는 고민도 없고. 뭐냐면 저거를 잘 마무리해서.. 대장동.
그리고 형이, 애가 뭐 위험한 건 다 헛지 해줬어. 민관에. 시청문제 해결
해줬지, (...) 그 문제 해줬지. 뭐, 더 이상 이걸 못하면 애들이 실무자가
아니야. 아니 다 해줬는데 뭐.. 응?

정영학 네.

김만배 더 이상 누가 이의제기한다면 그런 애들이 어디가 있어. 응?

정영학 네.

김만배 (...) 친구지 뭐. 시장이 형 동기 아래로 내려왔지. 그 전에 있던 놈이 형
고등학교 후배지. 응?

↓
이래칠 복시랑.

정영학 네..

김 만 배 시장이.

정 영 학 여기가 좀 시끄러웠나 봅니다. 이렇게 풋말도 붙어있고.

김 만 배 밑에 여기?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여기?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 여기는 (...)

정 영 학 지난번에 보니까 붙어있더라고요.

김 만 배 그거는 시끄러운 건 아니야. 거의 다 끝날 일이지. 그냥 애교로서..

정 영 학 연습장 왔다갔다 보여서 아, 시작됐구나..

김 만 배 성문이가 완범이랑 해서..

정 영 학 3층 연습장에서 보니까 (...)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거의 끝나가는데.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일할 사람.. 입으로 떠드는 사람은 안 남아 있습니다.

김 만 배 그래. (...) 기다리잖아.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밥 먹었어?

정영학 저요? 그냥 집에 가서 먹을라고요.

김만배 빨리 가.

정영학 아 예. 아니 형님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괜히.. 더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아니 이제 연습 끝나고 서울 올라가는데 엄청 막히는 겁니다.

김만배 와서 그냥 이리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지.

정영학 아, 아닙니다.

김만배 수고하세요~

종업원 안녕히 가세요~

김만배 아니 아까 (...)하면서 전화했거든.

정영학 아..

김만배 그래서 성문이랑 현덕이랑 한성이랑 (...)

정영학 네.. 아니 저는 사무실 들어가갖고..

김만배 얼른 가. 얼른 가.

정영학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김만배 차 어디 있어?

정영학 저기요.

김 만 배 얼른 가.

정 영 학 아니, 가시는 것 보고요.

김 만 배 수고해. 고마워. 팬히 오래 잡아서.

정 영 학 아 아닙니다. 형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김 만 배 아니 아니, 스트레스 안 받아. 형은 너랑..

정 영 학 스트레스 대상이 아닙니다.

김 만 배 그래 그래. 너랑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네, 형님. 살피 가십시오.

김 만 배 그래.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

정 영 학 저야 뭐 맨날 뭐 뭐..

김 만 배 형은 스트레스 전혀 안 받아.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갈게.

정 영 학 살피 가십시오.

누수과

누수과

김만배 응.

정영학 네. (끝)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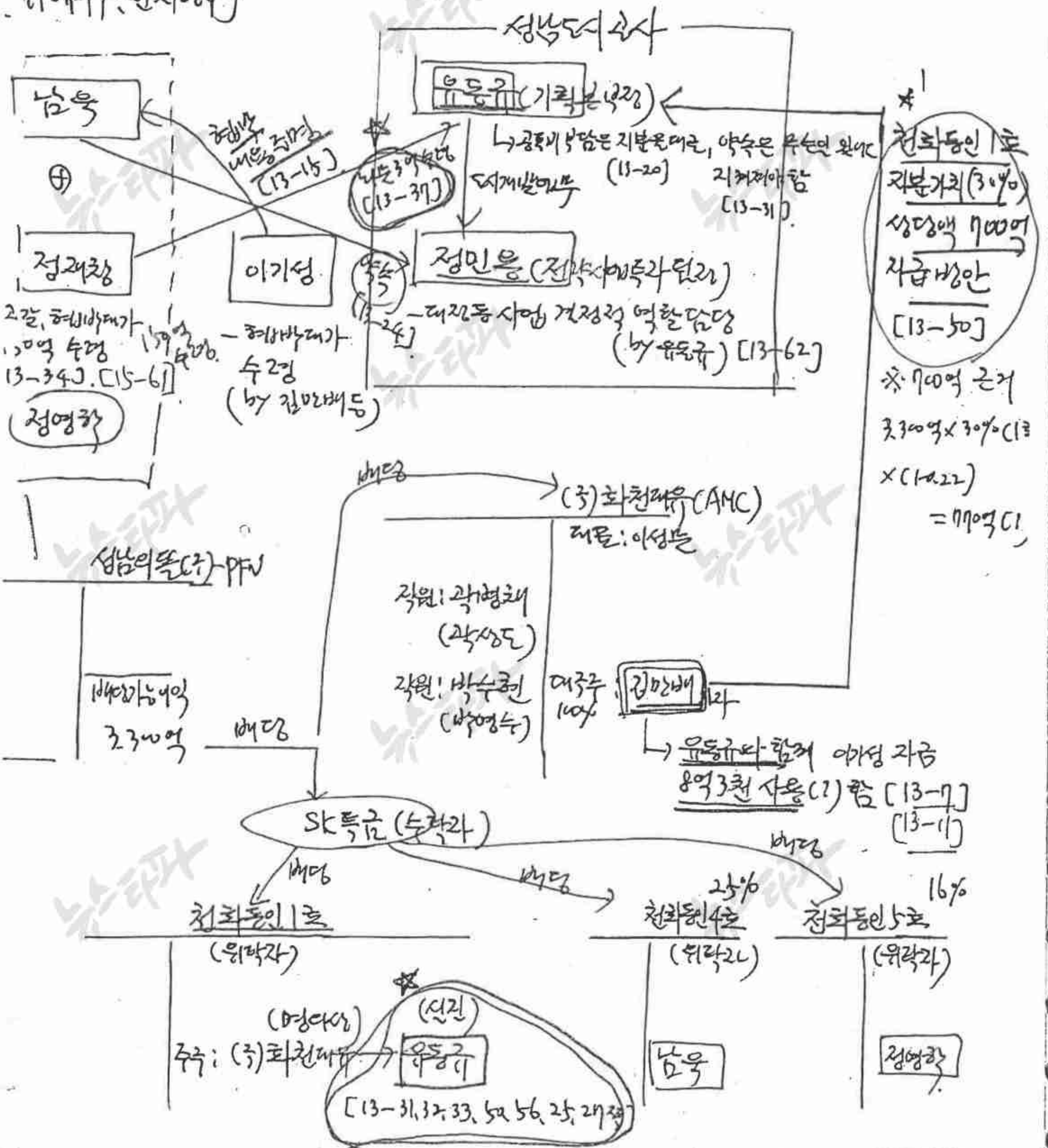
뉴타과

13차(토야) - 수정본

[대회사: 김민배, 정영락, 유동규]

2020. 10. 30 (금)
(보통정리등 민원내방용 약)

[위탁자, 권리행사]



* 공준비 부당기준: 가보내개 ⊕ 최초등인 1호 : 50% ⊕ 남흥 1/3 [= 나머지 50% x 2/3] ⊕ 정영락 8 (나머지 50% x 1/3) [13-24] 583

김민배

100억

자금안

①. ②. ③

[13-50]

유동부
11811

(친화동인1호 실권주주)

① 안 :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안
(주) XXX

비상장주식

선량: 유동부

344

고가지급

김민배

② 안 : 증여

100

김민배 (증여주)

유동부 (수증주)

③ 안 :

회사원래주
주주(대여)

(주) XX
시회사

돈 1000억

김민배 주주

받은대여금

선량: 유동
부주

* 2권재가리 비상금 수령액 및 사등(지급) 현황

[김민배 + 친화동인1호]

총비대액 1.1000억 @ 340억 => 1.3600억 ->

* 3 (13-54)
55

(주) 친화동인

각비대액 500
(비상금대여금)
비상금 500
(비상금대여금)

김민배

비대액
각비대액(?)
(13-54)

양수그룹
최대경영비 비대액

584

사등치

A 12분액 투자대입액	350
B 1분액 "	200
김민배 가자출금 (1호)	4000
투자주식(원금) (by 친화동인1호)	1800
잔액	2300

- 녹음일시 : 2020. 10. 30.(금) 오후 9:30
- 녹음장소 : 분당 정자동 모던노래방(지하)
- 대 화 자 :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김 만 배 객관적으로는 저 (...) 안 되는 거야.

남 자 어서 오세요.

유 동 규 화장실 어딥니까? 화장실 어디예요?

여 자 화장실요?

김 만 배 방 하나 줘요.

여 자 3번방 들어가시면 돼요.

김 만 배 3번 방?

) 유 동 규 방안에 화장실 있나요?

) 여 자 예, 예.

) 유 동 규 3번?

여 자 예.

김 만 배 아 예. 이리 와보세요. 담배 안 피워.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담배 안 피우신대.

정 영 학 아 예.

(문 여닫는 소리)

김 만 배 공통비를 너무 많이 냈다는 주장이야, 남육이가. 응?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래서 나는 그거지. 그 저.. 다른 거 필요 없다. 그거 받은 내라. 아니면 지분대로 해야 된다. 응? 그 얘기는..

정 영 학 저 화장실 잠깐.

김 만 배 응.
만원짜리도 있어.

정 영 학 예.

(물 내리는 소리)

정 영 학 잘 지내셨습니까?

유 동 규 아이구. 잘 지냈어요?

정 영 학 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유 동 규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정 영 학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 동 규 그래도 잘 견뎌내서 다행인데, 잘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 영 학 예..

유 동 규 예전에는 어떡하면 될까를 고민하다가..

정 영 학 하하.

유 동 규 옛날에 처음에 (..) 어떡하면 될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거고 돈 문제는 없었는데,

정 영 학 예..

유 동 규 이제는 다 되고 나니까 전부가 이제는 돈 문제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가는 게,

김 만 배 형이 먼저 얘기할게.

유 동 규 형님, 조금만..

김 만 배 그래.

유 동 규 나는 이 공동비가 있으면 공동비 정리하고, 나중에 그 지분대로 각자 배당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인제 먼저 배당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애.

그러니까 이 공동비를 갖다가 어떻게 책정해서 얼마를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나머지 다 배당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 인제 괜히 뭐 저기 뭐야, 배당 먼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다 다 이 영역이 다 내 영역으로 보이고, 그런데서 자꾸 그런 싸움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애.

김 만 배 자, 인제 내가 얘기할게.
처음에 인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다 슬기롭게 정리를 했어.

유 동 규 네, 네.

김 만 배 왜 정리를 했냐면, 여기 A12에서 큰 구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고, 그다음에 A1, A2, 그리고 A..

(똑똑~)

김 만 배 네.

) 남 자 주문 도와드릴까요?

) 유 동 규 아니 저기, 음료수 있잖아요, 시원한 것 좀 갖다 주세요.

남 자 이온음료하고 물 종류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김 만 배 과일도 하나 주세요. 과일도.

유 동 규 과일도 하나 주시고요.

남 자 맥주는 필요 없으시고?

김 만 배 예. 라떼만 주세요.

유 동 규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 자 아, 예.

유 동 규 제가 그 술을 안 좋아해서..

남 자 아, 그래요?

유 동 규 예. 저기 그, 이온음료.

남 자 그럼 몇 개 챙겨드릴 테니까 남는 건 반납하세요.

김 만 배 난 따뜻한 커피.

남 자 따뜻한 커피요?

김 만 배 캔 커피.

) 남 자 캔 커피요?

) 김 만 배 예.

) 남 자 드릴게요. 프림 들은 거 좋아하세요?

) 김 만 배 아무거나 뭐.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남 자 예,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자. 그리고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른 이견은 없어.

그리고 인제 뭐냐면, 이 정재창 부분은 원래 70억을 원래 주기로 했는데, ^{김만배가} 남옥이가 50억 내고 영학이가 20억을 내기로 했던 거야.

그런데 나는 처음에 이게 선공제, 후정산인 줄 알고 내가 내기로 했던 건 맞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못 낸다 해가지고 했는데, 영학이가 얼마를 냈냐면 60억 플러스 30억을 냈나?

정 영 학 예. 90억 다.

김 만 배 90억 내고.

유 동 규 누구를요?

김 만 배 재창이한테.

유 동 규 90억을 왜 준 거예요?

김 만 배 아, 그 새끼 협박하니까.
그리고 남욱이가 50억 내기로 한데서 10억을 더 내서 60억을 낸 거야.

유 동 규 그런데 왜 협박을 해요?

김 만 배 자기 지분이 있다 이거지. 자기는 고생했는데 왜 안주냐 이거지.
그런데 처음에 70억을 왜 주기로 했냐면,

) 유 동 규 지금 이미 돈이 넘어갔어요?

) 김 만 배 넘어갔지. 애네들 돈이 넘어갔지.

유 동 규 어떤 명목으로 넘어갔어요?

정 영 학 아, 그..

김 만 배 배당으로 갔지.

정 영 학 예. 그냥 이익 분배하는 걸로 해서.

김 만 배 애네들 이익을 분배했어.

유 동 규 분배로 해서 넘어갔다고요?

나석규
(금강인프라건설(주))

(주)호반건설

* 나석규 → 이기성에 보낸
비용증명 [2016 6월]

20억 (선금금)
2014.10월
~ 2015. 4월

30억
(위계각주
고아문호대형대가)

이기성 → 조우형
(비용증명)
6차 38쪽

이기성
[(주)다락, 대륙, 분양제했다]

50억 * 계약서 「정민용」이 참석함.
↳ 성남대량나 전략사업팀임.

남북
(선현인계라이프)

유동규
(성남대량나 기획부팀장)

외부사유(과금)
830만원

김만배기라

120억 지급 → 이기성의 중개사대가
[처분받은 1호는 동해]
(13차-11쪽)
(13차-15쪽)

정영학 예.

유동규 거기서 세금 냈겠네요?

김만배 그럼, 다 냈지.

유동규 그게 가능했어요?

정영학 예. 세금 내고 90억 부담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백4-5십억 준거죠.

김만배 따뜻한 커피?

남자 예. 세 개 했어요.

* 6차 24
이기성 → 남욱
50억

김만배 예. 그럼 됐어요.

자, 그래서 애네들이 그렇게 부담을 했어. 응?

그리고 이 돈 나간 거는 남욱이는 뭘 나갔냐면, 이기성이한테..

내가 이기성이 돈 빌려온 거.. 잘 생각하고 얘기해.

이기성은 남욱이한테 36억인가 한 40억 가까이를 줬대.

그런데 너랑 나랑 받은 돈은 위해 것까지 포함해서 8억3천이야.

인정해, 안해? 아니 뭐 얘기 안해도 돼.

유동규

그런데 나머지는 남욱이가 썼어. 조우형이랑.

그런데 이 그 뭐야, 내가 100억을 내가 빌려서 줬어. (to 이기성)

그리고 이기성한테 또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한 20억 넘게 해주고, 또 요번에도 또 해주고. 그런데 남욱이도 이제 한 15억씩 해줬어.

그런데 본인은 뭐 몇 백억이 세금으로 나갔.. 아니, 비용으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어. 개가 비용으로 나간 건.

남욱

그런데,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직원들의 인건비 인제 상여금..

직원들도 비밀을 아는 애들이 많잖아. 그럼 개네들을 뭘로 막을래?

돈으로 막아야지.

그래서 대표이사 120억, 양완범 전무 50억, 뭐 상무들 15억,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한 280억정도 돼. 맞지?

정영학 네.

김만배 그런데,

유동규 직원이 몇 명인데 280억이나 돼요?

김만배 열여섯 명.

유동규 열여섯 명이나 돼요?

김만배 응.

유동규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열여섯 명이나 돼요?

김만배 열여섯 명 풀었어. 내 말은. 그런데 그 저 이..

유동규 열여섯 명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김만배 대표이사 이성문, 전무, 상무, 그 도시개발 상무 하나,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상무 하나, 경영실장 상무 하나. 그리고 감사 저 창근이형 후배 이한성 상무 하나, 내 동생 처음에 명의로 들어왔던 애 하나. 그다음에 경리부장 하나, 경리차장 하나. 그다음에 주택전문 부장 하나, 도시계획 전문 부장 하나. 실무 일하는 애들.

유동규 예.

김만배 그다음에 저 누구야.. 곽상도 아들 하나, 박수현이 그 박영수네 하나.

유동규 예, 예.

↓
곽영희머리

김만배 그다음에 저 이.. 그래서 열여섯이야.

자, 그래서 해결했어. 그러면 내가 공동비에서 받을 내.
그러면 너는 280억에서 50억을 저쪽에 위에서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제
하면은 그거..

km & partners
(+7)45BT

유 동 규 280억으로 일단 애들 준다?

김 만 배 그렇지. 그런데 50억은 PM 수수료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받은 형이
내고, 받은 애네들이 낸다 했어.
영학이는 16%뿐이 안 되는데 본인이 반 낸다고 그런 거야. 응?

유 동 규 예.

김 만 배 아니, 흔쾌히..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어. 50억 들어와 있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50억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나머지 육이도 60억 내면 돼. 그러면 아무 상관
이 없어. 그런데 그거 안 낼라고 지랄하는 거야. 너한테까지.

유 동 규 그런데, 그냥 보고서 이야기할게요.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남욱이를 만나서 남욱이한테 '너가 지금
불만이 뭐냐. 너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물었더니, 물어보
니까, '자기는 낼 거를 다 냈다고 생각한다. 난 낼 걸 충분히 냈다고 생
각하는데, 지금 자기가 어떤 궁금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많이 안 되고 인볼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해?

정 영 학 사실 뭐 강요를 떠나서, 일단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했

습니다. 사실 뭐.

유 동 규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정 영 학 예. 도시개발사업 전체적으로는 5년 동안,

유 동 규 왜냐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면은,

정 영 학 예. 전혀 문제가 없고, 일단 그 금액으로 다 배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테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유 동 규 재떨이 없나요?

남 자 아. 갖다 드릴게요.

정 영 학 성과급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는 뭐 실은 형님이 결정하신 거고. 그게 실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집행이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김 만 배 아니, 거의 많이 나갔어.

정 영 학 네, 네. 아니, 그 인센티브.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그다음에 다른 건 다 놔두고, 그냥 비용 다 놔두고, 인센티브만 건자가 된거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만 건자.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예. 그거야 뭐.. 다 떠나서 인센티브만 건자. 인센티브를 누구 얼마주고 누구 얼마주고 누구 얼마주고에 대한 거가 좀

뭐 과하다 적다 이걸 떠나서, 실제 지금이 되느냐 라는 걸 보면, 지금이 된다고 봤을 때는 뭐 실제성은 있지 않겠냐.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다 싶어서, 저는 뭐 이왕 집행할 거 빨리 주시죠, 인센티브. 해갖고 저는 당연히 집행했고요.

유 동 규 지난번에 그 저기, 30억 이야기는 어떤 거였어요, 형님? 30억.

김 만 배 이기성.

유 동 규 아, 그분 얘기를 한 거였어요?

김 만 배 응. 이기성이가 그런 거지. 삼호D&C에 진짜 30억을 빌려왔는지 안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삼호D&C 회장은 형한테 이기성이한테 33억을 빌려줬다고 하고, 응?

유 동 규 예.

김 만 배 그리고 또 지인한테 돈을 빌려왔다고 해서 안 갚으면 큰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협박이 시작된 된 거지. 응?

유 동 규 예.

김 만 배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상의를 하더라도. 기성이가. 이렇게 협박이 들어오는데..

형이 자, 이만큼 낼 테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내게 할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지. 그렇게. 형 혼자 낼 수 없으니까.

이기성이 돈은 영학이는 안 썼으니까. 응? 우형이랑 너랑 썼으니까 형이

형도 이만큼 낼 테니까 니네 15억, 15억 내.

그러니까 못 낸다고 했던 거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러면 남욱이 너 15억 내. 우형이는 돈이 없어서, 그럼 형이 빌려 줄게. 응? 빌려줄 테니까 너는 10억만 내. 나머지 15억은 형이 정산을 할 게.

이기성.
↑

이기성이

남욱

* 13차 7쪽
김만배 → 이기성
12063 라음
* 13차 15쪽

남욱 15억
조우형 10억
(김만배 라음)
김만배 15억
→ 이기성
총 45억

그래서 기성이한테 미리 형이 그 돈 받으면 까주라 그래서 빌려줬지. 돈을 상당부분. 100억 말고. 응? 그래서 그거야. 돈은.
그런데 기성이가 거기서 뭐 그런 얘기들을 남욱이한테 어떻게 사실관계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게 뭐 형이 삼호D&C의 장부를 안 봤으니까 33억을 빌렸는지..

유 동 규 그러니까 기성이가 30억을 내고, 형님이.. 그러니까 기성이가 15억을 내고,
고,

김 만 배 누가?

유 동 규 기성이가 15억을 냈는데, 남욱이가 15억을 내야 30억이고,

김 만 배 기성이는 안냈지.

유 동 규 그러니까 기성이가 형님이 빌려줘서 15억을 내고.

김 만 배 조우형이가.

유 동 규 조우형이. 조우형이가 내기로 하고,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다음에 인제 조우형이 내고, 남욱이가 15억 내고, 그러면 30억이고, 형님이 그때 30억을 내 갖고 60억 냈잖아요.

김 만 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30억. 45억인데,

유 동 규 아, 총 45억이에요?

김 만 배 응.

유 동 규 총 금액이 45억인데,

김 만 배 45억인데, 남욱이 15억 조우형이,

유 동 규 15억.

김 만 배 15억인데, 10억만 내라. 돈이 없다니까. 형이 빌려주마.

유 동 규 예. 빌려주마 그래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형이 30억을 낸 거고,

김 만 배 그렇지.

) 유 동 규 그다음에 남욱이가 15억을 낸 거 아니에요? 그죠?

) 김 만 배 응, 응.

) 유 동 규 남욱이 15억을 냈는데.

) 김 만 배 실질적으로,

유 동 규 형님이 30억을 내신 게 맞아요?

김 만 배 낸 거 맞지. 미리 빌려줬는데 그거를 갚으니까 인제.

유 동 규 아, 우형이한테?

김 만 배 아니, 기성이한테.

유 동 규 우형이 아니라, 기성이한테?

김 만 배 응. 아직 4억 남고.

유 동 규 이기성한테?

김 만 배 응,응 4억 남고. 그건 장부가 해결해. 우리 회사의 장부가.

유 동 규 그때는 이미 그건 형님이 30억을 빌려줬던 거예요?

김 만 배 30억을 빌려준 게 아니라, 18억하고 4억을 빌려줬으니까 22억이 나갔지.

유 동 규 22억 나갔으니까, 형님이 그러면 22억에서 기성이한테 결국은 그거를 22억을 빌려줬는데,

김 만 배 응. 아니 그거를 네명한테 다, 세명한테 다 받으면 이 삼호 김원식이 돈 갖고, 남는 돈은 그러면 형한테 갚아라 하면서 빌려줬지. 얼른 얼른 해결을 해. 자기 자살해야 된다고 하니까.

유 동 규 그러면 이게 이기성이가 결국은 형님한테 22억은 언제 빌려갔어요?

김 만 배 그 당시에 빌려갔지. 그 협박하고 막 그럴 때.

유 동 규 그러니까 그 빌려간 게 22억인 거예요?

김 만 배 응, 응

유 동 규 그러면 남욱이가 온 15억은?

김 만 배 15억은 이기성이가 삼호D&C 회장님 갖고,

유 동 규 갖고. 그러면 22억 플러스 15억인 거네 그러면? 총 금액이.

김 만 배 응, 응.

유 동 규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면 37억이네?

김만배 응.

유동규 37억인데, 원래 45억이라면서요?

김만배 아니 그런데 우형이가 15억 내기로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10억만 한거지.

유동규 그러면 개가 10억 내고, 형님이 15억 내고, 남욱이가 15억 낸거다?

김만배 응, 응.

유동규 그러니까 형님이,

김만배 우형이는 하나도 안 내고 형이 회사 돈으로 내고,

유동규 22억을 형님이 낸 거다 이 말씀이에요?

김만배 그 돈을 기성이가 우리 회사에 갚은거지 또.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러니까 기성이는 형이 볼 때, 우형이한테 욱이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지.
아 나 사실 쓴 거 없어. 형네 회사한테 빌린 거 갚았어, 이렇게 했겠지.
갚다, 이렇게 했겠지.

유동규 그런데 남욱이는 저 혼자 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김만배 아, 그건 아니지.

유동규 결국은 자기 혼자 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결국은.

김만배 아니, 뭘 저 혼자 내?

아니 그러니까 기성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왜냐면, 그 당시에 기성이의 내용증명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형이 돈을 이
렇게 이렇게 걸어서 해줄게. 응? 걸어서 해줄게. 단, 자 45억 40.. 이렇게

→ 김만배

이기성 [(주) 더샵, 때문이다]

하는데, 이것을 다 안 받고 나중에 40억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를 하자 해서 형이 돈을 빌려줬지, 미리.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유 동 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명확하게 서로 간에 전달이 되면, 의사소통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해들이 있었고, 좀 쌓이고, 그런 것들이 또 자꾸 불씨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형님.

김 만 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했어.
돈을 다 정리했는데 3일 있다가 남욱이한테 찾아갔대. 기성이가.
찾아가서.. 왜냐면 돈을 다 걸어서 줬는데, 나도 줬어. 왜냐면 예산은 빌려간 걸 제한 게 아니라, 우선은 돈을 아니 저 기성이하고, 돈은 개네들이 주고, 아니 저기 남욱이 돈은 직접 주고, 우형이 돈은 형이 우형이한테 줘서 주게 하고, 형 돈은 모아, 형 돈까지 모아서 우형이가 주게 했어.
그런데 형한테 이걸 받으면 갚기로 하고 그 시기에 형이 먼저 빌려준 돈이 있잖아. 그 돈은 돌려받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해해?

정 영 학 뭐, 할 말 한번 해보시면..

김 만 배 아니,

정 영 학 전체 금액이..

김 만 배 전체 금액은 맞는데, 미리 이게 해결되면 형한테 갚아라. 그러면 형이 줄테니까. 니가 그렇게 뭐 죽겠다 뭐한다 협박 받는다 이러니까, 너 좀 까라 하고 형이 회사에서 줬잖아. 이만큼을.

유 동 규 예. 22억.

김 만 배 22억을 줬지.
그런데 22억을 줬는데, 남욱이한테 15억을 받고, 우형이한테 형이 우형이한테 보내서 우형이가 25억에다가 형 돈에서 45억인가 얼마를 맞춰줬지.

맞춰줬는데, 15억을 뺀 30억을 형이 돌려받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예상이 있으니까. 30억인가. 22억을 줬어. 22억을.

유 동 규 22억을.

김 만 배 4억은 못 받고.

↑ 이기성
그런데 기성이가 남욱이한테 찾아가서 그랬대. '돈을 더 빌려달라'
그러니까 '왜 돈을 더 빌려주냐?' 그랬더니, '만배형한테 빌린 걸 갚았
다' 그렇게 했다.

유 동 규 예. 그래서?

김 만 배 응.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온 게 15억인가 20억뿐이 없다.

유 동 규 그러니까 결국은 내 돈 밖에 안 들어갔네..

김 만 배 이렇게 된 거지.

유 동 규 남욱이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김 만 배 아니, 너도..

유 동 규 아니 그러니까 남욱이 입장에서 보면, 기성이 말 들어보면, 어? 그러면 결
국은 돈 낸 사람 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앞에서 그 형님이 돈 낸 거를, 미리 준 걸 갖다가 그거는
빠져버리게 된 거니까. 개네는 그걸 모르는 거네. 형님이 22억 준거를.

김 만 배 기성이가 얘기했다는데 왜? 기성은 나한테 했다고 그랬는데.

유 동 규 회사가 돈 돌려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김 만 배 아니, 빌려줬으니까 돌려받지. 그런데 아직 4억은 안 받았어.

저 뭐, 8월인가 언제 준다고 그러더니. 9월인가.

유 동 규 아직 안 받았다?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러니까 그 관계를, 관계가 (...)한다면 원인행위가 빠지고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파생된 행위 가지고만 서로 오가니까, 거기서 이기성 말만 들으니까. 이기성이 와가지고 '나 그 돈 받아갖고 돌려줬어' 이 이야기만 들으니까.

김 만 배 아니, 무슨 돌려줘? 빌린 거 줬다고 그랬다는데.

유 동 규 아니 그러니까 형님한테 돌려줬다고.

김 만 배 아. 형한테 22억하고 회사에 빌린 걸 해서 줬지.

유 동 규 그러니까 그거를 형님한테 돌려줬다고 그러니까, 개는, 개는 그러니까..

김 만 배 회사에. 무슨 말인지 알지?

유 동 규 음, 음.

김 만 배 그런데 아직 사업, 계획적인 사업은 안했지. 왜냐면,

정 영 학 형님도 실제 부담하신 거잖아요?

김 만 배 했지. 부담했지.

정 영 학 왔다 갔다 하고 빌려준 거 갖고 이런 게 있으니까.

김 만 배 응, 응. 내가 기성이 돈을..

유 동 규 그러니까 원인 행위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서 인제 이 사람하고의 어떤 채무관계로 그 부분을 갖다가 상쇄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나갔는데, 여기서 뭐냐면 그걸 빼놓고 여기서 아까 그거 받은 거 돌려줬어 이러니까,

김 만 배 아니야. 아니야. 니가 얘기하면 내가 돈 빌려준 거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걸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성은 우리 회사에 빚이 있었고, 정상적인 빚. 우리가 준 돈 말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빚이 있었고. 그리고 D&C의 압박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마. 애들이, 그런데 애들은 아직 동의 안 되고, 우형이는 동의한 상태였어.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마. 그래서 형이 선 집행해줄게. 우형이 돈까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준 거야. 응?

유 동 규 예.

김 만 배 무슨 말인지 알지? 빌려줬어.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고 남욱이한테 15억 받고 이럴 때, 형은 또 빌려준 돈 말고, 남욱이한테 그 돈을 맞춰줄려고 기성이한테, 우형이한테, 우형이 돈하고 형 돈하고 보냈어. 보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집행해준 돈을 받아서 회사에도 갚고 그렇게 했던 거지.

유 동 규 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인데, 그거를 갖다가 차포 다 떼고 이야기하면 형님이 그 저기..

김 만 배 남욱이 돈만 받은 걸로 되지.

유 동 규 남욱이 돈만 받은 걸로 돼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김 만 배 기성이가 그렇게 얘기했대.

유 동 규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김 만 배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정정을 해라, 너.

유 동 규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가 이게 해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당하게 내야 될 부분 같이 내고. 그리고 사실 많이 벌었잖아. 벌었으면 어느 정도 낼 건 서로 내고. 그다음에 형님, 제 생각은 그래요. 형님.

김 만 배 응.

유 동 규 예를 들어서 반반씩 부담하자가 아니라, 지분율대로 부담하면 될 것 같아요. 지분율대로.

김 만 배 그러면 내가 애 돌려줘야 돼.

유 동 규 돌려주더라도. 일단 뭐냐면,

김 만 배 응? 그지?

정 영 학 지분율대로 했으면 정재창이 것도 제가 90억씩 부담할 필요가 없죠. 감정적으로 한 걸 워낙 부담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부담을 해준 거고. 이건 정재창이 것 비율대로 분할했으면 제가 90억이 아니라 한 30억 했죠.

김 만 배 형이 많이 내.

정 영 학 여태까지 그거는 육이도 지가 부담한 게 하도 많다 하니까, 공통비나 이걸 쌓아가지고..

김 만 배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어, 육이한테. 뭘 부담했어? 여기서.

유 동 규 뭐라고 대답했어요?

정영학 그걸 제가 어떻게.. 저도 잘..

김만배 너한테 얘기했을 것 아니야?

유동규 아니, 난.. 저는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냐면 나는 거기에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면 내가, 문서를 가져와서 전체 맥락을 갖다가 보여주면은
제가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보겠지만,

김만배 나한테 이상락 위원장도 몇십억 줬다 뭐 했다 이러는데, 이상락 위원장은
돈 없다고 회사에 와서 맨날 그래. 응?

정영학 아니 뭐, 일정부분 부담한 건 있습니다. 이상락 위원장 부담한 것도 있고,
현장 정리하면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부담을 이쪽으로 충분히 해준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영학
공통비도 사실 형님이 저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김만배 그랬더니, 본인이 반을 낸다고 그랬어, 육이가.

정영학 그다음에, 제 입장에서조차 저야 그냥 싸우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부담해
라 하니까 부담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공통비로 치면 저는 비용이 너무
크죠. 사실은.

김만배 그래. 이 비율대로 하면 애는..

정영학 비율대로 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재창이 것 뿐만 아니라, 공통비뿐만 아
니라 전부 다.

김만배 그런데 이거야.

정영학 저는 사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만배 욕이는 유리할 때는 비율, 불리할 때는 빠지고, 물어봐. 니가 자세히 이따 들어봐.

유동규 그러면 지금 남욱이를 오라고 하죠. 한번 통화해갖고요. 남욱이 끼어갖고,

정영학 저는 그냥 지난번에 공통비 부분도 있고, 남 변호사 세금부분 도와달라 했는데 그냥 좀 하도 심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안 도와준 것도 있고. 오늘은 그냥 형님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빠지고요.

김만배 그래. 니가 영학이 얘기 들었으니까.

유동규 아니, 같이 모여서..

정영학 아니, 그냥 이야기하시고. 저는 비용부담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김만배 왜냐면 서로,

유동규 아니, 더 간 거는 돌려받고.

정영학 그냥 저는 납부하고 조용히 있을랍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 뭐..

유동규 아니 그러니까 더 낼 것도 없고, 오히려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정영학 지난번에 남욱이가 요구한 게 공통비 저한테 내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저한테. 저는 볼 생각이 없습니다.

김만배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남욱이가 처음에 약속한 반을 내면 돼. 60억.

김이에게 부담 강은분 리플(예안) 배역

	정액상 150억		공동비 120억	
	남북	정액상	남북	정액상
지분배분 때문	120억 [=150억 × $\frac{5}{7}$]	30억 [=150억 × $\frac{2}{7}$]	80억 [=120억 × $\frac{25}{25+16}$]	40억 [=120억 × $\frac{16}{25+16}$]
실제 부담	60억	90억	60억	60억
차이	⊖ 60억	⊕ 60억 (추가부담) 40	⊖ 20억	⊕ 20억 (추가부담) 40

→ 정영학

그러면 끝이야. 애는 이미 냈어. 응? 형이 120억 내고. 응?
그래서, 우선 들어. 애가 보기 싫다니까.

남욱이 세금 처리 뭐, 이상하게 자기 앞으로 공제를 안해주겠다 해서 뭐
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남욱

그런데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본인이 회삿돈을 갖다가 썼는데 그걸 세금
으로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해줘? 그런 부분인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 거 아냐?

정영학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몰랐대요.
그다음에, 공통비는 사실 알고 보면 남 변호사 본인도 많이 부담한 것 같
지만, 저는 비율대로 하면 지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보다 훨씬 많이 부담을 했고.

유동규 원래 몇 퍼센트예요?

정영학 저는 16입니다. 16.

김만배 19에서 4% 뺐긴거지.

유동규 누구한테요?

김만배 형이. 처음에.

유동규 19에서 16 같으면 3%네요?

김만배 응, 응. 3%.

정영학

원래 정재창이 비용도 원래 5:2거든요.
155억 늘어났 으면 5:2 비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코너에 몰려서
5:2가 아니라, 90:60으로 바뀐 거고요.
사실 150대에 5:2면 7분지 2이기 때문에, 저는 내뱉야 30억인데 90억을 낸
거고. 공통비도 그러면 나머지 110. 120억 중에 25:16으로 내면 저는 40억

만 내면 되는데 60억 내가 했고.

그렇게 양보도 다 하고 그냥 잘 마무리 하자 이렇게 가고는 싶거든요.
그런데 남변호사 이야기는 좀 더 부담을 해달라. 공통비를. 아니, 전체를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건 형님한테 이야기하실 내용이니, 제가 부
담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형님이 뭐..

김 만 배

내가 얘기해줄게. 아니, 영학이는 가만히 있어.
왜냐면 영학이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금융기관 사람들. 약속한 사
람들. 형이 다 확인해서.. 그래서 영학이가.. 남옥이는 몰라.
남옥이가 알면 남옥이는 떠들어서..

정 영 학

아니, 그건 저는..

김 만 배

그런데 얘는 그냥 알아서..

정 영 학

부담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이뵈구.

김 만 배

그래서..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남옥이는 부담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
는 민용이라고 몽주뿐이 없어. 그지? 이 사업과 관련된 거는.

정민용

민용도다하
진락사범팀장

← 그거는 다 나머지는 지아버지 돈 싸움하는데 100억 물어주고 뭐 해주고,
지가 빌려왔던 돈이야.

그리고 김우희한테 얼마 주는 것도, 그것도 사업에 지 지분을 유지하기 위
해서 빌려와서 썼던 돈이야. 그렇잖아? → 김만배.

그런데 성공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거는 형이 누구한테 해주듯이, 그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말았던 방어에 방위에서 몇명이 있지. 그런 부분들
이 존재해.

그런데 옥이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형한테 존재하는 증명을 한 적이
없어. 그렇잖아? 응? 그런데 25%나 돼, 지분이. 최고 많아.

그런데 우리는 50%에 상당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어. 응?

← 얘는 16%인데 그 이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남옥이도 출현을 해야지. 안할 수 없는거야. 이건 피해갈 수 없어.

김만배 + 유동구.

유 동 규 그건 아니, 제가 뭐 피해가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김 만 배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야.

유 동 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만 배 맞아, 안 맞아? 형 말이.

정 영 학 네, 네. 이거는 이미 협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옛날에 이견 일 단락이 됐거든요. 일단락이 다 됐고. 그렇게 하기로 됐고. 그다음에,

유 동 규 그런데 왜 못 내줬다는 거야? 일단락이 됐는데.

김 만 배 아니, 개 생각이지.
개는 천화동인1이 저.. 소송을 하겠다는 거지. 차명으로 자기앞 건데.

유 동 규 그렇게 생각해요? 남욕이가?

정 영 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 동 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 만 배 그거지 뭘. 형은 그거라고 봐.

유 동 규 아니 그런데, 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왜냐면 애초부터 시작할 때 다 정리 된 건데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정 영 학 그건 소송 대상도 아니고 말도 안 됩니다.

유 동 규 소송 대상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데, 그거를 뭐 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뭐냐면,

김 만 배 아니, 만배형이 혼자 먹을까봐 그랬대매?

유 동 규 아니, 60억. 그 60억을. 60억이 자기는 납득이 안된다. 그 이야기한 거라고 본다. 그 이야기더라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다 됐는 건데, 왜 일단락되고 정리 다 된 건데..

정 영 학 아니, 처음에 남욱이는 120억까지 제가 부담을 해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것까지 저도 부담하기는 좀..

김 만 배 아니, 나도 아니라고 봐. 나도 (애)보고 '씨팔, 니가 내' 이랬는데.

정 영 학 아니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 정영학* *↓ 정영학*

유 동 규 그건 아닌 것 같애.

김 만 배 그런데 왜냐면,

정 영 학 형님이 저한테 화나신 이유는, 배당구조. 왜 선배당을 하도록 했냐. 니가 책임져라, 이거거든요. *↓ 책임*

김 만 배 그래서 화나서 그랬던 거지.

정 영 학 아니, 솔직히 니가 다 배당, 먼저 선배당 구조를 니가 구조를 짰기 때문에, 공통비 니가 다 부담해. 사실 이게 이제 형님의 요청사항이고, 남 변호사는 그 말대로 해,가 남 변호사 요청사항이고.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요.

김 만 배 응, 그래.

유 동 규 말이 안 되는 거죠.

정 영 학 예. 그것 때문에..

유 동 규 그거는 공동의 부담이지, 한 명이 부담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정 영 학 공동의 부담인데 남 변호사는 만배형이 그렇게 부담해라 했기 때문에 형이 한 거고, 내가 가서 구제해준 거고.
그 상황에서 저는 그냥 하도 부담이 많다 하니까 반 부담을 해준 거고.

김 만 배 그리고 참, 내가 물어볼게, 동규야. 남욱이 지분이 왜 25%지?

유 동 규 남욱이 지분요?

김 만 배 응. 26%. 왜? 왜 애하고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개 지분이..

유 동 규 아니요. 처음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형님 말씀대로 19%.

김 만 배 응, 응.

유 동 규 그다음에 29% 천화동인1.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다음에 형님이 그때,

김 만 배 10 몇%.

유 동 규 10 몇 퍼센트. 그리고 남욱이가 27%인가 26%,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죠?

김 만 배 아니, 조우형이 것도 원래 남욱이 꺼였었지. 그렇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조우형이 것도,

유 동 규 원래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네명 것만 했었죠. 우리 증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파생돼가지고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죠.

김 만 배 조우형이 7%도 남옥이가 달라고 그래서 준거지.
그런데 나중에 남옥이가 징역 간..

유 동 규 7%를 누구한테 내준 거예요? 누구 거에서 7%를 준 거예요?

김 만 배 전체 거에서 나눠서 줬지, 개.

유 동 규 전체 거에 7%를 줬다고요?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럼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7%를..

정 영 학 견어서 준 거죠.

김 만 배 견어서 줬지.

유 동 규 견어서 준 거라고요?

김 만 배 응, 응. 10%를 댔지. 10%를.

정 영 학 사실 이 정도면 큰 비용들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용 부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감정싸움인 것 같긴 하거든요.

유 동 규 감정싸움 같아요, 나도.

정 영 학 예, 저도 그냥..

유 동 규

그래서 나는 왜냐면, 이게 잘 정리돼서, 잘 정리되고.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할 때 그랬다면서요. 마지막 건 가지고 왔다면서요.
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위례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
서, 이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인제 별만큼 벌어왔고, 다음을 위한 씨드머
니도 다 준비되고 이랬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왜 더 받고
싶어서, 남의 금 넘어오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욕신각신 하는지. 애석하다.

김 만 배

그런 정무적인 얘기 하지 말고, 형이 영학이 있는 데서 다 얘기할게.
내가 영학이한테 화나서 공통비 직원들한테 가는 280억 중에서 반..

정 영 학

다 부담하라 했죠. 분배를 선배당 구조로 해서.

김 만 배

응. 니 짚으니까 해라. 너 120억 내, 이 새끼야. 이려고서 했어.
한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어거지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낸다고 그러면서 남욕이가 반을 낸다 그랬어.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자기도 내겠습니다. 그러면 내면 돼. 아무 이상이 없어.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내면 되는데.

정 영 학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정재창이 것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제가 부담을 한 거
잖아요.

김 만 배

응, 응, 응.

정 영 학

그거는 인제 뭐..

김 만 배

내면 돼.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무슨 뭐 저만 내느니 뭐니..
그런데 개는 비용을 어디 부담하는 게 없잖아. 공동사업에 의해서.
개는 내 전화 안 받아 그리고. 내가 전화해도 소용없어.

유 동 규

제가 부를게요, 형님. 불러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김 만 배

지금 들은 이야기 그대로 물어봐.

유 동 규

아니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나오면 또 난 그 배경을 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번 저기..

정 영 학

그럼 하시고, 저는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유 동 규

아니, 형님 나중에 할게요. 지금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번
따로 날짜 잡아서.

정 영 학

저는 지난번에 하도 코너에 몰려서, 이제 더 이상..

김 만 배

그래. 이제 너는 가. 왜냐면,

유 동 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러서 하겠다는 거 아니구요, 나중에 한번 저기,
니가 할 이야기 있으면 형님 앞에서 직접 해라. 그리고 형님 앞에서 직접
해가지고 그것이 온당한지 안한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니가..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진짜 혼나야죠.

정 영 학

직원들 인건비는 쥐야죠.

유 동 규

당연히 쥐야죠. 그리고 조용히.. 조용히..

정 영 학

그게 좀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논할 수는 있겠지만,

유 동 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가,

정영학 그건 형님이 결정하실 문제죠.

유동규 예. 결정할 문제죠.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금액에 대해서는.

정영학 네, 맞습니다. 네.

유동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문제없이 끝나는 거죠.

정영학 맞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직원들 기대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적으면 사고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기대가 이미 다 있어서 적게는 어렵습니다.

유동규 아 그러니까 공동비 계산할 때 저녁에 세 개.. 아침에 세 개 준다고 그래
놓고 두 개 주면 저녁에 세 개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삼모사도
있듯이, 그건 뭐냐면 말 뺄으면 그건 지켜야 됩니다.

정영학 맞습니다. 안 그러면 사고납니다.

유동규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정영학 진짜 바라는 거는 다들 결과가 괜찮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만 양보하면 괜
찮을 것 같긴 합니다.

유동규 그런데 사공들이 너무 많아졌네요. 나 모르는 사이에.

김만배 사공이 아니라 다 필요한 인원이지.

유동규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공이 돼 버렸잖아.
필요한 인원이 됐어야 되는데 사공이 돼 버렸다 이거죠.

김만배 필수요원이야.

*13차 2쪽

→ 개인적은 공로사업 참여 X

유 동 규 필요요원들이 요원이 됐어야 되는데, 사공이 됐다는 게 문제가 된다.

김 만 배 그리고 인제 하면서 너무 많이... → 성남도시공사

유 동 규 우리, 우리 안에서는, 안에서 필수요원들, 안에 있는 필수요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왜? 사공을 안 만들었거든요.

한명도 사공을 만들지 않았는데, 바깥에서는 사공들이 많아졌어.

김 만 배 아니,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있어야지, 어떻게 해.

유 동 규 아니 그러니까 비밀이 지켜졌어야죠.

김 만 배 비밀이 어떻게.. 안돼.

유 동 규 그리고.. 아니요. 비밀이 지켜지면서 심부름을 시켰어야죠. 그러면 내용을 모르고 정리가 될 텐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 두고두고도 이거는 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이 너무 지금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행동이 좀 가벼웠다.

그리고 얼마 벌었네, 얼마 벌었네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건 참 애석한 일이다.

김 만 배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해서 직원들이 많이 안거지.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니결로 알아.

유 동 규 ← 너라는 지칭은 안하지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 (...)

정 영 학 그거 (...)

유 동 규 그걸 누가 이야기 안했으면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김 만 배 아니,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화동인1 소송할거다 뭐할거다 이런 얘기했겠지.

유 동 규 그런데 그게 내꺼라는 걸 왜..

김 만 배 아니, 너라는 얘기는..

유 동 규 남욱이.. 남욱이 꺼.. 아니, 남욱이 지꺼라고 그랬으면 지꺼라고 이야기 해야지, 남욱이가 유동규 꺼니까 뺏어와야겠다, 그런 말은 안했을 거 아니에요?

김 만 배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 그거는 형이 오바한 거고. 내꺼 아니라는 걸 알지.

유 동 규 예.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아, 이거는 유동규 몫으로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다음에야..

김 만 배 아무도 몰라. 너라는 거.

유 동 규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애초부터 이거를, 내가 그랬잖아요.
왜냐면 밑에 있는 애들, 하다못해 김씨니, 유씨니, 다른 작은 유씨니, 김씨니.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심부름만 시켜가지고 일만 하게 만들어놓고.

김 만 배 아, 여기도 그래, 동규야.

유 동 규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사공들이 많아진 거는, 그런데 왜냐면 사고 때문에 입막음에 대한 사공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정 영 학 회사 내부는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 동 규

그거는 형님, 암호 같은 겁니다. 일중에.

나는 어디부터 생각 되냐면, 국정원에서 분명히 군불이 나오기 시작할 테고, 이 시점이 언제쯤일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길래 의아했어요.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분명히 불꽃이 어디선가 터질 텐데 왜 스파이크가 안 나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도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
에서 난 회사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상황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볼려고 그랬는데, 그걸 오면서 할라고 그러는데, 형님이 그것까지 다 신경쓰고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가 팀 한 거는 좋았던 게, 다들 역할들을 다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 정리됐고. 했고.

그런데,

김 만 배

동규야,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유 동 규

예.

김 만 배

형이 얘기할게.

뭐냐면, 이.. 인제, 채창이는 뺨찌 붙어서 돈 한 150억 가져갔어.

유 동 규

120억?

↓
정재승

김 만 배

150억.

정 영 학

150억. 150억.

유 동 규

그런데 채창이가 그걸 150억 가져간 게 뺨찌를 붙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요?

↓
정재승

김 만 배 완전히 요건 재창이가 너희집 앞에 가서 협박한 부분도 있고,

유 동 규 우리집 앞이에요?

김 만 배 응.

유 동 규 우리집 앞에 온 적 없는데요?

김 만 배 아니, 너네집 갔대.

유 동 규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당장 오라고 그래봐, 그 새끼. 불러봐.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러지 마.
그리고 또,

유 동 규 아니, 그 새끼..

김 만 배 아니, 형 얘기 좀 들어봐~ 아이~

유 동 규 좃만한 새끼가 진짜.

김 만 배 그리고 형이 기준을 세운 부분이 뭐냐면, 재창이가 호반의 정보를 훔쳐온
걸 가지고 우리는 입찰에 당첨됐다는 명분을 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커.
그런데 처음에 남욱이가 50억을 내기로 하고 영학이가 20억을 내기로 했
어. 아, 들어봐~ 화내지 말고.

유 동 규 이 새끼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떼기로 보이나. 병신 같은 새끼가.
위례에 가서 돈 처먹은 거 다 토해내고 싶어가지고 작정했나, 이 새끼가.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재창이가 밀고 더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야.

↓
정리

김만배

정영학

* 1차 - 3주
- 정재창의 여자복자권
당시론 의거안은 의결됨

너 화내지 마. 내일 전화해. 개한테 할라면.
자, 그런데 내가 고의적으로 재창이가 호반의 정보를 가져왔길래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재창이 때문에 당선됐다는 기준을 만드느라고 재창이
를 남욱이가 50억 내고 영학이가 20억 내는 구조로 만든 건 맞아.
그런데 재창이가 더 밀고 들어왔고. 더 밀고 들어와서 뭐냐면, 자기 지분
이 원래 3분의 1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적다. 맞지?

정영학

예.

김만배

응. 3분의 1이었었는데 너무 적다 이거야.
자 그러면 3분의 1이었었는데, 그러면 그 지분이 어디로 갔어?
남욱이가 가져간 거야. 그 위례 것 하고 바꾼 거야.
위례가 얼마 이득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위례에서 사람들이.
그런데 재창이는 계산하기에 자기가 위례에서 번 돈 플러스 70억 하면은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왔겠지.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대장동 지분을 재창이 꺼를 산 사람이 누구야?

유동규

개잖아요.

김만배

남욱이지.

유동규

남욱이잖아요.

정영학

김만배

남욱이가 내야지. 애) 말대로.

그런데 그냥 지분이 지분대로 하면 나는 재창이하고 상관없으니까. 응?
그런데 아니면 지분대로 하면은 만약에 120억을 달라면 형이 60억을 내고,
개가 한 40억을 내고, 니가 한 30억 내면 되는 구조야. 그지?

유동규

내가 정재창이한테 뭘 잘못했죠?

김만배

아니,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 사사로운 얘기야.
이미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야.

*1차-14쪽
정리청 3억 회계공
(+유동규)

유동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김만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얘기를.

유동규 그런데 왜 뭐, 내 집 앞을 온다는 등.. 왜 그러죠?

김만배 아니, 재창이 돈을 받았대매?

유동규 예전에 처음에 3억 받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 2013. 4 ~ 2013. 8. 12. 까지 회계 347백만원

김만배 응, 응. 그 얘기 가지고.

유동규 그거 가지고, 그건 위례 내가 줬잖아요. 돈 벌어먹었잖아. 근데 왜? 그 다음에 계산할 게 또 남았나?

김만배 아니. 아니 인제 그만 얘기해.

정영학 일단 그거는 잘 저도..

김만배 그러니까 그만해 이제. 그 얘기는. 남옥이..

정영학 저는 돈 내나라 그래서 돈 내놨구요, 그 중간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유동규 아니 그런데 위례. 위례 관련돼갖고 전부 해줬고.
그다음에, 대장동 갖고 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닌데 왜 나한테 따져?
남옥이하고 정 사장하고 같이 따져야 될 문제지.

↳ 정리청

김만배 아니, 너.. 너 얘기는 안해.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된 거야. 팩트는. 팩트를 풀면.
그러면 저 이.. 객관적으로 남옥이가 25% 가져갔으면 25%만큼 계산하면 돼. 그런데 25% 만큼 계산 안하니까 문제야.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영학이랑 너랑 반반씩 내놔. 오케이 했어. 16%를.
그러면 본인도 내면 되지.

선배당 후공제로 해가지고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은 남욱이야. 가장 손해본
사람은 나고, 나지? 응? 그런데도 그냥 오케이 했잖아.

정영학 다들 비용부담이 사실 큼니다.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유동규 음, 음.

정영학 그런데 인제, 그걸 다 떠나서 인건비 나누는 거는 맞는 걸로 생각하거든
요. 인건비 나누는 거는 나눠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 것 다 떠나서. 그 이전 거는 이미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뭐, 다들 서로 많이 부담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혜택은 제일 많이 본 것 같긴 합
니다. 남 변호사가. 그 지난번에 작년엔 이렇게 뭐 정채창이 비용 부담하
는 거, 공통비 이렇게 부담하는 거.

그 측면에서는 남 변호사는 부담이 제일 적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공통비, 저도 사실은 저도 제일 부담하기가 싫었습
니다. 금액이 비율로 치면 저는 굉장히 큰 비율의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3분지 1만 하면 되거든요. 계산하면.

그래서 제가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만, 다 떠나서 인건비는 부담하겠다 생
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유동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김만배 그리고 처음에 생각보다도 이..

유동규 너무 근데 많은 남은 거 아닌가?

김만배 애가 많이 남겼지. 내가 이렇게 남기면 안 된다고..

정영학 아, 아닙니다. 그건 설명이..

김 만 배 응? 애가 많이 남겼지. 형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애가 벌었어, 돈을. 왜냐면 처음 예상보다.

유 동 규 전체 다, 전체 다 얼마 남았어요?

정 영 학 5천개.

유 동 규 5천개?

정 영 학 예.

유 동 규 저스트예요? 아니면은 얼마예요?

정 영 학 플러스 5천 한 3,4백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그러면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에는 얼마 와?

정 영 학 2,500개.

김 만 배 2,500개.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 왔어?

정 영 학 1,890개, 1,500개. 3,300개 배당이 됐습니다. 2,000개 남았습니다.

김 만 배 우리한테 돈이 온 게 1,800억이 들어왔다고?

정 영 학 1,800개 플러스 1,500개. 3,300개 중에, 비율대로 이렇게 들어왔구요.
앞으로 들어올 게 한 2,000개 정도 남았습니다.

김 만 배 그런데 회사에 왜 돈이 없지?

정 영 학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 회사에?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돈이 없는데.

정 영 학 형님은 그 중에 일부가 A12 땅값에 물려있습니다. 그거는 입주할 때 200억 인가 300억 돌려받으시면 되구요.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땅값도 물려.. 땅값에 물려있는 게 있고, 그거는 입주 때 다 상환이 되면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 동 규 그게 지금 A12 블록?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내가 선오한테 물어보니까,

유 동 규 A12블록 땅값이 전체 얼마야?

정 영 학 2천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계약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유 동 규 전체 2천억인데, 계약금을 얼마 냈어요?

정 영 학 350억 정도 들었고,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실제 땅값은 200억, 부대비용까지 350억 들어갔습니다.

유 동 규 누구한테 빌렸어요?

정 영 학 예.

유 동 규 은행에다가?

정 영 학 네, 네, 네.

유 동 규 아, 은행에서 담보로?

정 영 학 다 빌려서 그건 갚았죠. 따로 형님 배당 받은 돈으로.

유 동 규 350억 갚고. 그러면 지금 땅값에 물려있는 게 얼마 물려있어요?

정 영 학 형님이 한 4,5백개 물려있는 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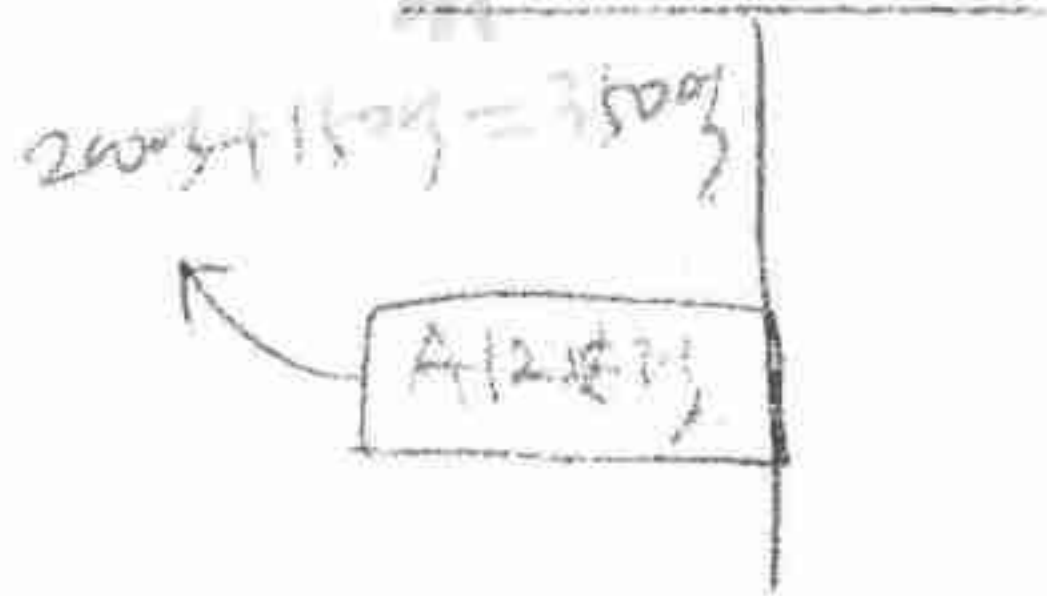
유 동 규 500억 정도 있네.

정 영 학 예. 4,5백개.

유 동 규 400개로 따지면 550억이네. 200억 나간 거에다가 350억 하고.

김 만 배 아, 그래서 돈이 없구나.

정 영 학 그래서 물려.. 이거는 투자개념이고.



유 동 규 그러니까 550억이 있어야 되는데, 땅값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정 영 학 그건 분양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유 동 규 아, 이미 분양이 끝났다?

정 영 학 예, 예.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유 동 규 아. 정해져 있는 게 지금 550억 물려있는 거네?

정 영 학 예, 예.

유 동 규 그러면 들어간 원금이 550억이면 이자.. 저기 저기, 거기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정 영 학 그.. 물론 뭐 이익은 더.. 예.

유 동 규 그러면 한 얼마 정도까지 예상돼요? 세부적으로.

정 영 학 그거는 정산해 봐야 압니다만, 꽤 이익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비용 떨어 뭐하고 정산 해 봐야 압니다.

유 동 규 정산하면 그러면 이득은 조금씩 남겠네. 550억 원금이니까. 거기다가 인제 그..

정 영 학 플러스알파.

유 동 규 플러스알파 이득까지 들어오면은..

정 영 학 예.

유 동 규 예. 그러니까 인제..

유동규.
↑ 김만배

김만배 동규 오해는 아니지? (형이) 돈 빼먹는다고.

유동규 아 형님, 왜 오해를 합니까.

정영학 하하. 그냥..

유동규 그거 지금 그게 언제 우리가 언제, 그게 언제 정산이 돼요?

정영학 아파트 입주 될 때니까, 내년 한 5월.

유동규 내년 5월에?

정영학 예. 그렇게..

유동규 2021년 5월?

정영학 예. 2021년 5월.

유동규 2021년 5월.

김만배 아, 그게 550억이..

정영학 여기에 물려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만배 돈이 어디 갔나 했지, 나는.

유동규 하하하~ 형님은 아니..

정영학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저도 잘 모르구요.

김만배 나는 정산해본 적이 없어.

유 동 규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형님?

김 만 배 아니 아니 아니야. 나는 뭐..

유 동 규 형님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김 만 배 남욱이가 그러더라고. 자기 돈이 350억을 더 배당받을 게 있대.
그래서 내가.. 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나는 내가..

유 동 규 2천억 받고 지금 2천억 남았다면서요. 그 다음에 할 게. (...).
2천억 남았다고 그러면,

정 영 학 충분합니다. 먹고 살기 다들.

유 동 규 다들 먹고 살기 괜찮아.

김 만 배 2천억이. 돈이. 그지?

정 영 학 예. 남 변호사 500억이 더 가거든요. 충분합니다.

유 동 규 남 변호사한테 500억이 나가요?

정 영 학 예. 앞으로.

유 동 규 아이구~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다 필요없고 그것만 있어도 먹고
사니까.

정 영 학 그냥 공통비 부담해도 됩니다.

김 만 배 아니면 내가,

정영학 다 해보면 다 본인이 많이 부담한 것 같은데요, 조금씩 양보해서..

김만배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데, 25%가 16%보다는 공통비를 덜 냈어.

유동규 그러네요.

김만배 애는 은행 한 사람만 한 거고.

유동규 형님, 이거 해서 이것저것 해갖고 돌려주세요. 하하하.

정영학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과분해서..

김만배 영학이, 나도 오해를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유동규 아무튼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우리 정 회계사가 있으면서 하니까요.

김만배 내가 얘기할게. 애는 저 이.. 자기것 안 내놔. 근데 남의 것 욕심 안내.

유동규 그러죠.

김만배 그런데 자기 것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내놔. 자기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 안 속여. 그런데 남욕이는 자기 것도 안 내놓고, 남의 것 뺏어.

유동규 개 원래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김만배 응.

유동규 개가 되면 그냥 저기 어릴 때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김만배 그럼 내가 현재 회사에서 한 400억 정도를 빌려있어. 그거 갚아야지. 배당 받아서 내는 게.

정영학 네. 저도 그게 제일 부담입니다.

김만배 그렇지. 나는 완전히 개털 되는 거네.

정영학 사실 저는 머리 굵적굵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담이 제일 크시겠더라고요. 재무제표 이견 속일 수도 없는 거고, 나타난 부분인데, 그 가지급을 상환하려면 한 400개는, 한 700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배당세액 공제 하기 때문에 700개 정도.
그거는 뭐 탄 데서 좀 버시든지..

김만배 아니 그건 몰아서 될 일이 아니야.

정영학 예. 그래서 배당 처리 좀 하셔야 되고.

김만배 그러면 2천 한 2,3백개 되면 700억 하면은..

유동규 그 자체가,

김만배 세금도 내야 되는 거야.

유동규 세금 내야 되잖아요. 2천 한 3백개 되는 거에서 세금 내고.

정영학 그다음에 또 엇그제..

유동규 법인세가 얼마예요? 300개면 법인세가 얼마가 돼요?

정영학 법인세가요 지금 그.. 일부를 미리 받아서 다행이구요. 내년부터,

유동규 지금 형님은 저기 저 상계처리한 사람들 하나도 없죠?

정영학 네.

유 동 규 그죠?

정 영 학 비용처리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 동 규 비용처리 된 게 하나도 없네.

정 영 학 그다음에 내년부터 지금, 기재부 지금 요즘 세법 개정안이 정말 불리합니다. 배당을 받는 데에서는 아침에도 지금 김영범 기재부차관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를 무조건, 법인세 내고 50%는 무조건 배당으로 봐서,

유 동 규 예? 뭐 말이야?

정 영 학 법인세를 내고,

유 동 규 법인세를 냈는데,

정 영 학 남은 50%를 무조건 강제배당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유 동 규 강제배당을 시키겠단?

정 영 학 네. 배당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유 동 규 거기다 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정 영 학 예.

유 동 규 법인세 뽑아들이고,

정 영 학 나머지 50%는 배당으로 한 걸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 매년 세금부담이 한..

유 동 규 그러면 75%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냐?

정 영 학 75%까지는 아니고, 실 세금부담이 한 40%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유 동 규 아니, 법인세 지금 세율이 어떻게 돼?

정 영 학 22%입니다.

유 동 규 아, 22%예요?

정 영 학 예. 그다음에 나머지,

유 동 규 예를 들어 천억이면 220억이 세금이네?

정 영 학 예, 맞습니다.

유 동 규 220억 세금 내면, 나머지 700..

정 영 학 나머지 780억 남았.. 780억 남았으니까,

김 만 배 그거야. 780억에 50%를..

정 영 학 반을 나눠서. 예. 반을 나눠서.

유 동 규 거기에 780억에 반을 나누면,

정 영 학 390억. 390억.

김 만 배 390억에,

유 동 규 390억. 390억에,

정영학 배당으로 매기기 때문에,

유동규 배당으로 매겨갖고 회삿돈 390억 놔두고, 390억은 배당을 시켜버린다?

정영학 배당하든 안하든 그냥 개인한테 배당세액을 매기겠다.

유동규 그러면 한 40 몇% 되겠네.

정영학 더하기 35%.

김만배 40 한 6,7% 돼.

유동규 그러니까 50%니까. 그지?

정영학 금액으로 따져보면 40% 정도 됩니다.

김만배 자 정 회계사, (...) 하나 내가 물어볼게.

정영학 그런데 형님은 구조가 괜찮습니다. 형님은 빠져나오게 짜놨구요. 저하고 남 변호사만..

유동규 어떻게?

정영학 형님은 잘 빠져나가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부담이 50%까지는 아닌데, 20%까지는 아니 추가적으로 22% 내고 추가로 20% 내야 되는데, 형님은 10 한 3,4%.

유동규 어떻게?

정영학 그건 제가..

김 만 배 뭐 나중에 그거는 해보고.

정 영 학 그래서 실제 35% 정도 부담이시구요.

유 동 규 그렇게 가능해요?

정 영 학 저하고 남 변호사는 45% 부담입니다.

김 만 배 아, 형은 이거지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자회사를 천화동인을 해냈기 때문에,

정 영 학 만들어냈기 때문에 배당을 내려도 됩니다.

김 만 배 내려서. 현금배당이기 때문에.

정 영 학 현금배당 내리고 거기에 25% 맞아야 되는데요. 안 내린 건 아니고, 22%에서 추가적으로 13% 정도는 내실 것 같고, 22%에서 추가로..

김 만 배 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내가 유동규한테, 뭐 유동규 지분 아니까. 700억을 줘. 응? 700억을.

정 영 학 예, 예.

유동규 [성남대리사 기획본부장]

김 만 배 만약에 이걸 줄 수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을 내가 유동규가 만약에 차렸는데 그거를 내가 비싸게 사서.. 그 할 수 있어, 없어?

①아

↓
회사 설립

정 영 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유원홍당소]

김 만 배 그러면 가장 좋은 방안은 뭐야?

* 12차 - 11, 12차

정 영 학 잘 모르겠습니다.

- 유동규 약속대가

수령방안 ①, ②, ③

Q&A

김 만 배 저기를 주면 어때? 증여로 주면. 문제가 돼? 세금 내면?

유 동 규 아니, 그건 세법문제가 아니에요, 형님. 그거는 법적문제죠.

정 영 학 그건 법적으로 해 봐야죠.

유 동 규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그 저기 정 회계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그거는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예요, 형님.

법적으로 따져서 이게 뭐냐면, 이게 증여나 상속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 이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냐면 비상장 주식이 실제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 따져 보면 돼요, 형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김 만 배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총 배당이 얼마 됐어?

정 영 학 손익적으로요?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1,2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1,200개.

정 영 학 잠시만요.

유 동 규 3,000..

정 영 학 1,700개. 1,700. 1,700개.

유 동 규 1,700개.

김 만 배 1,700. 세금 내기 전에?

정 영 학 세전. 세금은 22% 떼었기 때문이에요, 340개 정도 됩니다.

김 만 배 340개. 그러면 1,000 한 300개가 들어왔다고 쳐. 그지?
그러면 한 550억이 밀려있고, 형이 400억 정도를 빌려서 비용을 처리했어.

가치증 후 사용

정 영 학 그다음에 나머지,

김 만 배 나머지 그래서 있는 게 한 그 정도 있는 거지.

정 영 학 한 500개 있으시겠죠 뭐.

김 만 배 회사에?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한 180억 돼.

정 영 학 투자하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김 만 배 아니, B1 그때 계약금 뭐 그런 거.

정 영 학 나가있는 것 같구요.

김 만 배 응. 그래.

정 영 학 거기에 한 200 몇 십억 물려있고, 저기 350억 물려있고.

김 만 배 그러니까 그게 550. 그게 다야, 돈이.

정 영 학 하여튼 뭐..

김만배 배당금
 하이테크 1,700억
 세금 (340억)
 B1 + A1 200억 (550억)
 대어금 (420억)

→ A1 200억

김 만 배 응. 한번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나는 투자한 거보다 한,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게 한 70개 넘게 나가있고.

정 영 학 뭐, 그냥 큰 돈은 그거구요. 가지급이신 거 같고.
그 규모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 만 배 가지급이 그거야. 400개.

정 영 학 얼마 돈이 없으시겠는데요?

김 만 배 없어. 회사에.

정 영 학 세금 내고.
솔직히 저도 세금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고 다닌 거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가 남는 겁니다. 앞으로.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현덕이하고 선오한테 총 우리 회사가 끝나고 세금 다 제하고
한 얼마 정도.. 형 가지급금 갚기 전에 얼마 정도냐 하니까, 한 1,500개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

정 영 학 그렇죠. 세금 있고요 일단.

김 만 배 응. 내년에 배당 받는 게 한 800개 정도고.

2021년

정 영 학 네. 세금 부담이 큼니다.

김 만 배 응. 그래서,

정 영 학 그다음에, 그 350개 중에 비용 써버린 게 꽤 됩니다.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러면 400개를 갚으려면 한 800개 풀로 친다 쳐.

김 만 배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들은 총당해야 돼. * 13억 - 5억 정도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50억 약 20억 정도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응?

정 영 학 5억씩입니까? 50억입니까?

김 만 배 아아, 이거 잘못했네. 다시 처음부터.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홍선근.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박영수, 홍선근. 이게 현재 60억이지?

정 영 학 다섯.. 뭐 50개 곱하기,

김 만 배 60억. 그러면 자, 최, 최재경, 박영수.

정 영 학 300억이죠.

김 만 배 권순일, 김수남, 홍선근. 그리고 윤창근 15억, 그다음에 누구야. 저기.. 응? 그러면 얼마야?

정 영 학 50, 50, 50, 50, 50, 50이면 100. 200. 300.

김 만 배 300..

정 영 학 20.

김 만 배 320이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320이면,

26
27.
30
31
32

26
27. 약 20억
320억
 최재경 50 홍선근 50
 박영수 50 윤창근 15
 곽상도 50 강한구 5
 김수남 50
 권순일 50 320억

정영학 320억.

김만배 응, 320억. 윤창근. 아니, 다시 한번.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권순일, 홍선근. 왜 모자라지, 사람이? 써서 해봐.
김수남, 윤창근, 박영수.. 윤창근 15억. 윤창근. 그다음에..
320억이네. 그지?

정영학 예. 50..

김만배 320억. 응? 320억이면, 100억 남는 거네. 저기는. 그지?
그러면 저걸로 그거 뭐야, 저것까지는 되네. 이기성이 것까지는. 그지?
내 말이 맞지?
김수남. 홍선근. 맞지?
↓
(즉) 더감, 더특이수

정영학 예. 50개씩입니까?

김만배 50억.

정영학 50개씩?

김만배 응. 200. 300.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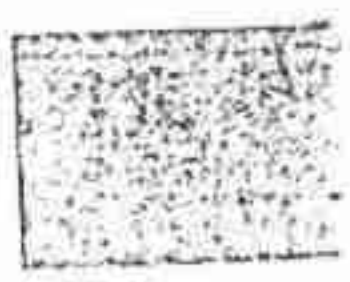
정영학 320. 원래 이게 사실 200 몇십억이 남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실제 정산을 해보면, 남는 거는 일단 갖고 계셔보시고.

김만배 322억이면 이기성 것까지 여기서 해결을 하니까 괜찮네.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김만배 그지? 420. 응?
그럼 비용만 쓴 것 190억만 하면 하는데, 거기서 니가 니네들이 50억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 뭐야..
↓
권엔탈론스



→ 클래밍 대비안
(이한성 대표정처리)

김 만 배 그건 따블이.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 겠습니다. 음?

정 영 학 (...) 현재.

김 만 배 그거. 그게 그거야.

정 영 학 그쪽에 (...)

김 만 배 응. 그 부분이 그분은 (...)

→ 클래밍 대비안
(이한성 대표정처리)

정 영 학 그런데 형님이.. 아니 뭐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소송이 되면.

김 만 배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응? 계속 그렇게 되는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 이한성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3)

정 영 학 아니요.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선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할 때.

김 만 배 그럼. 왜냐면 (...) 약속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 (...) 이러더라고. 그걸 제가 (...) 하는 것 (...)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게,

정 영 학 말이 안되죠.

김 만 배 (...)

그러면은 한 400개는 다시 갚는 거니까, 한 1,200개나 이렇게 된다고 얘기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그런데 여기서 인제 영학이 알다시피 50억짜리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그거 제하기 전이야. 그지?

영학이는 알어. 내가 얘기했어, 동규야. 누구를 줌..

정 영 학 저는 그냥 지나가는..

김 만 배 응. 왜냐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유 동 규 그거는 저기 그, 그걸로 주신다면서요. 변호사들은. 고문료로.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럼 그건 세금처리 되잖아요.

김 만 배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지.

유 동 규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들어온 돈에서 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상계처리가 된다는 거죠.

↓
비용처리

김 만 배 응, 응.

박수현 (박영수 고장장의 딸)

유 동 규 비용처리가 되잖아요.

↑

김 만 배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수현이하고 곽상도는.

유 동 규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거는 그리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으로.

↓
곽영래대리.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유 동 규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김 만 배 아.. 최용석 변호사는 지도 연장 안해준 것 때문에 좀 섭섭했는지 연락도 없더라고. 그런데 많이 받았지 뭐.

정 영 학 많이 받았죠.

김 만 배 사람들 참 욕심 많아. 그지?

*13차-55쪽
곽상도! 곽상도씨는
동태서
50억 수령함

정 영 학 예.

↳ 곽상도

김 만 배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곽상도씨

정 영 학 그냥..

김 만 배 며칠 전에도 2천만원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임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문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한 사람은 너보다는 (...)

양 전문

정 영 학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김 만 배 응. 골치 아파.
형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잘 대처할 거야. 잘 대처하고.

성문이가, 너 고집이 쎄데 자꾸 저거를 인허가 받은 다음에 매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인허가 받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냥 현재 상태에서 팔든지, 인허가 받지 않은 상태로 해야지.

꼬리표가 붙는 심의가 결과가 나오면 되게 힘든 거야.

- 곽상도: 김만배에 돈

2021. 4월 말 50억 지급

- 리셉션인 | 곽상도
산재함리유

김만배 그런데, 아들은 회사에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

너 곽상도 곽상도

유동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곽 선생님은.. 곽 선생님도 변호사 아니에요?
지금 현역이잖아요. 그럼 정치자금법에 걸리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제일 문제네. 그거가.

김만배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

유동규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저기 그.. 아들한테,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김만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형이 인제 기술적으로 잘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수현이하고 곽상도.. 뭐 아들은 여기에 50억 넣지도 않았어. 비용
에. 5억씩 넣었어. 그지?

유동규 5억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곽 선생은.

김만배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유동규 직원들한테도 보너스 줬다?

김만배 응.

유동규 많이 남아서 애네 줬다?

김만배 응. 최고 조금 가져가는 사람이 5억이야.

유동규 뭐 그렇게 하면야..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에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만배 왜 문제야? 사번 1번인데. 공모하기 전서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

데. 응?

유 동 규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문제는 변호사비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유 동 규 변호사비로 처리 못하니까.

김 만 배 응, 응. 변호사가 아니니까.

유 동 규 변호사들이야 변호사비로 주면 되니까. 자문료로 주면 되니까.

김 만 배 그럼. 응, 응.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조인이야.

유 동 규 나 변호사 자격증 하나 따놓을 걸 그랬나. 하하하하~ 공부 피 터지게 해
가지고. 하하하.

김 만 배 근데 나는, 동규야, 나는 그래.

정 영 학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유 동 규 아니야. 어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김 만 배 나는 남욕이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남욕이 손 더 비틀고 싶은 생
각도 없어.

유 동 규 그럴 리야 없죠.

김 만 배 응. 그리고 영학이 비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유 동 규 고생했네요.

- 김 만 배 난 솔직히 영학이, 조금 더 보충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왜냐면 너무 많이 뺏겨서.
- 유 동 규 고생 많이 했잖아요.
- 김 만 배 16%의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남옥이는 25%의 의무를 해야 돼. 그런데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인건비에서의 25%를 내야 된다고. 그게 25야.
만약에 내가, 나는 양보한 게 되게 많아, 사실은 양보한 게 많은데,
이거를 옥이가 안 지키면 나는 옥이 배당 안 줄 거야.
- 유 동 규 누구 한명만 안할 수는 없어요, 형님.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 김 만 배 응, 응. 아니, 왜 없어? 차등배당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배당해주고,
개는..
- 유 동 규 다른 사람 못해요. 법적으로 안돼요, 형님.
- 김 만 배 왜 안돼?
- 유 동 규 됩니까, 그게?
- 정 영 학 일단 그..
- 유 동 규 됩니까?
- 정 영 학 (...)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 김 만 배 그렇지.
- 정 영 학 안 주면 주주는 기다리다가 소송하겠죠. 소송하면 줘야줘.

유 동 규 그러니까 결국은 줄 수밖에 없어요.

김 만 배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데, 안준다 이거야. 소송하라 이거야.

정 영 학 그 사이에 괴롭죠. 세금 내야 되고.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주주가. 배당이 되게 (...)
그런데 인제 그 소송 끝날 때까지 세금 못 내면 계속 괴로울 수 있으니까.

유 동 규 그 괴롭히는 거지; 그냥.

* 12차 10
* 14차 3
* 13차 58

김 만 배 아니 그리고 내 동생 시켜서 실소유주 관계를 해달라고 소송 넣으면 되는 거지. 10년 갈 텐데. 응?
내 동생이 주인이었잖아. 맞아, 안 맞아? 정 회계사. 그지?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응. 나는 욕심 하나 안 부리고 그대로 약속을 지켰잖아. 그지?
모두 다 내 동생 앞으로 돼 있었는데.
내가 욕심 부릴 수 있었으면은 저거를 그대로 다 줬겠냐. 응?
뭐 돈 보고 욕심을 낸다고 그래, 형이.
객관적으로 맞아, 안 맞아? 정 회계사. 응?

정 영 학 저는 뭐 뭐 다 떠나서, 인건비는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 다 떠나서 인건비는 부담했습니다.

김 만 배 너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동규야.

유 동 규 예.

김 만 배 응? 아, 개 논리야 개 논리지 뭘. 그런데 객관적이지 않잖아.

유 동 규 나중에 한번 불러서 얘기 들어보세요, 형님. 얘기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순리적으로 다 풀면 되죠. 지금 같이 (...) 하고.

정영학 좋게 잘 푸시는 게..

유동규 잘 좋게 풀어야죠, 형님. 그거 자꾸 꼬아가지고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좋을 것 없어요, 형님. 풀어서 그냥 가면 돼요.

김만배 아니, 형은 개하고 안 싸워. 무슨 어린애처럼 싸워.

유동규 그러니까요.

김만배 그냥 조치를 할 뿐이지 무슨..

유동규 아니, 결국은 그게 형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풀어서 가면 돼요.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 상황이 뭐냐. 그리고 상황들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로 풀면 되죠. 그 뭘 싸워가지고 해가지고..

김만배 그리고 내가 영학이 어거지로 영학이 것 뺏을 수도 없어.

유동규 아니, 왜 뺏어요? 뺏으면 안 되죠. 절대 뺏으면 안 되죠.

김만배 그럼.

유동규 그리고 저기, 5년 전의 일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정영학 아니 뭐..

유동규 미안합니다. 그때는 내가 술이 과해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김만배 너 새끼야 남욱이 쥐어 팠래다가 뺏대매.

유 동 규 아유. 아무튼 뭐 미안합니다.

정 영 학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유 동 규 5년 전에 저기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왔어요, 형님. 전 자리에서.

김 만 배 남옥이가 너 부랄 터트렸다고 자랑하고 다니던데.

유 동 규 몰랐어요, 그거. 몰랐어요, 그거.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형님. 하하하.
그 친구도 아이고.. 애들도 그렇고.

김 만 배 그리고,

정 영 학 그.. 그냥 다들 조금씩 양보하고,

유 동 규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정 영 학 본인이 제일 억울한 것 같은데요,

유 동 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 영 학 내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양보 많이 하셨고.

유 동 규 예, 맞아요.

정 영 학 저도 양보한다고 했고.

김 만 배 아니, 그건 형이 알아.

정 영 학 예. 제가 그렇다고 공통비 120개 다 낼 수도 없고.

김만배 그건 뭐 내 어거지로 우겼던 거고. → 13차 29

정영학 그다음에, 재창이 것도 제가 부담 많이 했구요.
원래 재창이 거는 (...) 할 건 아니긴 하거든요. 원래는.

김만배 남욱이가 지분을 가져가니까 남욱이가 해야지.

정영학 그 남욱이 지분이 많은 거고.

유동규 음. 음.

정영학 그래서 두배가 된 거거든요.

유동규 음음, 그렇지.

김만배 사실 조우형이도 남욱이가 준 거잖아. 남욱이 꺼에서.

정영학 사실 그렇게 보면 그 비용들을 뭐 좀 지분이 같았다면 제가 할 텐데요..

유동규 우형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형이 몫도 자기가 한 것 처음에 상계해준 거죠.
10% 할 때 그때 상계해준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남욱이도 수속도 아마 밟고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싼 똥
은 항상 자기가 치운다.
그리고 거기는 참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저 공사한 거는.

정영학 일단 뭐 그거는 뭐..

유동규 개는,
↳ 김민경.

정영학 상관없습니다.

김만배 그거는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2020-11-27

김만배 응. 니가.. 다 줄 수 있대. 그래서 '야, 니가 어디다 썼어? 한번 얘기해
 봐' 그러니까, '민용이도 100억' '줬어?' 그러니까, 아직 안 줬대.
그러면 안 줬는데..

민용

정민용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팀장]

정영학 예..

김만배 응. 내가 싫은 소리 좀 했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랬더니 나보고 그거 어디야. 구리에 무슨 45층 성준이랑 들이 얘기하더
 라고. 45층. 하나은행하고 저스트알하고 선진이 들어갔는데, 저스트알이..

정영학 형님, 저는 아시다시피,

김만배 아니 아니, 얘기 들어.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고, 형이 영학이 대변인도 아니고'

정영학 그러니까요.

김만배 응. '그거는 영학이 만나서 물어봐. 형은 모르니까'
 선진이 형님께 설계회사 아니네. 그래서, '나는 선진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간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니까, 왜 모르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정영학 일단 그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김만배 이리 와. 이리. 여기가 좋다. 여기가.

정민용
100억
-10차 2쪽
-10차 12쪽
-10차 21쪽
-13차 24쪽
-13차 62쪽

→ 김민경

정영학 지금 하여튼 저는 뭐 전혀.. 예.

유동규 개는 아예 그냥 배제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그렇게 들어왔지만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정영학 아 예. 전혀 연락 없습니다. 연락 안 옵니다.

유동규 종합적인 부분도 그냥 아예 배제시켜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애가 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영학 잘하셨습니다.

유동규 민용이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 정민용 [성남도서관, 권락사업 담당]

정영학 예. 그래서 정변은..

유동규 민용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됐습니다.

↳ 정민용
그거는 육이가 정리하기로 한 거야. → 남용 (120억) / 약용 → 정민용

유동규 예. 육이가 형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 같은데요.

정영학 그게 이제 남변은 부담이 되는 거고.

김만배 그런데 그걸 해야지, 안할 수 있나. 내가 동규 하듯이. 응?

유동규 아니, 저를 하는 건 다르죠. 저를 하는 건.

김만배 그리고 여기 50개 뭉쳐져 있는 선생님 내가 하듯이. 응?

유동규 그걸 하셔야죠. 일단은.

* 3차 26.2억 약속고급 320억 각약약속

* 13차 54.62

김만배 응. 그거 50개 뭉쳐져 있는 거 안하면 사고 터지듯이. 응?

유동규 그거는 반드시 해결해야죠.

김만배 응.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응?

유동규 반드시 해결해야죠. 안하면 문제 되고요.

김만배 응.

유동규 정 회계사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

김만배 가게?

유동규 형님하고 이야기하고 가게요.

정영학 아 예. 말씀 나누십시오.

김만배 미안해. 오라고 그래서. 미안해, 정 회계사.

정영학 아, 아닙니다.

유동규 다음에 한번 뵙시다.

정영학 예. 형님 가겠습니다.

김만배 내가 저기 밀어서 화나가지고 너한테 막 예를 들어서 120개 (...)

정영학 형님 저 (...)

↓
정영학

* 13차 21, 29

* 13차 35, 36, 62, 63

유 동 규 허허. 고생했습니다.

김 만 배 미안해.

정 영 학 아닙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김 만 배 응응, 내지마. 그냥 가.

정 영 학 예. 예. (끝)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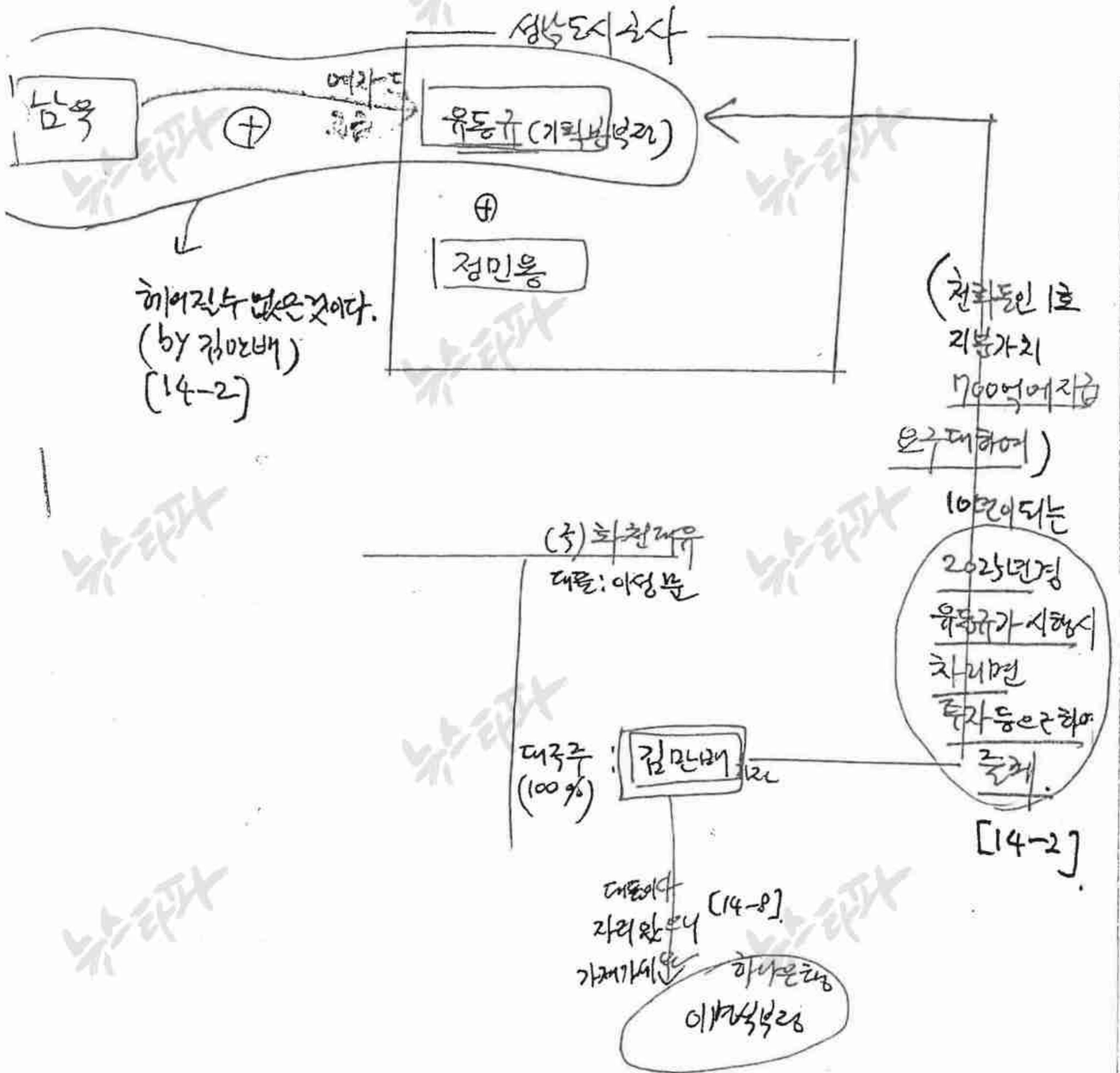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14차(문양) - 수정본

2020. 11. 6



- 녹음일시 : 2020. 11. 6.(금) 10:50 (39분40초)
- 녹음장소 : 태광CC 클럽하우스 식당
- 대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이성문, 이병식

(1:30~15:12)

정 영 학 그때 뭐 잘, 이야기 잘되셨습니까?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그때 이야기는 잘되신 겁니까? 그날.

김 만 배 아이, 그럼~ 욕이가 하도 뭘 해놔서. 초를 쳐놔서.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하나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 영학이 형이 선배당 후정산 구조로 해놔기 때문에.. 응?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그거고. 그래서 책임지고 그걸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알미워서 그랬지만, 사실 지분대로 하면 오히려 돌려줘야 되는거다. 그런데 애가 반 낸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선배당 후 구조로 하면 너희 쪽에 예민한 처리하는 거 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 법원 처리하는 게 나중에 다 공개 해야 될 텐데’ 응? 배당 얘기 하는 거 말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면은 너 자신 있냐. 나는 오히려 처음에 배당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생각해서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개네들도 우리가 어디에다 뭐 하는지 모르고, 개네들도..

정 영 학 빨리 받으면 고마워해야죠.

김 만 배 응,응. 그렇게 했더니, 알았다고.

정 영 학 그날 왔다 간 겁니까? 저녁에?

김 만 배 남욱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안 왔어. 둘이 만났겠지.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셋이서.

정 영 학 네..

→유동규.

김 만 배 내가 그래서 '너는 남욱이랑 헤어질 수 없어. 너 술 좋아하고, 남욱이랑 그렇게 이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넌 나중에 남욱이랑 가. 응?'

'그리고 2025년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니가 달래면 투자형식으로 하든 뭐 형식으로 하든 좋게'

정 영 학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변 때문에 그런가요?

김 만 배 몰라, 이유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 원래 남욱이랑.

정 영 학 그 사이에도?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아! 저기 때문이에요? 정변 때문에?

남옥 + 유동규

김 만 배 아니 아니, 둘이 친해. 남옥이가 여자도 대주고 이러잖아. 응? 술집에.

정 영 학 아.. 그러겠죠.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형님 저랑.. 저는 형님하고..' '그런 소리 하지마. 형은 다 알아. 그냥 편하게. 형은 니가 배당 (..)'

정 영 학 (아 예, 도착해서 2층에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혹시 주문을 해드릴까요? 비슷하게 맞춰놓겠습니다. 혹시 뭐..)

김 만 배 된장찌개도 있고 생선도 있고.

정 영 학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와서 선택하십시오. 예. 네,네. 좀 있다 뵈겠습니다. 네.)

5분이나 10분 정도 후 도착. 이 부장은 한 10분, 15분 있다 온다고 말씀을 드려달라고..

아, 그 사이에도 그러면 만났을까요?

남옥

) 김 만 배 계속 만났대. 아니, 계속 만났다고 나한테 얘기했지, 와서. 술 먹고. 그래서 개가 그랬대. '(너) 왜 천화동인1 꺼를 소송해서 가져간다고 그러냐. 소문에' 그랬더니 '만배형이 혼자 먹을까봐 혼자 먹지 못하게 같이 나눠먹을라고 그랬다' 고. 웃더라고.

정 영 학 예.. 형님, 하여튼 뭐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김 만 배 아이, 그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개 반 60억 안 내면 돈 안 줄 거고, 내 동생으로 하여금 소송할 거라고. 개한테. 소유권. 응? 그러면 10년 걸려' 내가 그랬어. 하하하.

김성배

* 12차 10조
* 13차 58조

정 영 학 하하하. 사실 말로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대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본이 그거인 것 같아요. 일단 감사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김 만 배 없어.

정 영 학 왜냐면 이걸 본인이...

김 만 배 김치 좀 더 주세요.

정 영 학 사실은 저게 원래 없어진 거를 찾아온 건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없어진 걸 찾아온 개념이 맞는데.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그 사이에 운동은 좀 하셨습니까?

김 만 배 나는 안했지. 영학이한테 죽을 각오를 해서..

정 영 학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제가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김 만 배 처음부터 내기를 하자고. 우리랑 (...)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영학이한테 한 50만원 잃을 각오하고 왔어.

정 영 학 아니, 전 전혀..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랑 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가요,

김 만 배 (...) 치잖아. 요새.

정 영 학 아니요. 푸면 그냥 가고, 따면 돌려주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백들이들이.

지난번에 조 편성을 하는데 다들 회장한테 청탁이 들어왔답니다. 야, 영학이랑 치게 좀 해줘라. 그 새끼는 칠 때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정말 못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내기도 심하게 안하고.
그런데 못된 애들은 50만원, 100만원씩 따 가버리니까.

김 만 배 영학이 착하지 뭐. 약자한테. 응?

정 영 학 아니 뭐..

김 만 배 인정 베풀면서.

정 영 학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정변이 나와서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모이기도 편하고, 이야기 전달하
기도 편하고.

김 만 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애.

정 영 학 예.. 설마 거기에 재창이도 갈까요?

김 만 배 아직 몰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재창이는 엠디엠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정 영 학 그건 모릅니다.

) 김 만 배 아니야? 재창이가 그냥 물러날 애가 아닌데.

) 정 영 학 아..

) 김 만 배 유한기는 엠디엠이라는데.
유한기 입장에서는 정재창이가 자기 묶어놓고 개하고 (...)할 거 아냐?

정영학 예.. 이번에 엠디엠 단독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 혹시 주총.

김만배 난 몰라. 개네들은 내가 시켜서 너랑 성문이가 거기를 도와준지 알아.

정영학 하..

김만배 응?

정영학 그런 것 같아요.

김만배 응.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는 거 고마운데..

정영학 한번 물어봤어요, 이 대표한테. ‘한자신에 친한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기는 한데..’

김만배 있대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서..

정영학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음식 먹는 소리)

정영학 거기는 지네가 돈도 있고, 사업 능력도 있고, 금융도 끼고 있고.

김만배 필요가 없어, 외부 도움이.
그리고 나보다 센 놈이 수십 명이나 있는데. 응?

정영학 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 만 배 응. 얼른 옷 갈아입어.

정 영 학 얼른..

이 성 문 아니, 괜찮아요. 밥 먹고 하면 됩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시간이..

이 성 문 아니, 충분합니다. 시간 많죠. 시간 많이 있습니다.

(36:05~39:40)

김 만 배 천천히 드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 병 식 네. 그래서 어쨌든 뭐든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하나은행은 또 딜 할 게 너무 많이 걸려있어 가지고 걱정이예요.
정말 소송에, 연임에 막 다 걸려 있어가지고..

김 만 배 이제 부장님한테 그냥 막 엄청난 민원들이 갈거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 병 식 저한테요?

김 만 배 정권 말이라. 응? 빨리 뭐 해먹고 갈라고.

이 병 식 예. 지금도 뭐 심심찮게 오고 있습니다.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조심하세요. 정권 말에는.

이 병 식 예.

김 만 배 우리 회사 한 회사에, 여러 회사 중에 한 회사에 대표 자리가 비어있는데, 저 뭐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되고. 하하하~

이 병 식 그래도 인제 큰 데 있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이게 대처하는 거는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김 만 배 방어시스템은 좋잖아, 하나은행은. 다른 데 보다.

이 병 식 예. 그게 좀 괜찮은 편이에요.

김 만 배 예. 괜찮죠. 다른 데 보다는.

) 이 병 식 예.

) 김 만 배 우리나라 이런 데 같이 국민.. 하나는 탄탄하니까.

) 이 병 식 요즘에 고민인 게, 감독당국에서 고민인 게, 금융지주가 통제를 못할 정도로 커져있어요.

정 영 학 그렇죠 뭐. 보험 인수하고 뭐.. 예.

이 병 식 너무 커져서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가 돼 버리다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벽차요. 감독기능으로 카바하기에는. 과거 지주회사가 아니었을 때는 말을 안 듣잖아요. 인제는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대등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맞설 수 있는 파워가 생겨버린 거지.

김 만 배 대기업이 된 거야.

이 병 식 거기에 시스템이 갖춰져 버리니까.

왜 그러냐면, 금융지주 회장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책임질만한 법적인 그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김 만 배 인사권으로 쥐락펴락 하는 거니까.

이 병 식 감독원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거죠. 아무리 죽여봐야 안 고쳐지니까.

김 만 배 그냥 있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저는 화장실 갔다가..

정 영 학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서서히.

이 병 식 예.

김 만 배 화장실이 어디 있나..

이 병 식 저희가 48분인가요?

김 만 배 예.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5분 전에만 나오시면 됩니다.

이 병 식 예.

정 영 학 네, 네.

이 병 식 단풍이 아직 안 들었네.

정 영 학 인제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끝)

수정 원본
15. 16

표 지

(휴대폰 통화녹음, 녹취 15차, 16차,)

+

요약도표

◇휴대폰 통화녹음

- 2020.12.28.(월) : 이기성 내용증명 조연 관련하여 이성문에게 책임전가.
- 2020.12.30.(수) : 이성문이 남욱, 이기성 등에 관련하여 사실내용을 전달하는 내용.
- 2021.1.20. : ①법률적으로 최윤길 의장은 공무원 퇴임한지 오래되어 문제 없다(4쪽, 6쪽, 8쪽, 10쪽 - 김만배).
② 유동규는 엄청나게 떼돈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줄라고 (지급하려고) 함(6쪽-김만배)
- 2021.1.26. : 이성문 대표와 통화한 내용.
- 2021.1.28. : 이성문 대표와 통화한 내용.
- 2021.1.29. : 최윤길의장 화천대유 근무사실 공식화-김만배.
- 2021.1.29. : 최윤길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김만배가 책임지고 영입함 (1 내지 3쪽), 근무대가(인센티브 포함)는 총 40억정도 지급약속함(=공원준공시 10억+B1블럭 준공시 30억)
- 2021.2.1. :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천화동인1호 지분상당액의 금전 약속대가를 요구하고, 김만배는 지급방안 ①,②,③,④안을 제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데, 그 ③안 내용을 보면, "남욱이 1호 (허위)소유권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합의를 통해 남욱에게 약속대가를 지급하여 유동규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함(1 내지 3쪽, 8쪽).-유동규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최소 350억은 넘는다.(11쪽)
그리고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2021. 1. 31경 5억원(=현금1억+수표4억)을 전달함.(5쪽)

↓
16차 11, 32쪽
18차 8쪽

-15차: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시행사 이익을 공유하자고 하며, 끝나고 김만배와 만나고 싶다고....(15-26쪽)

- 시행사 이익의 규모가 커서 지역신문, 기자들, 터지면 막을수 없다.
- 대선이라는 큰산이 언덕위에서 그 광풍을 감당할수 없다.

-16차 : 남욱이 김만배에게 1,000억대 (허위)소송을 제기하고, 김만배는 조정합의를 통해 630억 정도를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유동규 등과 모색함.(16차-12,13,14쪽)

천화동인1호 실질주주가 유동규 것이라는 소문이 화천 대유 직원(양완범 등)들이 알고 있음(16차-14쪽),

- 녹음일시 : 2020. 12. 28.(월)
- 녹음장소 : 서판교 사무실
- 대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이성문

김 만 배 우리가 조언하지 않은 것도 조언을 했다고 그래.
아, 이 대표는 내가 항상 얘기해보면 그래.

이 성 문 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 말, 그 의미가 아니고, 표현에 무슨 뭐 이
야기지만,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옛날뿐만이 아니고 봄 그러니까..

김 만 배 내용증명을 우리가 언제 조언을 해줘.
근데 그 세끼는 내용증명을 조언해줬다고..
하여튼간 말을 교묘하게 해. → 이기성

이 성 문 제가 사실은 착각, 착각했습니다.

김 만 배 내용증명은 지가 보냈지.

이 성 문 6월인가 그때.

김 만 배 응.

이 성 문 자기가 스스로 적어서 보낸 거죠.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그걸 남욱이가 항의를..?

김 만 배 남욱이가 항의한 건 아니고, 남욱이가 유동규한테 얘기했대.
그래서 (개)가 그래서 섭섭한 투로 얘기한 거지, (내)한테.

↓
남욱

- 1 -

↓
김만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니가 한 말 다 맞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

정영학 그럴 거 같은데요. 순서가 본인이..

김만배 순서가 바뀌어서.

정영학 급하니까. 십시일반.

김만배 음, 음. 그래서 그렇게 해줄려고 했는데..

정영학 형님도 참 억울하시겠네요. 도와달라서 도와준 건데. 허 참.

김만배 남옥이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거야.
분양을 이기성이 쥐, 말어?

정영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김만배 아니, 분양은 쥐야지 뭐. 주기로 했으니까 쥐야지.

이성문 전 급해서..

정영학 네, 네, 네. (끝)

녹음일시 : 2020년 12월 30일 13:28

통 화 자 : 정영학, 이성문

이 성 문 이성문 사장이 한 게 아니라 뭐 선배님이 다 뒤에서 지켜서 한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고.

정 영 학 아~ 네네네.

이 성 문 그거를 이기성 사장한테 다 지 생각을 이야기 했다 그러더라고. 사실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 영 학 네네네네

이 성 문 뭐 시킨게 뭐 시켰습니까? 정확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야 그거는 남 변호사가 책임져야지, 그건 내한테, 니가 나한테 일거리가 더감한테, 나한테 달라 말라 할 사항이 아니다. 그거는 니가 알아서 받든 말든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

정 영 학 예, 맞습니다.

이 성 문 그게 사실관계거든.

정 영 학 아.

이 성 문 왜냐, 저도 알죠 그게. 나하고 같이 이기성 사장하고 이야기 한적도 있으니까. 그게 사실관계잖아요.

정 영 학 네네네네.

이 성 문 이기성 사장 이야기 한거.

뉴타파

뉴타파

녹취록

그런데 이거를 지 생각, 지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런 부분들인데, 남변호사도 보면, 남 변호사 그 특유의 또 잔대가리는 잘
굴러가잖아요 그 양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제삼자한테 지 생각을 이야기 한 건데, 그게 결국은 지 생각을
섞어서 이야기 한건데, 그게 마치 지는 잘 몰랐는데, 이기성 사장이 제삼
자한테 가서 이야 이거는, 나는 뭐 남변호사한테 청구 안할려고 했는데 그
게 시켜서 했다, 시켜서 한거다 이런 식으로 둔갑된 거죠.
나는 그 사실관계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기성 사장 말이.

정영학 아.. 원래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 그냥

이성문 다시 그것도 이기성 사장이 이 말이 또 맞는거죠.
자기는 남한테 조금이라도 좀 빨리 돈을 또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시켜서 했다 그러면 돈 줘니까? 안주지.

정영학 그렇죠. 예, 예.

이성문 (웃음)

정영학 아 그런데 어제 괜히 그냥 대표, 그 공사한다는데 왜 대표님한테 화살을
돌리실까요.
아유 저도-

이성문 우리 남 이양반이, 내가 이기성 사장 그러잖아요. 남 그 양반은 제삼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도마 위에 올려놓아서 칼질 한다고.
심지어 지 감방 간 것도 이러잖아요. 저한테-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기성사장 그런 이야기가, 남 그 양반이 내 없을 때 나를 얼마나 씹
고 다녔는지 나는 나중에 들었다, 작년 여름에 들었다. 그렇게 하니까, 하
는 말이,

지 감방 간 것도 그거 정영학 회계사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나를 집어넣은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남우

남우

정영학 제가, 제가 왜 집어넣어요?

이성문 아니 그러니까 말이. 남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제삼자한테 그 이야기를 남이 했다는 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그거 참, 왜 그거 그렇게 판단이 안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들리는 말은 항상 가려서 들어야 되거든요.

정영학 그러니까요.

이성문 특히 '남' 이 했다는 말은 그 양반이야 뭐 무슨 팔으로 메주를 쏜다고 주장하는 양반인데, 아유 짜증나요. 아직도, 진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정영학 그 이야기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남 변호사가, '이성문 대표가 그 김만배 회장님 쫓아낼 것이다'

이성문 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영학 그러니까요.

이성문 아니 내가 무슨 뭐 주주도 아닌데, 무슨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쫓아내기는 쫓아내?

정영학 그걸 삼자대질 하자.

이성문 그래, 대질하라고 그래요. 왜 대질 안했어?

정영학 우리가 안하는 걸로. 자기는 하자 계속 하는데.

이성문 나는 남 변호사 얼굴도 못보고, 얼굴 본지도 한- 언제 합니까 연락한 적도 없는데.

정영학 아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같이 모사를 꾸몄다..'

이성문 그런데 이런 것을..

정영학 믿는거가 문제죠 믿는거가. 이런 터무니 없는 거를.

이성문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모든 발단은 원래 이 세상에 간신이라는 건 없는거예요.

정영학 들어주니까 있는거죠.

이성문 그렇죠.

정영학 예. 아이구 이것도 그냥.

이성문 그러니까 사실, 내가 더감을 걱정하는게 뭐냐하면, 이기성 사장을 걱정해서 그렇게 아니라, 아이구 이렇게 되면 우리 그 분양대행에 뭐 일이 되겠어요? 그거

정영학 예~

이성문 아니, 일 아니면 제가 뭐하러 신경쓰니까 이거.

정영학 이기성 사장이 그 얘기를 최근, 지금 합니까? 요즘. 오늘 만나보신 거예요?

이성문 아니, 더감도 지금 모델하우스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되거든요.

정영학 예 예

이성문 왜냐하면 이거 3월달에 미적거리다가 부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정영학 아..

이성문 어차피 1년 계약 아닙니까 보통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미리 확보해 놔놓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더 점검하고 있다 하더라고. 1월달, 1월초에 우선에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정영학 네네네네. 아.

이성문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말이 나온거죠 이제.

정영학 아..

이성문 아이구. 진짜.

정영학 그냥 뭐 너무 속상해 하지마시고.

이성문 아니, 저는 속상한거 이런거 보다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속상한게 뭐 있어요? 내 일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일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더감하고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일이 되겠어요? 그거

정영학 아 예- 아이구 참.

이성문 저는.. 그 이렇잖아요. 남 변호사가 혹시나 그런 난관이 있는걸 아시면, 왜 그 남변호사가 제삼자한테 전달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할까요?

정영학 (웃음)

↑ 남목

이성문 그런 양아치 같은 새끼 말이 어떻게 해서 그것도 사실로 전제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나 진짜 답답해. 진짜 답답해.

정영학 예.

이성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사실 더감이 어떤 분양대행을 안준다면 몰라도, 어차피 준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어야 일도 잘되는거 아닙니까.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그래서 내가 이기성 사장한테 그랬어요.
제발 좀 어디 남 변호사 만나지 마, 이런소리 안들리도록 해라 안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 우리하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도 각별히 더 조심 하겠다' 고 그러더라고.

정영학 예.

이성문 아이구.. 답답합니다 답답해.

정영학 저는 뭐, 진짜 저 때문에 감방을 갔나요? 참 (웃음) 남옥이 씨발놈 새끼.

이성문 아니, 지가 잘못해서 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누구 원망하고 있어?

정영학 그러니까요 예.

이성문 그러면 그거를 계속 선배님이 남 변호사 말을 받아주고 이래 하니까 남 변호사가

정영학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받아주니까 또 그 스트레스이성문

이성문 최소한 간접적으로 받아주잖아 간접적으로. 직접 안만난다 하더라도.

정영학 네네네

이 성 문 예를들면 제삼자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마 잘라버려야 되는거 거든요. 그래야 그 제가 그런 이야기 안하죠.
그거 뭐하러 다 듣고 있습니까? 그게

정 영 학 예.

이 성 문 가끔씩 나도 직원들하고 이야기 해서, 뭐 어떠냐-
야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지마라 .
나도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내가 내에서도 잘라버린렸다고, 그런 이
이야기 하지 마라고.

정 영 학 아 그럼요

이 성 문 그런 것은 내가 우리끼리 논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 안하잖아 나한테.

정 영 학 예. 하~

이 성 문 이런 일로서 보지 않고, 원래 가장 위험한게 업무를 업무관점에서 보지않
고,
업무는 놔두고 사람만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 영 학 네.

이 성 문 하~

정 영 학 최근에 또 그 또, 잊그제도 하시는거 보면 뭔가 좀..

이 성 문 아 참~ 참...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 지속되면 회계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선배님도 스트레스 엄청 받
잖아요.

정영학 네네

이성문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에 그치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이 생깁니
다 이게.

정영학 예~

이성문 누가 돼.. 우리 직원들이 포함해서 전부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정영학 예. 그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이성문 그러니까 제 말씀입니다.

정영학 진짜 어디 성인군자가 아니면, 한번 그렇게 이야기 들어놓으면.. 예.

이성문 나도 그렇잖아요.

정영학 아.

이성문 그런데 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영학 어쨌든 내용증명은 그냥 그-

이성문 내용증명은 이기성 사장이 지가 써 왔잖아요.

그거 그거 우리, 우리가 적으라고 했나요? 지가 보낸다는데.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갖고 왔어요 초안을.

그래서 거기도 보면 남 변호사 이야기가 온갖 다 하는 이야기 많아요.

야 이런 것 빼라 이런 이야기 뭐하러 하느냐 그러면서 뻔거죠, 일부 뻔거
있지.

정영학 네네네 아.

이성문 뻔게 있는거지. 거기서 내가 (...) 해라, 이렇게 없어요.

정영학 네..

이성문 다른 무슨 뭐, 성남시 이야기 이런거 빼라 했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정영학 아..

이성문 (웃음) 아니 우리가 그걸 왜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정영학 네.

이성문 그렇잖아요? 예?

정영학 (웃음)

이성문 그걸 왜 보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지가 써왔는데.

정영학 결국은 둘 사이에 문제잖아요.

이성문 그러니까요

정영학 이기성하고 남욱이 사이에 돈 빌리고 돈 갚고 하는 사이에 이 문제인데, 괜히 우리한테 옆에까지 불똥이 튀어서 그냥.

이성문 아니 그래서 그때 선배님도 항상, 야 그거는 니들끼리 문제고 나한테 이야기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 내가 여러번 들었잖아요 그때.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그런데 나는 이사장님한테, 이사님 그거 남변호사하고 그 두사람 문제지, 우리 회사하고 우리회사 끼워넣지 마라고.
그리고 회사라는 것은 우리 김 선배님 회장님 끼워넣지 마라..
내가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죠. 사실 그게 맞는, 그게 팩트잖아요 그게.

정영학 네네네네. 아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써준걸로 해버리네요?

이성문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가 코치를 다 해준 걸로요.

정영학 아, 화천에서 코치를 해준 걸로?

이성문 예. 화천이 정확하게는 우리 김회장 선배님이 코치해준 걸로 이렇게 됐어요.

정영학 (웃음) 아 예 아니, 사실은 저는 그 내용증명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 한번 형님이 보여는 주셨어요. 보여는 주셨는데, 뭐

이성문 그리고 또 이렇게 있죠. 우리 그당시에 이렇게 되니까 남 변호사가 받는 돈이 얼마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이기성 사장이, 자기도 재무제표를 다 떼봤더라고요.
재무제표 다 떼어봤어요. 다 떼어보고 이게 배당, 기 배당하는 금액중에, SK 특검이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충 추정되는게 있거든. 금액이.

정영학 네네

이성문 그러기 때문에 남 변호사가 그 한 1-2백, 2-3백이 아니고, 한 7-8백은, 천 가까이 받아간다 이런 것이 추측이 통딱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리고도 그 저저, SK특검 그 관련해서 보면, 특검 전체 이 규모가 추산되잖아요.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그거 대충 얘기해도 이게 되는거지 이게.

정영학 예.

이성문 그런데 그거를 남변호사가 지 말, 내가 보니까 지 말을 한 3분의 2이상 다 섞어서 제삼자한테 전달하고, 삼자가 이제 최근이든지 그전에든지 선배님한테 이야기 한거잖아요.

정영학 네네

이성문 그런데 그걸 이제 이기성 사장이 돈 받기 전, 아니면 돈 받고 난후에, 예를들어 돈 받기전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기성 사장 말은 돈 받기전이면, 나는 남 변호사한테 돈 받아야 된다 이걸 김 회장 시켰다 그러면, 돈이 나오냐? 안나오지. 그렇잖아요?

정영학 예, 예

이성문 그게 상식이잖아요

정영학 예

이성문 두번째는 또 돈을 다 받았어요. 받고 난뒤에, 야 이거는 내가 아니고, 김 회장이 우리 예를들어서 시켜서 했다, 그 말도 받고난 뒤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정영학 네네네네.

이성문 이기성 사장한테 그런 말을 해서 득 될게 뭐 있어요? 뭐 있다고 남 변호사한테 하겠어요? 이기성 사장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자기가 돈 달라고 했을때는, 이야 이거 만배형이 시

킨거 아니냐, 뒤에서 다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 자기한테 했다 하더라고. 먼저.

정영학 아.

이성문 사실 시킨게 아니거든요 그게. 처음에 이기성 사장이 발단 된거고. 뭘 시켰습니까? 야 니가 받고, 니가 돈 받을려면 남 변호사한테 해야겠지 나한테는 하지말고, 니가 남 변호사하고 알아서 해라,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였거든요.

정영학 예~ 그냥 뭐 어차피 좀 교정, 그거야 뭐 내용 보여주니까.

이성문 조정이 아니고, 계속 조정이 아니고, 성남시가 이런거 들어갈 때 나도 갔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거 뭘니까. 이게. 남 변호사 돈 받은걸 성남시에다가 이런 얘기 뭐하러 하나? 조정이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마라 이렇게 한거지.

정영학 네.

이성문 그게 팩트예요.

정영학 그러니까요. 그게 팩트인데, 참..

이성문 아이구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이게 대상동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영학 이게요, 이게 정말 잘 마무리 될려면, 일단 B1이 잘돼서 다 정리해야 돼요.

이성문 돈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정영학 이게 형님도 좀 양보하시고, 다 조용히 이렇게 가야지 끝나지. 안그러면,

이성문 그러니까 남 변호사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할 필요도 없고요.

정영학 대표님, 제가 그건 옛날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이성문 돈 받아낼 방법도 없어.

정영학 방법도- 안된다고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형님이 제일 많이 보셨고, 솔직히 형님이 제일 크게 보셨기 때문에, 형님이 제일 양보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성문 아니, 양보를 떠나서, 뭘 내놔라 해서 안주면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정영학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요? 예. 정리할 방법도 없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이성문 아휴- 그래서 회계사님이 이제 어차피 우리 28일날 접수했잖아요.

정영학 예예

이성문 접수하고 그때 김(..) 부장이 하고, 어제 제가 그 주택가 쪽으로 물미텍스 이야기 다른 사람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될거라고.

정영학 네네 아 다행이다.

이성문 분양가도 심의나 이런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될 것 같거든요.

정영학 예, 대표님 많이 이제, 정말 이렇게 잘 받으셔서

이성문 여기서 다 정리하도록

정영학 그냥 여기서 다 정리하고, 오히려 조금 옛날에 빌린거 했던거, 어쨌면 귀찮은걸 떠나서 그걸 조금 쥐버리시는게 훨씬 편해요.

이성문 아유, 이게

정영학 제가 이래야 된다고 여러번 뭐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형님은 뭐 그..

이성문 그런데 그것도 보면, 일단 B1에서 수익을 많이 내놓고 이제 해야죠 1차적으로.

정영학 그러시죠 그러시죠

이성문 수익이 안난 상태에서 이제 뭐 이야기 성립이 안되니까.

정영학 그게 언제정도 분양가 승인이 나올까요? 한-

이성문 한 4월정도, 4월, 4월.

정영학 아 예

이성문 저는 인제 HUG쪽을 먼저받을 생각. 받아놓고 성남시로 갈 생각이거든요.

정영학 HUG쪽을 받는게 한 3월정도 되나요?

이성문 한 3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학 예.

이성문 그리고 이걸 말 나오기전에 빨리 받아버려야 돼.
예를들어 HUG 오늘 받고, 성남시도 밑에서 여러 가지 좀 준비해놨다가

정영학 미리 사전에

이성문 이게 시간 끝나지면, 시의회 알고, 비싸니 싸니 이렇게 또 시비꺼리가 되면 안되니까, 최대한 주택과 움직여서 최대한 빨리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정영학 예.

이성문 그게 질질 끌면 말들이 나와서 안되잖아요 비싸다, 뭐하다

정영학 싸다 비싸다 뭐

이성문 예 뭐 그렇게, 정치.. 나는 불필요한 논란이 있으면 안되니까.

정영학 예.

이성문 그리고 뭐 또, 하여튼 분양승인도 빨리하고, 받고 해야죠 뭐.

정영학 예. 대표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성문 아니, 아니 스트레스 받는게 아니고, 아니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 하나하면,
이 사람, 남 변호사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까, 이기성 사장.
더감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정영학 예.

이성문 일을 하는데, 이렇게 불신이 있으면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특히 선배님하고.

정영학 예

이성문 그게 걱정이라서 그런거죠.

정영학 엇그제 고민하시더라고요. 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했더니, '쥐야지'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성문 그걸 어떻게 또 안주겠어요? 지금까지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그리고 더감이 여기서 뭐 일부라도 이자라도 갚도록 해야 됩니다 100개 대
해서.

정영학 네네네네

이성문 그거면. 그게 뭐 예를들어 몇억이라도.

정영학 그다음에 또 현대건설 어레인지도 잘 했고, 예를들어서.
시공사는 현대건설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이성문 아이구 뭐, 그렇게 해야돼요, 그럼요. 그거 나중에도 해놓고 다 선택하시
라고 해야죠.

정영학 네. 아니 뭐 일단 시공사 그만큼 건설 공사비 그렇게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예, 예.

이성문 생각, 우리 잘 생각했는데.

정영학 대표님, 10억 20억 찾으면 현대건설이 훨씬 낫죠.

이성문 예 그러니까.

정영학 예.

이 성 문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이거 이러다가 조금 이 주위 사람들의 들리는 말에 대해서는 좀 이게 항상 가려서 좀 생각하시고 좀 (...) 같은거.

정 영 학 아이그.

이 성 문 그것도 아유 그거 뭐, 제가 또 뭐 제 영역도 아니니까, 제가 뭐 걱정하고 신경 쓴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 영 학 예.

이 성 문 회계사님, 나중에 되면 B1 수익 많이 내서 그 안에서 좀 내야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아~ 나중에

이 성 문 두분이 종종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거 아니예요?
또 이야기 하다보면 그런 말도 나올거 아니예요?

정 영 학 요즘 또..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성 문 예. 회계사님, 하여튼 저는 내일 제주도 가서 좀 우리 한 3-4일 동안 60키로 정도 좀 걷고.

정 영 학 아유, 여하튼 좀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이 성 문 (하하) 예, 알겠습니다.

정 영 학 아시다시피 남 변호사 문제된 것하고 저하고는 사실 뭐, 제가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이 성 문 아니, 회계사님, 그러니까 이기성 사장 그 말은 뭐냐하면, ^{남을} (예)는 당사자가 없으면 그걸 그 제삼자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칼질하는 놈이다 이야기 하다

가,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웃음)

정영학 아.. (웃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문 하여튼 알겠습니다 회계사님, 하여튼 우리 신년에도 늘 건강하십시오.

정영학 예, 대표님 예 예 예. 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이성문 예, 한라산 가서, 올라가서 (...)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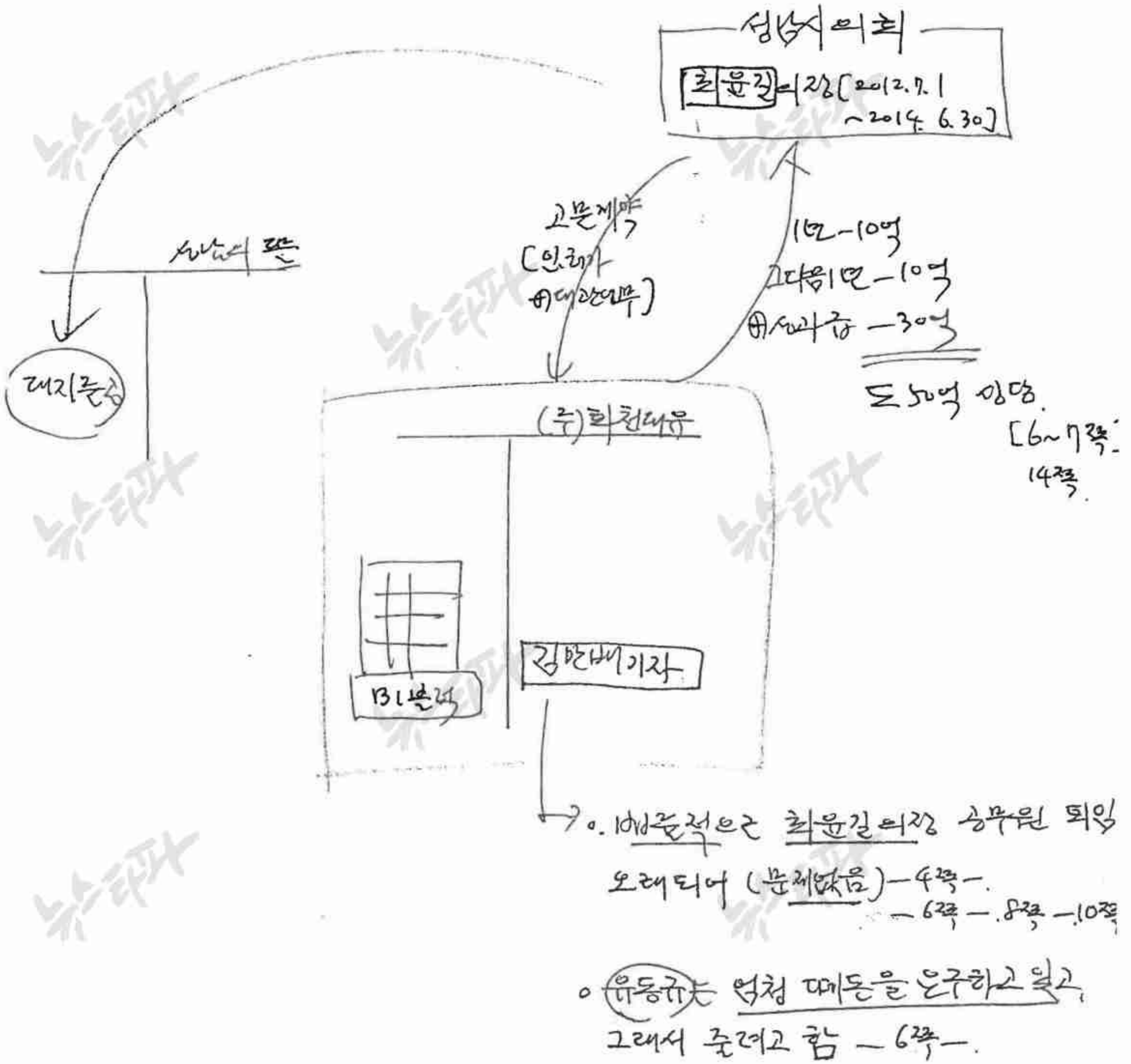
정영학 네 네.

이성문 예, 들어가세요.

정영학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끝)

김민배 통회 녹음
[최윤길 관련]

2024. 1. 20.



- 1 ○ 통화일시 : 2021. 01. 20. 16:51:57 (7분50초)
 ○ 통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정 영 학 아 예, 형님. 네, 네.

김 만 배 어, 정 회계사.

정 영 학 네. 아까 마지막홀이어갔고 제가 정신없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
다.

김 만 배 골프 치는구나. 골프.

정 영 학 아 예예. 오늘 플라자 왔습니다. 플라자.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형님.

김 만 배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고. 형은 이 이제...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최윤길 의장께서는 그 뭐야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만 가능
하다면.

정 영 학 네네, 형님.

김 만 배 하나는 저 이, 우리가 인허가나 이런 대관작업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하
니까, 통상 전직 공무원들이나 의장들, 시의원을 영입해가지고 그 대관작
업 용으로 통상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무슨 사업체나
다.

정 영 학 네네, 형님.

김 만 배 그래서 성남의뜰 이름으로 주든가, 아니면 화천대유 이름으로 주거나, B1의 명목으로 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 영 학 네, 형님. 네,네.

김 만 배 자, 만약에 이제.. 나는 그냥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정 영 학 저야 뭐 형님한테 항시..

김 만 배 그럼. 응.
만약에 이제 성남의뜰 이름으로 주면 남욱이가 나중에 알고 지랄을 할 거 아냐. 그지?

) 정 영 학 아, 최한테요?

) 김 만 배 어, 어.

) 정 영 학 아, 형님이.. 거기서 처리하시면 안 되죠.

) 김 만 배 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거라면 자기랑 나랑만 서로 입만 맞추면 돼. 자기는 이미 지급했고, 내가 추가로 필요해서 성남의뜰에서 대관용으로 이렇게 한거다. 응?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①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저 화천대유가 대관용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정 영 학 네,네,네. ②

김 만 배 고문으로 영입해서. ③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급하더라도 남육이랑 저기랑 얘기할 일이 없으니까,

정영학 아, 최하고요?

→ 최윤길 의장

김만배 응. 자기는 최하고 정리가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아. 네, 네, 네, 네.

김만배 어떻게 생각해?
세무적으로 내가 볼 때는 둘다 다 가능할 수도 있어. 법률적으로,
최가 공무원을 그만둔지 오래됐기 때문에.

→ 최윤길 의장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그러니까 디테일한 걸 물어보는 거야. 자기한테.

정영학 네, 형님. 네, 네.

김만배 그래서 나는 그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라고 그래.
왜냐면 지금 교육청 문제도 교육청 출신한테 하나 현장 감독관을 별도의
성남의뜰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예, 형님. 네, 네.

김만배 그렇게 해도 되고, 화천대유가 계약해도 되고.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돈 차이는 기껏해야 20 몇억 차이야. 그지?

정영학 네, 네.

- 김 만 배 그런데 화천대유가 계약해도 돼.
- 정 영 학 네. 형님.
- 김 만 배 그러니까 한번 세무적으로 자기가.. 화천대유가 일시불 해주는 게 아니라, 1년 2년에 걸쳐서 한 10억, 10억 주고, 성과급으로 30억을 준다. 이렇게 해도 되고.
- 정 영 학 네, 네. 저야 뭐 형님 결정하시는 대로 항시 잘 따르지 않습니까.
- 김 만 배 그래 그래. 그러니까 결정을 할 테니까, 세무적인 거는 자기가 도움을 얘기를 해야지.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 김 만 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애?
- 정 영 학 법률적인 거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형님. 괜찮을까요?
- 김 만 배 아니 뭐 법률적으로 최윤길 의장 공무원 그만둔 지가 얼마인데. 그지? 왜냐면,
- 정 영 학 네, 네, 네. 하여튼 뭐 그거 형님이 고민해보시고. 세금 부분은 한번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 만 배 그래. 왜냐면 지금 인허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통상 뭐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PM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거야. 인허가 PM..
- 정 영 학 그러면 화천에서 하실지 성남의뜰에서 하실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신 거고.

김 만 배 자기하고 상의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세무적으로 가능하고 어느 게 더 명분적으로 합당한가를.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어차피 그리고,

정 영 학 네, 형님.

* 2021-1-29
- 정영학이 비본격적으로
본거로 왔다 (323)

김 만 배 자기랑 나랑은 다른 길을 갈 거고. 몰라. 같지 안 같지. 자기가 안 간다면 뭐...

↓
정영학

정 영 학 아니, 저 형님 따라가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만 배 그래 그래. 그러면은 뭐 그렇게..

정 영 학 저야 뭐, 그냥 뭐 형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만 배 성남의뜰로도 내가 볼 때는 가능할 수도 있고 화천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데, 어디가 더 부드럽고 유연한 건가, 그거를 한번 자기가 한번 살펴봐.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김 만 배 그래서 나는 최윤길 의장한테 그런 방식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해결했다 그래서 자기 생색을 내놓을 거야.

정 영 학 예.. 아니 뭐 저야 뭐 그..

김 만 배 왜냐면 이걸 내가 생색낼 게 아니라, 자기 챙기지.

정 영 학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최한테도

제가 뭐 약속은 드린 적은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잘 해드리겠습니다 정도
만 했습니다. 아니 그.. 요즘 이제 그, 그렇게 해야..

김 만 배 → 최윤길 의장
그런데 최는 이제 공무원을 그만둔지 오래 돼서 문제가 안 되는데,
유동규가 문제야.

정 영 학 아.. 잘 알겠습니다. 형님; 저도 걱정이..

김 만 배 유동규가 문제데, 유동규는 요번에 엄청 떼돈을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줄라고 그러는데.

정 영 학 아이고, 형님 스트레스가..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거는 줘야지. 근데 내가 그랬어. 조건으로.
'너 앞으로 공무원 하지 마라.'

정 영 학 그렇죠, 형님.

김 만 배 '하면은 다 몰살한다.' 왜냐면,

정 영 학 형님 판단하시는 대로..

김 만 배 그래 그래. 그거는 이제.. 왜냐면 몰살하지. 유동규가 몰살하는 거야.

정 영 학 네.. 하여튼 뭐, 그것도 형님, 저야 뭐 형님 항상 판단하시는 대로..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만 배 응, 응, 응. 그래. 그래서 최윤길 의장 부분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두 회사에서 둘 중에 하나 가장 세무적으로 또 이슈가 없고, 또 어떤 법
률적 이슈가 없는 데로 해서, 연봉을 1년에 인허가 조건을 담당을 하는
결로 해서 10억, 10억 하는데, 성과를 어차피 내는 거니까, 응?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보너스로 30억을 준다 이래서, 50억을 채우면 세금 떼고 가져가면 되니까.

정영학 음.. 네,네,네. 아유, 형님이 괜히 스트레스를..

김만배 아니야. 아니야. 뭐, 형이 이런 거 하라고 대장 한 거지 뭐.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형님.

김만배 그래 그래.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

정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김만배 그래 그래.

정영학 하여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야 뭐 형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그래. 그리고,

정영학 예. 오늘 돈 엄청 뿔었습니다. 하하하.

김만배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 때문에.

정영학 아, 그.. 그.. 예. 그때 딱 오비 났습니다.

김만배 그러니까 그 저기, 이 세금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게 적합한가를 한번 생각해봐.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네,네.

김만배 음, 그래.

정영학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김만배 그래~ 수고해~ 음~

정영학 네, 감사합니다.

김만배 상관없지?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영학 아이 뭐 형님, 진짜 형님 편하실 대로. 저야 뭐..

김만배 그래 그래, 오케이.

정영학 예, 형님, 네,네. 감사합니다.

김만배 그래 그래. 음.

정영학 네.

2 ○ 통화일시 : 2021. 01. 20. 20:08:36 (6분31초)
○ 통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정 영 학 아 예, 여보세요?

김 만 배 어~ 정 회계사.

정 영 학 아 예, 형님. 네, 네, 네.

김 만 배 인제 만나고 가는 길이야.

정 영 학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형님이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김 만 배 그래서 이제 가다가..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정 영 학 네, 형님.

김 만 배 우선 최윤길 의장은 너 좋아하고, 욕도 안하고.

정 영 학 아유, 다행입니다.

김 만 배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정 영 학 저 욕 엄청 할 줄 알았습니다.

김 만 배 아이~ 저기를 욕하더라고. 정재창. 남욱이랑.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정 영 학 저는 전화는 잘 받고 그냥 예의 있게 합니다.

김 만 배 수신거부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개네들이.

정 영 학 아..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정 영 학 하여튼 형님이..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김 만 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뭐냐면, '의장님이 옛날에 감사하고 그래서 돈을 뭐 뭉텅이로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정 영 학 네, 네, 네.

김 만 배 '저희가 의장님을 고문이나 뭘로 모셔서. 준공이 필요하니까. 통상 어느 회사나 다 한다, 그렇게. 그런데 세금 처리만 잘 하면 되니까'

정 영 학 알겠습니다, 형님.

김 만 배 '그래서 1년에 10억이든 15억이든 해서 한 2년 정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드리는 방안을 내가 한번 생각해봤다.' 그랬더니, 자기도 알아봐서, 법률적으로 문제없나 알아봐서 연락을 주겠대. 그래서 '세금만 잘 내시면 문제없다' 고. '의장님이 이 사업에 저한테 뭐 부당하게 도움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직을 떠난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정 영 학 아이구,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만 배 아니야. 아니야.

정 영 학 하여튼 뭐.. 그리고 아까 그냥,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쉬고 있구요. 체력 충전하고 있고. 하여튼 뭐 형님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김 만 배 아니야. 이 B1이나 잘해주세요. 그리고,

정 영 학 네, 형님.

김 만 배 그리고 저 뭐냐면, 이렇게 추운 날도 연습하면 나를 지금도 이기면서 어떻게 할라고 그래.

정 영 학 지금 오늘 친구, 횃집 하는 친구놈한테 완전히 코피 나가지고, 지금 그 어딥니까. 연습장.

김 만 배 아까 내가 전화해서 그때 오비난 거 아니야?

정 영 학 그때부터 영.. 그때부터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김 만 배 그러니까 남욱이한테만 비밀로 해줘.

정 영 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김 만 배 그러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기니까.

정 영 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네,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B1 안 받는 것도 너한테는 받았다고 그럴 거야.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네,네.
하여튼 뭐 잘.. B1도, 요즘 판교가 워낙 좋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잘 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 만 배 내가 볼 때는 3,300은 무난히 받을 것 같애.

정영학 아유, 다행입니다, 형님. 그렇게 하시면 형님도 마음 편하시고.
아유, 그냥 뭐 잘 됐습니다. 형님 복입니다.

김만배 아유, 고마워.

정영학 예, 예. 시장도..

김만배 우리 영학아, 힘 합쳐서 뭐 하나를 더 하자고.

정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예, 예.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만배 그래 그래.

정영학 네, 네, 네. 이제 근질근질 합니다.

김만배 하하하하.

정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가끔 김 부장하고 얘기도 하고 있구요.

김만배 김 부장이 푹푹해.

정영학 아 예, 형님. 형님이 사람 잘 보셨습니다. 이번에 정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김만배 그래. 푹푹하고.

정영학 형님이 방향을 잘, 내부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서 다행입니다.

김만배 음. 내가 두 새끼 다 죽여버릴래다가 딱 참았어.

정영학 예.. 하여튼 참으십시오.

김 만 배 열심히 하고 있어, 요새.

정 영 학 잘 하셨습니다. 진짜 잘 하셨습니다.

김 만 배 내가.. 음. 성남시 공무원들이 막 용인시에도 개네들에 대해서 알아봤나 봐. 이제 우리 회사 양완범 뭐 이런 애들. 근데 용인시에서 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로비는, 대관작업은 그 전무가 하고, 실무 공무원들 일을 진양이가 했다. 그리고 부장으로 양완범이가 안에서 서류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범이는 대관에 대해서 빵인 거지.

정 영 학 아..

김 만 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부족분은 내가 밤에 뛰어줘야지 뭐.

정 영 학 네, 네. 진짜 형님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김 만 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정 회계사 없었으면 안 되지.

정 영 학 저는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요 형님이 제일 고생이십니다. 네,네.

김 만 배 그래서 영학이랑 나랑 지금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아깝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뜻 맞으니까 우리 자본 가지고 한번 2차 사업 들이 근사하게 해보자.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예,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만배 그래 그래, 고마워~ 하하하.

정영학 네,네. 하여튼 뭐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김만배 그래 그래. 그래, 수고..

정영학 예 예. 형님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김만배 그래 그래. 음.

정영학 네,네. 형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내가 그래서 그랬어. 최윤길 의장한테도.

'돈 함부로 쥐도 걸립니다. 그거 무슨 수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월급 명목, PM 명목, 인센티브 명목으로 가져가시라.'
그런데 금액은 확정은 안했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편하실 대로. 네,네,네.

김만배 그래.

정영학 네, 형님. 예,예.

김만배 그래~ 수고해~

정영학 조심해 들어가십시오. 예.

김만배 아까 공치는데 이런 전화해서 미안해. 하하하 참.

정영학 하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김 만 배 그래도 말을 하고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정 영 학 아유 아닙니다. 형님 편하실 대로 다..

김 만 배 그래 그래.

정 영 학 예, 예, 예. 네, 형님.

김 만 배 정리를 잘해야지. 응. 그래, 수고~

정 영 학 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김 만 배 그래~ 음~

정 영 학 예, 감사합니다. 네. (끝)

○ 통화일시 : 2021. 01. 26. 15:17:06 (6분)

○ 통 화 자 : 정영학, 이성문

이 성 문 향후에 사실 뭐 물론 나중의 일이지만, 우리 관계만 좋으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하고.

정 영 학 네, 네, 네.

이 성 문 현대에 있는 또 최■■■■ 상무나 이런 사람 다 본부장으로 진급했거든요.

정 영 학 아..

이 성 문 그 사람이 최소한 3년은 있거든요. 향후에. 3,4년 정도는 소위 실세로 있는단 말이죠.

정 영 학 네..

이 성 문 아이~ 그렇게 하면서 너무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정 영 학 아쉽긴 하죠.

이 성 문 아휴~

정 영 학 근데 아까 그냥 아예 거기로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성 문 1차적으로 효성을 내가, 내일 김■■■■ 부장 시에 들어가는데, 효성 저걸 불러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인 조건, 저 저 다시 정확하게 물어봐라. 몇 가지 더 저걸 받아야죠.

정 영 학 네..

이 성 문 다짐을 좀 더 받고 해야죠.
그리고 시공비 나눠먹는 거 없다. 그것도 이야기하고.
나중에 시공비 올리지 마라, 이렇게.

정 영 학 네, 네, 네.

이 성 문 물론 합리적인 부분은 올려야 되지만.

정 영 학 그렇죠 뭐. 설계변경이나 뭐 물가변동은 있겠죠, 조금은.

이 성 문 담당차장이 왔더라고 보니까.
지금이야 안한다고 그러지, 나중에 뭐 어떻게 그걸 담보합니까.

정 영 학 계약서 잘 써야죠.

이 성 문 아니 아니, 계약서 잘 쓰는 게 아니고,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이야기할라
고 하는데.

정 영 학 그렇죠. 그런데 거기 효성은 어디 통해서 실무자를 알아보신 건가요 그럼?

이 성 문 아닙니다. 제가 그 저 그쪽에 제가 아는 저 저 사람, 이쪽 저기 아니면 내
아는 저 저 사람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 영 학 아, 형님 통해서 가신 건 아니구요?

이 성 문 예, 예, 아닙니다.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하다가 중간에 뭐라 뭐 이렇게, 우리 쪽에서
틀면 또 뭐라 하시지 않을까요?

이 성 문 아니 지금은 효성하고 하고. 만약에 조건이 변동이 있으면 해서 하고,
지금은 정상대로 해야죠.

정영학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성문 회사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 물론 분양가를 받을 만큼 받아야 되지만, 지금 대장지구 엘포레가 이기성 사장도 이쪽 사정을 알잖아요.

정영학 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성문 아니, 대장지구 엘포레가 현재 굉장히 고급 이미지가 있거든. 대형 평수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평당 입주 때 4천 가잖아요. 대형평수가.

정영학 그렇죠. 지금 뭐 대형평수 5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성문 그러면 평당 4천만원 이상 가는데.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물론 허그 보증을 잘 받아야 돼요. 3,300이라고 그러면 엄청 싸잖아요.

정영학 네, 네, 네.

이성문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정영학 아니 뭐..

이성문 물론 분양가를 잘 받아야 되지만.

정영학 분양가 잘 받는다고 확신만 있으면 밀어붙여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분위기상..

이성문 저는 이렇습니다. 분양가를 가서 잘 못 받는다 하더라도 (..) 마진인 척 하는 효성하고 이기성이 합하면 보니까 한 70억 정도 차이 날 것 같더라고요. 70억. 순수익 기준으로.

정영학 음.. 네,네.

이성문 가서 뭐 예를 들면 170억, 예를 들면 분양가 못 받아도 170억 벌 것 100억 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안정적으로 분양 끝나고 좋지. 메이저 브랜드하고.

) 정영학 네..

) 이성문 그러니까 이기성 사장 말이 맞죠. 이게 그 빅브랜드 빅5의, 빅5가 시공을 안한다고 하니까 다들 (...)다니까.

정영학 그렇죠. 그다음에 그 원래는 계속 사업을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좀 싸게 하고 다음번에 많이 줄게, 이렇게 한다든지.

계속 사업을 가정하고 시공사를 선정을 하면 당연히 현대일 것 같아요. 공모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머지 사업을 생각을 안하시니까, 한번에 끝낼 거니까 싸게 데로 가자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냥..

이성문 아니, 싸게 한다고 사업이 잘 되나요.

정영학 대표님, 저도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성문 아이, 답답해.

그리고 아유, 우리 회계사님, 이걸 별 그것도 아니고 내 책임이지만, 아유 우리 직원들, 김■■ 부장도 생각하는 거 보면 아유 속이 터져. 속이 터져. 아유 답답해. 답답해.

정영학 뭐라고..

이성문 아니 뭐 시키는 일이나 잘하지, 시공사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걸 잘 못해.

이야기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건설사한테 떠맡겨 놓으면 안 되거든.
우리만큼 절실하게 하나요. 안하지.

) 정영학 여기 마케팅은 크게 걱정 안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직원들도.

) 이성문 저도 걱정한다기보다,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 정영학 그럼요. 그럼요.

이성문 (..)

정영학 예..

이성문 아유 뭐 효성하고 해서 그냥 몇 가지 조건들 다 내가 몇 가지 조건 주고 오다 주고 난 뒤에 '야, 나눠먹는 거 없고 1,400억 PF하고 다 수용해라' 그런 이야기 한번 던져놓고 이렇게 할라고.

정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문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동성 것 계약 이번주나 다음주에 할라고 합니다.

)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 이성문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정영학 네, 대표님. 네네.

이성문 네, 들어가세요.

정영학 네, 감사합니다. 네.

○ 통화일시 : 2021. 01. 27. 15:49:38 (50초)

○ 통 화 자 : 정영학, 이성문

) 정 영 학 언제부터 그럼 그..

) 이 성 문 2월달부터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2월. 2월.

정 영 학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뭐 세무상 문제가 있느냐만 물어보셔갖고..

이 성 문 (...) 나중에..

) 정 영 학 네, 네, 네.

) 이 성 문 휴~~

) 정 영 학 알겠습니다.

) 이 성 문 아니 뭐 (...) 하신 거니까, 어떻게 됐든 도시개발사업하고 (...)하고 잘,
계속 잘 하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성 문 예. 내일.. 아니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다음주 초에 한번 또
다시 뵙도록..

정 영 학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성 문 예, 예. 또 연락드릴게요.

정 영 학 네, 네, 감사합니다. (끝)

0 녹음일시 : 2021. 1. 28. 18:55 (7:28)

0 통화자 : 정영학, 이성문

정영학 예, 아 예. 여보세요?

이성문 식사중이죠?

정영학 아 예. 대표님, 예 예. 아 인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성문 아 그러면, 나중에 통화 한번 할까요?

정영학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특별히 뭐. 예

이성문 내일 우리 최 그, 최회장 만나기로 했거든요 11시에.

정영학 아 예예 네네.
↳ 최윤길의각

이성문 정 회계사님, 제 기억- 나는 뭐 그분을 본적 없으니까.
내 기억으로는 그사람 이제, 정재창 사장하고도 잘 알죠?

정영학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문 그런데 이사람이 스타일이 보면, 내가 직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스타일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난뒤 좀 생색을 많이 내는 스타일이죠.

정영학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성문 그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이 직책은 부회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명함 들고 성남 시에서 자기가 온갖 자기 다 설치버리면 일이 안되거든요.

정영학 그 이야기를 해야죠.

이성문 그래서 저는 제가 내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가 저희들 최대한 예우를 해서 모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만 우리 최 회장님이 우리 일 도와주는 부분을 그냥 순수하게 이제, 순수하게 도와주는 걸로 해야지. 그 무슨 성과급을 받고, 이런 부분들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무슨 로비한다, 이런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안된다.

정영학 네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님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 협의하셨는지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문 그러니까 아까 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전번에 공원에 그, 공원에 방음벽 방음지붕 두껍 그걸 아까 내가 균형발전과 가서 양전무도 그저께 만나고, 오늘은 비공식적으로 가서 이제 그거를 위에 비서실 쪽에 이야기 해서 좀 해결해달라고 그랬거든.

정영학 네. 저도 이분, 솔직히 이분 스타일을 잘-

이성문 이번에 회계사무실이잖아요. 선배님이 그러잖아요.
아까 내가 그, 내가 그걸 업무보고 들어가니까, 야 그런거 하지말고, (..) 저 저, 그 양반이 해결할건데, 뭐 그렇게 하냐?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사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정영학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이성문 아니, 스타일이..

정영학 아니 솔직히 여태까지 뭐 그냥 저야 옆에서만 구경을 했고, 주로 아마

이성문 회계사님.

정영학 예.

이성문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성남시나 의회 분위기 종합하면, 우리 일은 이제 그 (..) 성남시에서 등치가 크잖아요.

정영학 그렇죠 예

이성문 등치가 크고, 또 민원도 많고, 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영학

네네네네

이성문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일 처리할 때 조용히 해야지, 떠들고 다니면

정영학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이성문

안그러면 역효과 난다는 얘기죠.

정영학

네네네네 업무를 한번 저도 형님하고, 최 회장님하고 어떻게 업무를 협의를 했고, 뭘 하실지에 대해서 사실 뭐 저한테 물어보신 적도 없고,

이성문

예, 그거는

정영학

세금처리는 가능하겠냐 그래서, 세금이야 월급이면 되니까요. 그 정도만 이야기를 드렸고. 그 대관업무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성문

지금 이분이 제가 거기 계속 그러고 가면, 자기 생색내기 좋아하고, 뭐 여차여차 하면, 야 내가 뭐 관련이 있다, 뭐 한다, 온갖 이야기.. 이 사람도 나이가 59년생이고

정영학

네네

이성문

현재 이제 얘기를 하면, 과장들인데. 이사람이 또 친한 사람도 있지만, 이사람이 7년전에 의장인 거고, 이사람이 뭐 나 솔직히..

정영학

저도 뭐 전면에 나서기, 나서서 하기가 좀 그러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성문

이사람이 예를들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예를들면 도로과다 그러면, 이사람을 도로과에 찾아가서 도로과장을 만나야 돼요.

정영학

아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성문

자기 도로과장 모르면, 다른 의원들 부탁하면 되는데, 의원들이 사실 제가 보니까, 의원들이 힘이 있는게 아니고, 의원들도 여기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게 있는거죠.

정영학 그렇죠 그렇죠 예.

이성문 그리고 그 의원들, 공무원들도 의원도 우습게 압니다. 아마 앞에서는 안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 회계사, 이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이 양반이 떠돌고 다니면 안된다는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정영학 그건, 대표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성문 내가 내일가면 최 회장님한테, 그걸로 최 회장님한테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정영학 그럼요 그럼요 예.

이성문 그걸 최 회장한테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보고 우리가 성과를 그거하게 되면, 무슨 로비하고 다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안된다.

정영학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성문 사실, 최대한 소리 소문없이 우리 회사하고 관계를 이야기 하지말고.

정영학 저도 그게 맞아 보입니다.

이성문 조용히 좀, 조용히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에서 뭐 부회장이자, 월급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안그러면 이런거 할 것 같거든요.

그걸 하지마시라 보다도, 그걸 물어봐야 되겠거든.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모든걸 오픈하고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조용히 움직이든지, 어떻게 어느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요렇게 물어봐야 되죠.

정영학 그렇죠. 그렇죠. 저도 대표님, 그냥 형님하고 두분이 만나셔서 그냥 결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원 일을 하시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성문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걸 다 하실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영학

형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그 대관업무가 다 가능하다?

이성문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거는 불가능한거죠. 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정영학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사람들이야 많이 아시겠지만, 그 대놓고 하기가 좀 그러지 않을까요?

이성문

저도 여기서 이제 회계사님,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 판교에서 있는지가 오래됐잖아요. 매일 출근해서 여기만 살잖아요.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워 인허가..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정영학

작년이면 지났고, 그렇죠?

이성문

초기에는 인허가 부분을 별로 안했지만, 특히 2018년, 특히 2019년부터 풀로 만 1년 넘게 직접적으로 목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일은 절대로 소문이 나면 안됩니다 움직이는 것도.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조용히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이성문

그리고 우리 예를들면, 주택 그 다락방 그 문 트지 못하게 했잖아요.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그것도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정영학

아.. 다행입니다 다행

이성문

예를들면 그런 것도 떠들썩하게 해서 풀리겠습니까? 절대로 안풀리지.

정영학

맞습니다. 예 예. 진짜 맞습니다.

이 성 문 나는 솔직히 이양반도, 그 최 회장 그 양반이 분명히 자기가 품 잡고 다닐 것 같
거든요.

정 영 학 아니, 대표님, 저도 스타일은 그냥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 이 성 문 제 우려가 그럴.. 그냥

) 정 영 학 그거를 대표님, 염려되는 사항을 이야기 하시죠. 요런 사항이 이렇다. 그다음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 성 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노티스를 안해주면, 이 양반이 맨
날지 스타일, 자기 스타일로 할 것 같죠?

) 정 영 학 저도 대표님, 한 4년 전에, 3년 전에, 결혼식.. 아니 뭐..

0 녹음일시 : 2021. 1. 28. 19:03 (4:21)

0 통 화 자 : 정영학, 이성문

정 영 학 아 예, 전화 끊었습니다.

이 성 문 예, 예. 예.

정 영 학 그 이후로는 특별히 뭐, 제대로 뭐 말씀드려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떠실지, 이 업무를 진짜 맡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두분 상의 하신 게 있지 않을까요? 형님하고

이 성 문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있기는 있겠죠.

정 영 학 네네네. 저도 아이구, 설치고 다니면 안된다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예,예

이 성 문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사님,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하고 관계되는 것이 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지면, 우리 박보건이나 이런 사람들 질투합니다.

↳ 박보건

정 영 학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성 문 야 그러면, 너는 뭐 무슨 뭐 보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거 아닙니까.

정 영 학 예예.

이 성 문 그러면 그거 이 양반도 능구렁이라서 그거 가지고 역이용 하거나 우리한테 쓸데 없는 공직에서 자기 이권을 따낼려고 합니다.

딱 이 양반이 스타일이 이중플레이 잘 하는 스타일입니다.

정 영 학 아..

이 성 문 다양하게 또 (..)가 되는데,

제가 내일 최 회장 이야기를 해보고, 공식적으로 다 그렇게 오픈할거나-

정영학 한번 그걸 여쭙보시고.

이성문 그래, 그걸 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요.

정영학 여쭙보시고.

이성문 예.

정영학 그런데 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성문 아니야. 이게 인재 이사람이 자기 좀 이렇게 휘저으면서 잘 다닐수가 있어서요 그게 훨씬 그래요.

정영학 그럴수도 있는건가.

이성문 대외적으로는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안하고, 조용히 움직이는게, 물밑에서 움직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영학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이성문 아니면,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는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영학 그걸 한번 물어보시고.

이성문 그러면 그걸 제가 방향을..

그러면 그거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일반사업자에서 뭐 전직 의장 이래가지고 로비를 한다 이런 쓸데없는 구설수가 그 시의원들이 괜히 또 따지 걸고, 괜히 질투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나-

정영학 그럼요 그것도 이야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 예

이성문 저는 박 그 양반이, 박(..) 그 양반이 100%. 100%

정영학 아.

이 성 문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 하고는 나름대로 관계는 괜찮게 지금 유지하는데. 그거 뭐, 그걸 알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개런티를 받은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또 이렇게 됩니다.

정 영 학 아. 대표님 말씀이..

이 성 문 제가 판단해 볼게요. 제가 판단해 볼게요.

정 영 학 네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 성 문 저도 계속 여기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내무기준은, 특히 그 공무원들의 대장동에 대한 업무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정 영 학 아.

이 성 문 왜 그러냐 하면, 주목 첫째 크죠. 주목할게 많죠.

정 영 학 네네

이 성 문 인원도 많이 발생하죠.

정 영 학 네네네

이 성 문 심지어 뭐 시의회에서는 김문기는 성남에 둘러붙어서 한목 받았네, 이런 소문까지 나 있어요.

정 영 학 아이구..

이 성 문 아니 말도 안되는데. 그런 헛소문들이 났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문제되는 사업장이다, 이런 또 시각이 있어요.

정 영 학 아.. 헛소문이죠.

이 성 문 저는 직접 들은 이야기잖아요 제가

- 정영학 네네네
- 이성문 그렇게 많이, 경계를 많이 한다고요.
- 정영학 하여튼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성문 예, 진짜 그래야 우리 일이 잘 풀리지.
- 정영학 네네
- 이성문 그거는 제 생각을 한번 더, 내일 어떻게 이야기할까도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회계사님한테 조언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 정영학 저도 대표님 생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좀, 우리 이상하게 이번에 된걸로.
- 이성문 그러니까 그냥 하더라도, 조용히 움직여주는 그게 최고죠.
- 정영학 네.
- 이성문 그래서 다음주에 차 한잔 하러 갈게요.
- 정영학 예, 대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문 모든 일, 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 정영학 아이구, 예 예 예. 고생하십시오.
- 이성문 예, 통화 드리겠습니다.
- 정영학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녹음일시 : 2021. 1. 29. 18:19 (1:50)

0 통화자 : 정영학, 이성문

정영학 예, 예. 대표님.

이성문 회의중 아니신가요?

정영학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 최윤실 약장.

↳ 김만배.

이성문 하나 또 변동사항이 있는데, 우리 최 그분은 아까 선배님 오셔서 그걸 그렇게 공식화 시켜라, 그래서 전 직원들 있는데서 명함주고 하셨어요. 공식화 시켜가지고 하여튼 저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다 결정이 났습니다.

정영학 네네네 뭐, 형님이 결정하신 거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대표님, 다음주 화요일날

이성문 예.

정영학 제가 10시반에 다른 미팅이 하나 있습니다, 2시-

이성문 아, 오후에 할까요?

정영학 네네네네

이성문 아니면, 좀 빨리 나오시면. 9시 한- 회계사님은 몇 시까지 보통 나오십니까?

정영학 10시반에 미팅이라서요, 제가 보통 9시 한 10분 정도에 도착합니다.

이성문 아 그러면, 그때 미팅하고 내려가는게 좋습니다. 9시 10분정도 하시죠 뭐.

정영학 아, 잘 알겠습니다.

이성문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영학 아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10시반에 하나 있어가지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문 예, 그럼, 9시 10분까지 갈게요.

정영학 아 예에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성문 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정영학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문 이제는 뭐, 이제는 그렇게 배출하니까 뭐 이제 뭐 그분이 잘 하시길 기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정영학 아..

) 이성문 아니 뭐저..

) 정영학 형님이 결정하신거라.. 저야 뭐 잘- 예 예

) 이성문 예,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 정영학 네네네

) 이성문 예.

) 정영학 네 감사합니다.

) 이성문 예

) 정영학 네. (끝)

29
○ 통화일시 : 2021. 01. 19. 18:46:19 (14분49초)

○ 통화자 : 정영학, 김만배

정영학 아, 여보세요?

김만배 응, 정 회계사.

정영학 아 예, 형님, 네네네네.

김만배 그래, 그래

정영학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김만배 아, 잘 있어.

정영학 네네.

김만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최 회장 건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

정영학 네, 형님 네네.

김만배 이제 우리 회사에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을 명분으로 부회장으로 영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명함도 주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 일을 해결하면 공원을 준공하면 10억, B1 나중에 준공 끝나면 30억 하고, 그리고 매달 (...) 하고 카드하면 한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고.

정영학 네, 형님. 네네네.

김만배 비공식으로 또 한다고 이 대표가 그래서 이 대표 나한테 혼났고. 왜냐면, 공식화 해라. 그래야지 이게 깨끗한 거니까.

정영학 아, 네네.

→ 수영학

김만배 그런데 절대 자기에 대한 해는 전혀 없을거야.
내가 그거는 다 알아서 컨트롤을 해놓을테니까. 응?

정영학 네, 네.

김만배 무슨 말이지 알지?

정영학 아 예, 형님. 뭐 뭐..

김만배 그래. 명분은 준공 이게 현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응?
나중에 자기가 들어서 알겠지만, 재네들 능력으로 될 일들이 아니야.
왜냐면, 너무 많은 밀려있고, 응? → 이성능 양원철

정영학 네..

양원철

김만배 응, 응. 양 전무나 진양의 상무가 지들 상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야.
그리고 모르는데 뭘.
그러니까 그 저 뭐야, 이 시의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상대
로 하는 합법적인 가서 애기를 최윤길 의장 통해서 협조를 좀 얻으려고 하
니까, 그런 명분으로 한 거니까. 응?

정영학 네, 네. 뭐 법률적인거야 뭐 형님 잘 판단하신 걸로..

김만배 그럼! 아유, 내가 다 검토를 했지.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래. 그래야지 많이 깔끔하고,

늦라파 (후미론)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다음에 나는 인제 나중에 남욱이가 알거나 뭐 하면, '내가 했다' 이럴 거야. 그리고 그.. '너는 했다' 나는 이렇게 할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 이 그 뭐, 너랑 나랑 입 잘 맞추면 이슈는 없을 거니까.

정영학 네. 형님. 저야 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래. 응

정영학 법률적인 건 형님이 판단하시고, 저야 뭐 세금문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만배 그럼. 오케이 그럼. 그러면 되는거지 뭐.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아무 문제 없는거지 뭐. 무슨 뭐 다른 직원들도 인센티브 가져가는데, 그리고,

정영학 네, 형님.

✓ 김만배 B1에 대해서 와서 너는 일하고 있잖아. 수익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되는거지 뭐.

→ 정영학

* 2021-1-20 [5쪽]

B1분리 참여로건

정영학 네.. 에. 하여튼 뭐..

김만배 그래서 얘기를 혹시 뭐 알고 있을지 모르지 모르겠지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얘기해준 거야. 알았지?

정영학 네..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네, 형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만 배 그래. 그리고 형을 전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응?

) 정 영 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만 배 아니 진짜로, 영학아. 알았지?

) 정 영 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만 배 그래. 왜냐면, 이 준공이 골치가 아퍼.
애들은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새끼들 부분준공이라는 걸로 편법
으로, 입주 먼저 시켜놓고 할려고 그러는데. 그건 최악이 되더라도. 응?

정 영 학 네네. 뭐, 부분준공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까?

김 만 배 아니 인제, 스리슬쩍 해서 그렇게 갈려고 나한테 하길래 내가, 무슨 개소
리야? 응? 지가 오케이 할 것 같애? 그게? 응? 그랬더니 아 뭐 또, 말을
또 현란하게 돌리는데,
내가 그래서 먼저 그랬어. '마꼭 같은 부분준공은 안돼' 응?
그러면서 몇 가지 짚었지.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무슨, 마꼭 얘기도 하기도 전에 내가 그랬어.
'그런 사례는 안간다. 여기는. 공무원들이 오케이 할리도 없고. 시가'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우선은 그렇게 해놔야지 죽도록 하지.

정 영 학 네, 정석적으로 가야죠. 형님.

김 만 배 그럼. 무슨 부분준공이라는 헛소리를 끌고 나와? 응? 말도 안- 지금에서. 응?

정 영 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응. 그래서 나중에 2월달에 이제 이 도시계획 전반 이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대. 그러니까 설명을 같이 듣고 그런 다음에 문제 제기할 건 하자고.

정 영 학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내가 그랬어. 경고했어. 니네 이거 준공 못하면 니네 각오해 그랬어. 응?

정 영 학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 이상문 양상범
이 새끼들

김 만 배 아니, 1년을 허비해놓고 이 새끼들. 응? 1년을 평평. 응?

정 영 학 네네네. 아, 준공 쪽이 좀 문제가 되나 봅니다.

김 만 배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포스코하고 현대건설 애들은 우리 실력으로 준공 못한다고. 응? 얘기하더라고.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죽도록 매달려야 되는데 맨날 놀러나 다니고. 응?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직원 데리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이제 매달리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이 새끼들. 응?

) 정영학 예, .. 아니 그래도 형님이 잘 시키시니까. 방향 잘 잡으시고.

) 김만배 저거 준공 못하면 큰일나는 거야, 영학아.

) 정영학 예, 맞습니다. 예.

) 김만배 저거, 어떤 명분으로도, 이 핑계로도 그거는 안되는 거야. 재네들. 응?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그런 거 못할 바에야 왜 고액 연봉을 받고 들어와서 일을 해? 누가.

정영학 예, 예. 그거 잘 깔끔하게 마무리 하라고 많이 준겁니다. 다들.

김만배 아이, 그럼! 응.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건 일은 해야죠. 예.

김만배 응. 부분준공 웃기는 소리하고 있어. 무슨..

아주 스리슬쩍 넘어갈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기억도 안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럴려고. 응? 그래서 내가, 딱 그러길래, 내가 안된다고 그랬어. 뭘 말 같은 소리를 해? 응?

부분준공은 새끼야, 두밀사거리하고 공원만 부분준공이지, 왜 본 단지 저기를 해? 내가 그랬어.

정영학 예.. 하여튼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만배 아니야. 이 뭐냐면, 난.. 아유 그냥, 내 쓸대기들 욕해서 뭐하니, 그냥

관들란다.

정영학 예.. 그리고 뭐 방향 잡고 빨리 끝내라고 계속 뭐 이렇게 관리하시면 빨리 할겁니다.

김만배 아니 그리고 인제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안되는 부분도 있어. 응?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서 이제 시의원 로비가 아니라 시청직원들 협조하고 그런 게 돌아가야 되니까. 응?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니까 좋은 핑계도 되고. 최윤길 의장.

정영학 네..

김만배 응. 그리고 합법적으로 뭐 다 법률적 검토를 한 거니까.

정영학 네네네.

2021-1-20 (3주)

비밀정도 완료.

김만배 세금만 뭐 떼면 되는 거니까.

정영학 네..

김만배 그려.

정영학 아이구, 스트레스..

김만배 하여튼간 나중에 준공 얘기는 이 대표한테 들어봐.

정영학 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준공 안된다는 입장이지요?

김만배 아이 그럼. 저거 시가 오케이를 하겠냐고?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저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볼 때, 저 이제 이 지중화하고 또 진입로 문제가 겹쳐서 그런 얘기를
나온 것 같은데, 도로 이런 게.
아니 무슨 입주하고 나서 포크레인 다닐거여? 이 새끼들 미친소리 하고 앉
아있어.

정영학 예..

김만배 하여튼간,

정영학 네, 형님.

김만배 그래, 그렇게 알고 있어.

정영학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아이구, 내 요새 혈압 오른다.

정영학 예.. 하여튼 부분준공은 안하는 걸로 저도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래. 부분준공을 목표로 삼고 가면 큰일나는 거야, 영학아 저거.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만배 너 나중에 저 민원을 무슨 수로 감당할래?

정영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배 안됐을 때 부분준공으로 가는 거지, 지금부터 무슨- 응?

정영학 예 예.

김만배 부분준공, 말같은 소리를 해. 시에서 오케이를 할 것 같애? 저거.

정영학 되게 큰 단지들은 부분준공을 하는 건데, 그건 그 구역별이기 때문이에요 아
마 좀, 고민..

김만배 그럼.

정영학 예.

김만배 아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준공이 없는거야.

정영학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만배 응. 아니 그런데 안되면 나중에 부분준공이라도 가야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 가지면 또 늘어져. 응?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부분준공 한다고 저도 생각을 들긴 했었는데요. 예. 안하
는 걸로.

김만배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 양전무한테. 그래서 내가 안된다.
야 무슨 이제 와서 부분준공이야? 이 자식아?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너 현대건설하고 포스코 애들이 니네들 실력으로 준공 못한다고
그러는 거지. 응? 개네들이 볼 때. 응? 같은 건설쟁이니까 현엔 실력이
없다는 얘기는 안하고 우리 없다고 그런거지. 응?
개네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 개네들이 술하게 이런 걸 많이 해봤으니
까. 진도 뽑는거나 뭐가. 물리적으로.

절대적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건데, 니네들 신경을 안쓰고 있으니까. 일을 모르니까 듣보잡 소리도 나온거야, 내가 그랬어.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얼치기 설치기라고.. 개네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겠냐? 응?

정영학 예. 하여튼 부분준공은 저도 뭐..

김만배 최악에는 안되면 그렇게 해야지.

정영학 최악의 경우는 하셔야죠. 예.

김만배 해야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분준공이라고 그러면서 가면은.. 응?

정영학 처음부터 부분준공이라 하면 이거 늦어지는 거고요.

김만배 아니 그런 얘기를 왜 꺼내? 나한테 이제 와서. 응? 안되는 거지. 응?

정영학 네..

김만배 내가 가만 안둘거야. 한 새끼는 씨팔 좇나게 다른 일하고, 한 놈은 기집질이나 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와서.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아니 준공이 목표인거지. 준공을 못하는데, 무슨 사업의 완결성이 어디있냐? 응?

정영학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준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조용히 잘 빨리.

김만배 그래. 마곡지구 사례로 뭘 할려고 하는 것 같애. 내가 딱 들어보니까. 나도 마곡지구에 대해서 아는데. 그런데 그거 했다가는 큰일나는 거야. 무슨 개같은 소리를 해. 응?

정영학 네네네. 아니, 그냥 본 준공 끝내야죠. 바로.

김만배 그럼.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 응?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잡소리도 없고.

정영학 맞습니다.

김만배 개네들은 부담이 없는데,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정영학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만배 응,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응?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응,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알았어. 미안해. 자꾸 이런 얘기. 좋은 시각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정영학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하여튼 뭐, 형님 고생하셨습

니다.

네. 하여튼 뭐, 부분준공 아닌 게 맞는 거 같고요.

김 만 배 그런 걸 지금 얘기하면 안돼. 응?

정 영 학 예, 그..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 했어야죠.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시간도 충분했었는데. 저희가 또 일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김 만 배 그럼. 응.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화천대유가 가장 문제라고. 재네들 준공 못할거다. 응?

작년 가을서부터 여름, 늦여름서부터 얘기가 나온거야.

맨날 여직원 데리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응?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나온거지. 이 새끼. 응?

정 영 학 예.. 네, 하여튼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하여튼간 내 취지는 그거야.

정 영 학 네, 형님. 네네.

김 만 배 그러니까 스탠스를 애들이 물어보면 그래. 무슨 부분준공..

정 영 학 부분준공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명확히.

김 만 배 그래. 무슨..

정 영 학 부분준공 할거면 그냥 질질 끌지, 뭐할라고 비싼 월급주고 하나? 아무나 시키지. 요렇게 해야죠.

김 만 배 그럼. 아무나 시키는거지. 응? 내가 하지, 차라리.

정 영 학 초보자들이 하는 거죠.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응, 그래 그래.

정 영 학 네 형님, 하여튼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김 만 배 나 지금 서울 6시반에 김수남 총장 저녁 약속 있어서 가는데, 회사에서 6시 15분에 출발했어. 열 받아서 그런 얘기 하느라고. 아이 새끼~

정 영 학 아, 늦으시겠습니다 예.

김 만 배 목 쉬었어. 이 씨팔놈들. 사람 성질나게.

나 이등관대장님 이등관

정 영 학 하여튼 조심해서. 예, 예.

김 만 배 응, 그래. 그러니까 소통은 하고 있자고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정 영 학 네, 형님. 네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네. 하여튼 조심해서 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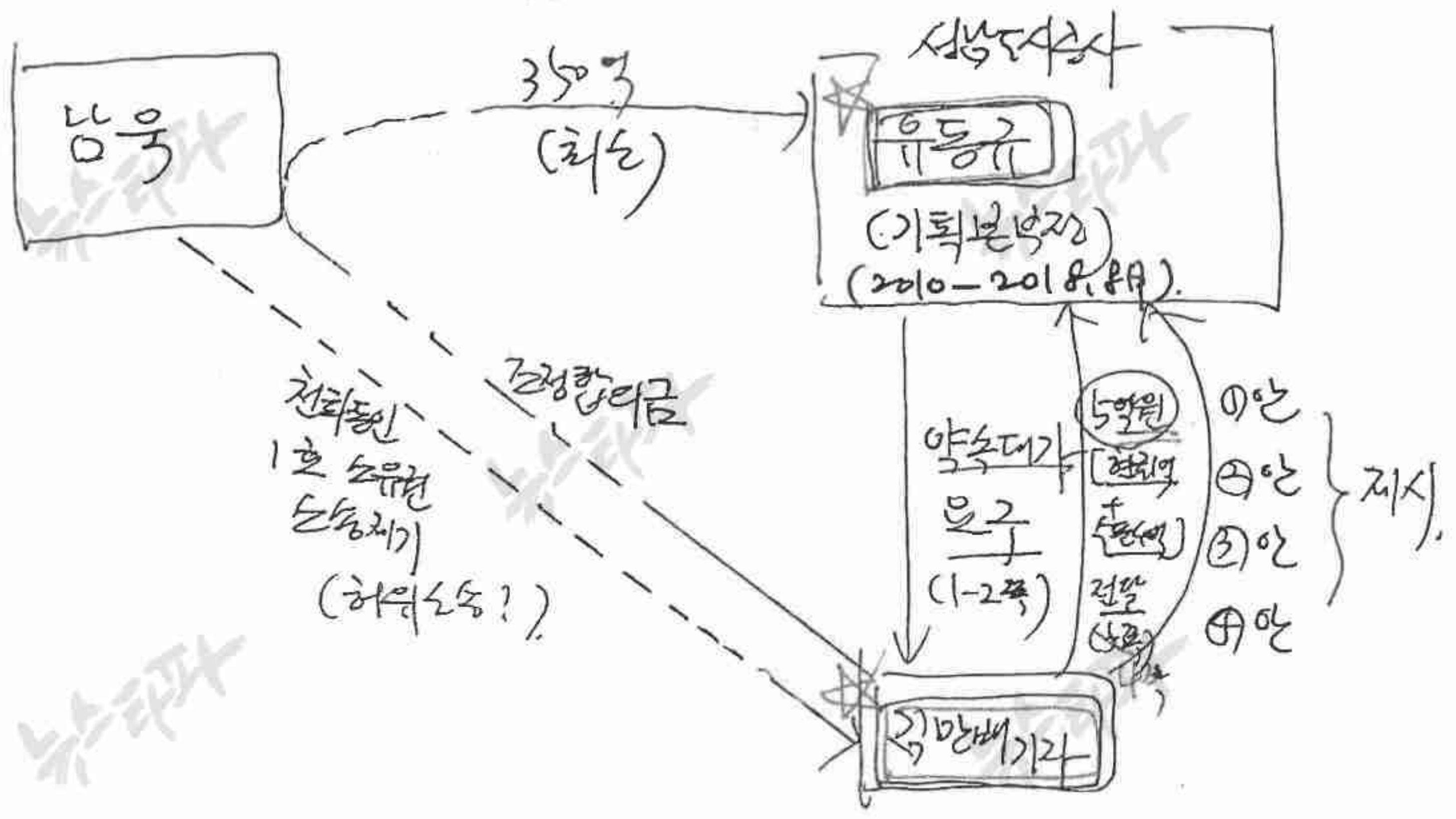
김 만 배 그래, 들어가. 응.

정 영 학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끝)

유대권 동화능을

[김민배 vs 김영학]

2021. 2. 1.



- 0안: 유대권이 직제, 1세대 수령
- 1안: 김민배 1세대 수령 후 유대권에 주어
- 2안: 남욱이 1호 소유권 상속 후 상속재산 합법금에 남욱에게 지급한다. 남욱이 유대권에 전달하는 방안 - 3쪽
- 3안: 유대권이 회사 설립하면, 김민배가 투자형식으로 4급하는 방안.

친화적인 1호

대주주: (2) 최민배 (?)

○ 통화일시 : 2021. 02. 01. 15:55:20 (17분27초)
○ 통화자 : 김만배, 정영학

정영학 아 예, 여보세요?

김만배 어, 정 회계사.

정영학 아 예, 형님. 네, 네, 네.

김만배 전화 가능해?

정영학 예. 가능합니다. 예.

김만배 그 뭐 좀 상의할라고.

정영학 예, 예, 예.

→ 유동규 [전: 영남도사감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그 저기 뭐야, 동규 말이야. 동규.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이.. 이제 현재 나온 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현찰로 주겠다. 수표로' 응?

정영학 네..

김만배 왜냐면, '아니면 증여로 가져가면 좋은데 니가 증여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내가 받아서 세금을 내고 빼서 주겠다. 수표로. 그러면 니가 알아서 써
라'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투자를 자꾸 해달래. 투자를.
②. 그래서 내가 '세무조사 전에 나는 투자는 싫다. 잘못하면은 법률적으로는

김만배

이건 무슨 때론

요건을 갖춘 투자지만, 내용적으로 부실할 때 그 책임은 결국 나와 우리 경영진이 질 텐데, 그게 대기업이 수사 받는 가능 큰 이유인데. 비자금을 빼돌린다고 응?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런데 니가 어디서 변호사한테 그런 자문을 구했으면 너는 안전하지만 형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랬더니 그걸로 계속 해달래. 투자로.

정영학 아.. 네,네. 그..

김만배 그런데.. 응.

정영학 형님, 저야 뭐 저야 진짜 잘, 법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만배 세무적으로는 어때?

정영학 세무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그, 이게 만약에 못 들어오면 대손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손금이 인정이 안 되고,

김만배 그래.

정영학 아마 그게 대표자나 실제 하는..

김만배 형사처벌이야. 응,응.

정영학 그렇죠. 저도 형사처벌일 것 같긴 합니다. 예,예. 저도 뭐..

김 만 배 응. 왜냐면 이게 수사과정에 그런 게 많거든.
처음에 1,2년은 배당해주고 뭐하고 이러는데, 그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거지. 가장. 그런데..

정 영 학 네, 네. 아..

김 만 배 그래서 형은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몇 년 동안에 못 들어오면 처벌 받아?

정 영 학 그게 예를 들어 나갔는데 전부 대손이면 아마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나서,
그러면 세무서나 이런 데서 충당금 금액이 왜 큰지 조사하다 보면 좀 뭐,
일단 세무상으로는 대손충당금이 크면 손금부인입니다. 그래서,

김 만 배 뭐한다고?

정 영 학 손금. 손실을 부인해버립니다.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일단 세무적으로는 그렇구요. 제가 글썽요.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세무적으로는 여하튼 말이 안 됩니다. 회수가 안 되면.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이랬어. '차라리 남욱이 형한테 천화동인1을 소송하면 내가
너하고 금액을 그 남욱이한테..'

정 영 학 아, 그것도 괜찮.. 형님, 그거는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렇게 한답니까? 그쪽에서?

김 만 배 아니 그랬더니 남욱이를 못 믿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보고 어찌라는 거야?'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니가 그쪽에서 투자를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투자금을 니가 돌려준다고 하면 개는 오케이 할 것 아냐'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현찰 1억, 수표 4억을. 유동규
내가 그랬어. 니 돈(니가 가져가는 건 형이 뭐라고 그러냐. 형은 그런 욕심 없어. 니 돈 가져가. 응? 가져가는데)

정영학 네, 형님.

김만배 응. '가져가는데 걸리지 않게 가져가야지' 내가 그랬어.
'너 이거 걸리면 네 명은 다 죽어' 내가 그랬어.
유동규 '뭘로 방어할래' 내가 그랬어.

정영학 그럼요 형님.

김만배 지금 시나리오는 다 도로아미타불이고. 응?
그리고 대선 전에 투자해놨다가 저 돈이 이동했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

) 정영학 예..

) 김만배 어디 계셔?

정영학 저 플라자CC에 왔습니다. 하하하.

김만배 하하하. 아, 오늘은 그래도 골프 칠만 하겠다.

정영학 오늘 날씨 좋았습니다, 형님. ◦ 죄송합니다. 형님 스트레스이신데.

김만배 나는 씨팔 준공 때문에 미치겠고 그런데. 아유. 여기에다가 유동규 문제까지 터졌어.

정영학 네.. 아유, 형님, 스트레스이시겠습니다.

김만배 음.

정영학 일단 저는 출자로 하면 세무상으로 회수가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있고, 이거는 대손 손금불상으로 가고, 세법상으로도 이게 아마 고의적인 걸로 문제가 있으면 아마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세무상으로도 무리입니다. 예, 예. 비용이 이 정도 안 되고.

김만배 음, 음. 그래. 저게 만약에,

정영학 네, 형님.

김만배 아무 법인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만한 요건이 돼야지 또 투자도 적격한지 안한지 보는 거 아냐, 나중에.

정영학 그건 형님, 법적으로, 일단 뭐 그걸 떠나서, 일반 법인에서 제3자한테 투자했을 때 정상적인 투자면 괜찮은데요, 이 건 말고 다른 건이라 하더라도 좀 이게 고의적인 어떤 대손을 예상한 투자면 형님한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고의적인 대손이면.

김만배 그거는 100% 처벌 받아. 100%.
그게 비자금 조성 방법으로 옛날에 쓰던 거라 안된다 이거야.

정영학 네..

김만배 음, 음, 음.

정영학 아이구 형님..

김만배 근데.. 음.. 그래 알았어. 이따가 몇시에 끝나?

정영학 이제 강남으로 나갈라고..

김만배 아 그러면 운중동에서 커피 한잔 할까? 밥 먹기 전에.

정영학 이따 그럼 끝나고 내려 와서 할까요, 형님?

김만배 그래 그러면 자기가 편할 때 시간을 줘. 편할 때.

정영학 네..

김만배 내가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녁은.

정영학 형님, 저녁 식사 하십시오. 저희는 참치집에서 먹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배 그래 그래. 아 그러면 그냥 오늘 서울에 계셔. 서울에 계셔,

정영학 아. 잘 알겠습니다, 형님.

김만배 그래 그래. 시간 날 때 이 문제를 좀 상의를 해야 돼. 왜냐면 이게 간단치 않아.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형님.

김만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나는 어떤 수로도 줄게. 형은 욕심 안 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주는데.

자, 1안. 배당 받아가는 거. 나중에 제3자나 누구로. 아니면 증여를 받아 간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면 상관없으니까.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증여세. 아니면 2안. 내가 그냥 회사에서 배당 받아서 그거를 너한테 수표

로 뭐 투자를 해주든 뭐로 하는 방법, 그냥 주는 방법이든 뭐하든.
개인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지?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그것도 싫다 하면 남욱이가..

정영학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개인이 받아서 주시면, 세무상으로는.
저야 뭐 세금 쪽만..

김만배 그렇지. 형이 세금 조금 내면 되니까.
형이 또 회사에서 받을 때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40 몇%를. 응?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응. 자 그렇게 조세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오케이.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 안되면 형이, 남욱이가 형한테 소송을 걸라고 그래.
그러면 형이 화해를 해서 그게 금액을 서로 정한 다음에 남욱이한테 소유
권을 인정해서 주면 남욱이가 너한테 투자하면 되잖아. 이렇게 했지.

정영학 네..

김만배 음, 음. 그랬더니 남욱이는 못 믿겠다는데.
'그러면 누구를 믿어. 형을 죽으라는 거야' 그랬어.
'니네 편을 니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해' 그랬어.

정영학 그럼요. 예.

김만배 '사실상 (니)편인데. (개가)'
↓ 유동규 ↓ 남욱이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러면서 형이 그랬어. '남옥이 돈 안 받기로 했어. 대신에 니꺼에서 깔
거야, 형이' 그랬어. 응?

↓
유동규

정영학 네..

김만배 그랬더니 저 똥 하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

정영학 예..

김만배 야 근데 저거 잘못 나가면 다 몰살이다 이.

정영학 형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야 뭐..

김만배 응. 왜냐면 시나리오고 뭐고 개좃이여. 저러면 돈이.

정영학 네,네. 일단 뭐 저야 뭐 세금상으로 판단을 해도 대손 부인하고 조사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김만배 몇 년 동안에 저게 대손 손실금이 총당이 되지? 투자가.

정영학 투자가 실제, 일단 상사채권이 일단 5년입니다. 5년.

김만배 5년이지?

정영학 네.

김만배 근데 저게 검찰 수사나 하면 저게 적격인지 안한지 볼거라고. 그지?

정영학 저는 하여튼 뭐 세금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김 만 배 아니, 형이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몰살할 거라고.

정 영 학 한번 물어보십시오, 형님.

김 만 배 아니, 안된대. 왜냐면,

정 영 학 그럴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응. 그냥 그냥 내막 없이 얘기해주면 아니 뭐 투자처만 괜찮으면 상관없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살짝 얘기하면 몰살할 거라고 딱 얘기
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이야~ 참.

김 만 배 남옥이가 지금 똥구멍에 바람을 엄청 넣나봐.

정 영 학 거기서 넣은 것 같아요.

김 만 배 응.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배당 받아가서, 아니면 증여로 받아
가서 수표로 써. 수표로 쓰면 개인대 개인 거래인데 뭐 상관있어. 한번만
돌리면 되지. 형이 배당 받은 돈을 반이 날라간다는 게 있지만, 형이 꺼내
서 주는데’ 내가 그랬지.

정 영 학 아니 그래도.

김 만 배 그랬더니. ‘형의 부담이지만’ 그랬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간다 이
거야.

정영학 네..

유동규
↑

김만배 그래서 '무슨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가. 아무리 받아가도 니가 이것저것 다 떼도 350억은 넘을 텐데' 응? 내가 그랬어.
그렇잖아. 남욕이 것 제하고, 공통비 둘이 필요한 것 제하고 뭐 해도 그 정도는 될 텐데. 응?

6.07

정영학 네, 네, 네, 네.

김만배 응? 그랬더니.. 그런데 이놈은 이제 세금 내는 게 싫은 거야.

정영학 네..

김만배 근데 형이 볼 때 몰살이야.

정영학 네..

김만배 아니, 저렇지 않겠어? 저거 세무조사는 두 번은 있을 건데.
한번은 성남의뜰, 한번은 화천대유. 그지?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그래서 걱정이야.

정영학 아유, 형님 스트레스이실 것 같습니다.

김만배 아~ 그리고 난 저 준공 때문에..
어차피 이 새끼들 늦을 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현안은..

정영학 준공.. 예예예. 너무 준공 갖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형님.

김 만 배 현안은 공사비 또 올릴 거고 이제. 우리가 급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아주 머리가 뽀개져요.

정 영 학 예.. 저는.. 여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형님. 그거는..

김 만 배 그래 그래.

정 영 학 예, 예. 저는 좀..

김 만 배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어떤 당파적인 친소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닌 (투자)에 대한 거는 진짜 회계적이고 법률적인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안 그러면 잘못하면 다 죽어.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리고 대선 전에 큰돈이 움직이면 남들이 볼거라고.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하여튼간 잘 판단해봐. 고민해봐.

정 영 학 예,예,예.

김 만 배 그냥 백지상태에서 한번. 응?

정 영 학 네, 형님.

김 만 배 그래.

정영학 네. 아이구 죄송합니다.

김만배 아니 아니야. 아유 씨팔 난 그냥 다 때려치웠으면 좋겠어. 돈이고 뭐고.

정영학 형님, 준공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오히려 그쪽이 더 이슈인 것 같구요. 하여튼 뭐 너무 그냥..

김만배 그래.

정영학 예, 예. 알겠습니다.

김만배 준공은 압박을 해야 돼, 애들을. 그래야지 맞춰봐.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응?

정영학 네, 네, 네.

김만배 응, 응. 저거 뭐냐면 이 진입로, 사다리 진입로 이런 데도 올 가을 정도 돼야지 8,9월 돼야지 준공 낼 수 있어. 물리적으로.

정영학 네, 네.

김만배 왜냐면 복개공사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서.

정영학 예.. 생각보다 늦습니다.

김만배 늦어. 저것 나중에 민원이 크다 이. 뭐 양완범이는 입주자들 들어오면 입주자들 민원으로 시청을 압박해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거 웃기는 소리야. 응?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가. 안돼.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너무 정치적으로 해결할라고 그래. 실무적은 그 저, 기술적으로 정상적으로 해결을 안하고. 공무원들하고 싸움이나 할라고 하고. 아주 실망했어. (...)랑 싸움하면 돼.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지.

강태우 아니 개가 된 힘이 있다고 공무원들을 인사시키고 그래.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또. 응?

정영학 예..

김만배 누구 힘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영학 아.. 아이구, 형님 몇 달만 참으시죠 뭐.

김만배 응. 참고 있어. 그리고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내가 참는거야. 왜냐면.. 내가 꼭 참는다, 진짜. 영학이한테 상의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내가..

정영학 저한테 푸십시오. 저한테.

김만배 왜냐면, 아니 아니 진짜 내가 꼭 참어. 왜냐면 이 새끼들. 야아~ 내가 이런 놈들 데리고 일한 것 진짜 후회해.

정영학 저한테 푸십시오. 저한테,

김만배 기량이 영학이 10분의 1도 안돼요.

정영학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만배 아니야. 아니야. 애들 아마추어야. 아마추어고.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그나마 달리는 말 달리게 하는 거야.

정영학 네네. 조금만 참으십시오.

김만배 응. 진짜 야아 내가.. 여기에 선데이서울감서부터 무지 많어.
하여튼간 찡피해 죽겠어. 시에 들어가면. 물어봐서.

정영학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하하하하. 하여튼간 나중에 얘기해줄게.

정영학 네네, 잘 알겠습니다 형님.

김만배 그래 그래.

정영학 네네, 감사합니다.

김만배 들어가. 응.

정영학 네네, 감사합니다. 네.

○ 통화일시 : 2021. 02. 01. 16:52:05 (49초)

○ 통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김 만 배 어, 정 회계사.

정 영 학 아 여보세요?

김 만 배 어. 그래서,

정 영 학 네, 형님. 네.

김 만 배 유동규는 저 뭐야, '남옥한테 해라. 형이 남옥이가 소송 넣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한번 남옥이하고 상의해보겠다.

정 영 학 아..

김 만 배 흠흠~

정 영 학 그러면은.. 잘 알겠습니다, 형님.

김 만 배 그런데 형이 볼 때는 터진다 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음..

정 영 학 아.. 예..

김 만 배 근데 아무튼, 내일이나 언제나 형하고 상의를 해. 한번 보자고.

정 영 학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네, 네.

김 만 배 그래 그래.

정 영 학 네, 네, 네.

김 만 배 응. 수고해~ 음~ 음~

정 영 학 네네, 감사합니다. 네. (끝)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

뉴타과